

月刊

미사일

創刊 4294年 10月 1日

4294

5호

愛國 이 라는 것 李 殷 相

< 脫 國軍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 李 熙 昇

座談會 **日課後의 生活을 말한다**

☆附錄 · 特別 政調 教育 資料



祝 空軍의 날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적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공군 12년



특 집

국군의 날

한국공군(韓國空軍) 발전개요(發展概要)

1. 초창기(初創期)

공군의 창건(創建)은 8·15해방과 함께 해외 공군계에서 활약하던 하늘의 선각자들이 웅지(雄志)를 간직한 채 속속 환국하여 현대 국방에 있어서 공군력이 차지하는 비중의 절대성과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북한 괴뢰(傀儡)의 남침을 능히 예견(豫見)하는 가운데 항공운동을 전개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리하여 한국공군창건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이르는바 7인 간부들이 단기 4281년 4월 1일 항공부대 창설 간부 요원으로 국방예비대(國防警備隊) 보병학교에 입교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밟게 되었던 것이며 단기 4281년 5월 5일에 항공기지 부제가 창설되고 초대 부대장에 최용덕(崔用德) 장군이 취임하였다.

단기 4281년 9월 13일 미군으로부터 L-4 경비행기 10대를 인수하게 됨을 계기로 육군 항공사령부로 승격하고 그 예하에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를 창설하였으며 단기 4281년 9월 15일에는 최초로 태극 표시를 단 비행기가 우리 조종사의 손에 의하여 역사적 비행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최초에는 공군이 육군의 한 예속부대로서 발족하였으나 현실적 요청은 물론 선진국가의 편제로 볼 때에도 공군의 조속한 독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 제1차적으로 수반되는 인적 강화책으로 단기 4282년 2월 15일 육군항공사관학교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한편 단기 4282년 6월 28일 항공국의 설치를 보아 군행정의 기초를 확립하는 등 공군발전은 착착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요람기(搖籃期)를 면치 못한 이때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에 의하여 여순(麗順) 반란사건



오늘의 태세

건군 12주년을 맞아 우리 공군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언제나 필승을 기(期)할 수 있는 전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은 확고한 임전태세로 조국의 하늘과 극동의 자유를 지키는 우리 공군의 활약상이다.

작전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다사다난한 건설기를 거쳐 단기 4282년 10월 1일 드디어 소망의 공군독립을 보게 되었다.

단기 4283년 5월 14일에는 국민의 정성 어린 헌납금으로 구입된 건국기(T-6 연습기) 10대의 명명식(命名式)이 여의도(汝矣島) 기지에서 내외 귀빈(貴賓) 및 다수 시민이 참집(參集)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러나 공군이 독립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6·25 전란은 발발(勃發)하였던 것이다.

2. 동란기(動亂期)

전력을 논한 여지조차 없는 형편에서 6·25 전란을 당한 공군으로서는 이에 대처하여 여의도 비행장에 작전지휘소를 설치하고 임시 보유하고 있던 22대의 전(全)가동기를 가지고 UN 공군기가 전선에 도착하기 전 7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 지상군과 UN군 간의 연락 임무, 전단살포 및 정찰 등에 협력하는 한편 당시 전투기가 없었으므로 30파운드 국산폭탄을 AT-6 및 경비행기로 동두천, 의정부 전선에서 남침하는 적군에게 투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 놓였을 때 공군에서는 2차대전시에 위력을 발휘했던 전투기 F-51(일명 무스탕) 10대를 미군으로부터 단기 4283년 7월 2일 인수하여 단 2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단기 4283년 7월 3일부터 F-51 전투기에 의한 최초의 역사적 출격을 개시하여 우리 지상군을 엄호 남침하는 적에게 맹격을 가하였다.

단기 4283년 7월 하순에 이르러 지연 후퇴작전이 대체로 끝나고 UN군은 낙동강 궁형(弓形) 방어선구축을 완료하여 적의 남침 저지에 전화력을 기울일 무렵 우리 공군은 진해 등지에 기지를 두고 통영 방면, 영천 방면 그밖에 낙동강 일대의 적의 섬멸(殲滅) 작전에 참가하여 적의 완강한 포위망을 격파하고 우리 군 북진공격에 일대전기를 마련함에 큰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명령(命令) 일하(一下) 애기(愛機)로 달리는 조종사들.



단기 4283년 9월 15일 UN군이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자 한국공군도 이에 호응하여 기지를 진해로부터 여의도를 거쳐 평양으로 전진시키고 평양, 선천, 강계, 안주 지구에 출격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리면서 통일과업을 거의 완수하려 할 때 중공군의 대거 개입으로 인하여 또다시 철수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한국공군은 전투부대를 대전 기지에 이동시키고 작전을 계속하였으며 잔여 비행단 병력은 제주기지에 이동하여 가일층(加一層) 맹렬한 훈련을 전개하여 속속 병력을 일선(一線) 기지로 보냈다.

한편 후방지역에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준동(蠢動)하던 공비(共匪) 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공비소탕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때까지 한국공군은 김두만(金斗萬) 대령(당시 계급 소령)을 필두로 백회출격 용사를 속출시켰던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공군의 전력은 명실공히 강화됨으로서 단기 4284년 10월부터 강릉 지구를 근거로 적 후방에 대한 단독출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10월 28일에는 동부전선에서 한국지상군을 직접 지원하는 공지(空地) 협동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단기 4285년 12월 25일에는 적의 소위 크리스마스 공세를 선제하는 대출격을 감행하여 적군의 간성(干城)으로 싸웠던 것이다.

그러나 단기 4286년 7월 27일 국토가 양단된 채 휴전은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간 한국공군은 단독 출격작전을 개시한 이래로 휴전성립일까지 무려 8276회의 출격횟수와 39명의 100회 출격 용사를 배출함으로써 적에게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었던 것이다.

3. 휴전기(休戰旗)

휴전 이래 한국 공군은 공산 괴뢰(傀儡)의 재침(再侵)에 대비하여 맹렬한 훈련기로 들어갔으며 장비개선을 통한 현대 공군의 위용을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을 위(爲)
진(眞)은 고(高)



항로관제사들이 비행 중인 →
조종사들과 항로의 안전을 위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위선(爲先) 최신 제트기를 보유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제트 조정교육 및 정비교육에 주력하였으며 단기 4288년 6월 20일에는 제1차로 F—86 세이버 제트기 5대의 정식 인수가 □□음으로써 드디어 한국공군도 현대화된 공군으로서의 제1보를 내디뎠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한편으로는 레이더의 기술교육과 C—46 수송기의 조종 및 정비교육이 진행되었고 단기 4288년 10월의 제7회 항공일에는 우리나라 초유의 제트기 공중 전시가 관중들 환호리(歡呼裏)에 개최되었다. 이리하여 단기 4288년 10월에는 우리의 제○전투비행단이 최초 제트기□장비되었으며 단기 4290년 10월 이후부터는 국내 주요기지를 정기항해하는 C—46 수송기에 의한 수송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단기 4291년 1월에는 미 공군 당국으로부터 항로통신 통제사무를 정식으로 한국공군이 이양받음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항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짧은 역사에 비하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한국공군은 단기 4291년 4월 9일에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합동공군사위를 비롯하여 단기 4292년 4월 27일 이래 연례적으로 비율빈(比律賓)[베트남] 마닐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태평양지구 자유진영 공군사격대회에 3차에 걸쳐 참가하여 각 종목에 있어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함으로써 한국공군의 탁월한 역량을 해외에 널리 과시하였다. 그리고 단기 4292년 7월에는 대공경보관제기구(對空警報管制機構)가 미 공군으로부터 우리 공군에 완전히 이양되어 단독으로 운영케 되었으며 단기 4292년 9월에는 또 하나의 최신 제트기로 장비된 제○비행단의 창설을 보게 됨으로서 우리 공군은 현대적인 전술공군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조국의 영공 수호에 만반태세(萬般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단기 4292년 12월 16일 해병대와의 공수작전



고공의 기상(氣象)을 아
하여 가장 중요한 일
공기상관측용(空氣象觀測用) 각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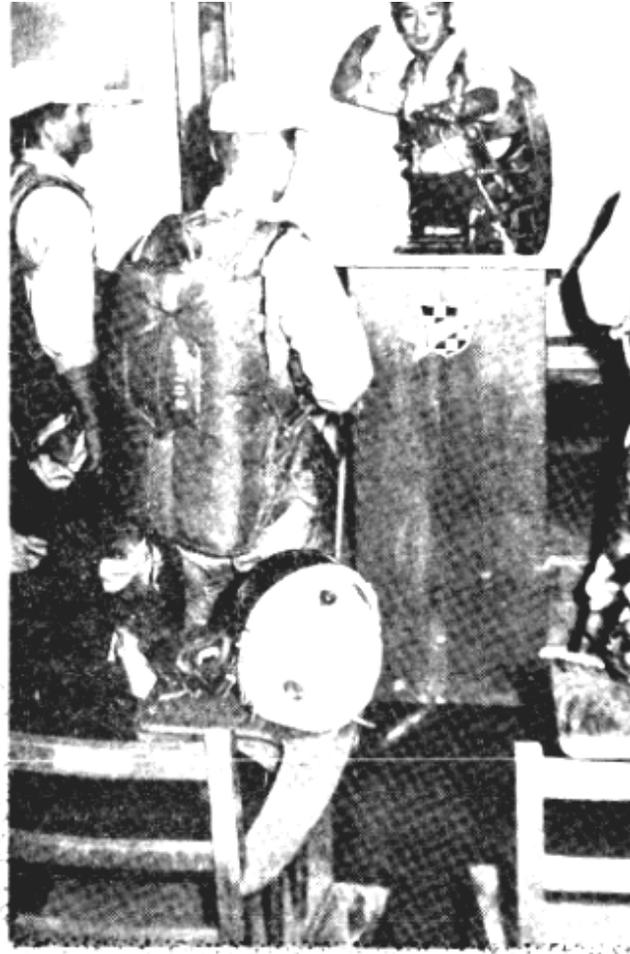
상(上)=통신하사관들의 교육광경
중(中)=공지(空地)합동 작전훈련 광경
하(下)=지휘탑에서 이착륙항공기를 관제하고
←

인 독수리 작전에 참가를 비롯하여 단기 4293년 6월 12일 씨호크(SEA HAWK) 작전(한국해군, 해병대, 공군과 미 공군의 합동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전기(戰技)항상에 주력을 다하였으며 단기 4292년 8월 19일에는 최초로 제트기 창정비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동년 11월에는 주야청담(晝夜晴曇)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요격 전투기인 F—86D, 12월에는 또다시 전술항공기인 T—28의 인수 도입 등으로 방공의 힘은 더욱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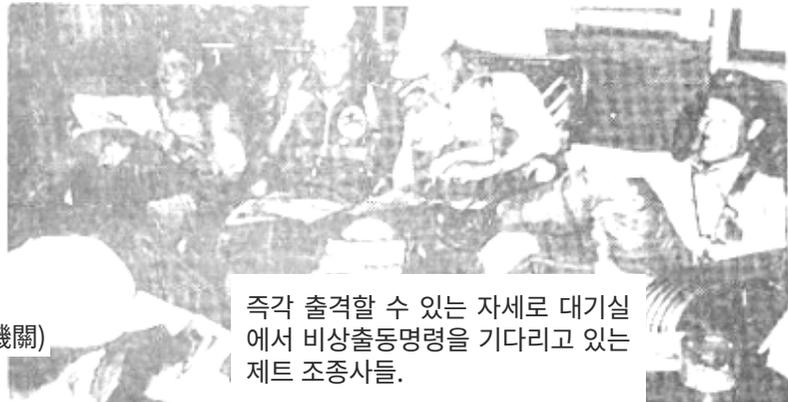
단기 4294년에는 UN 육·해·공군 및 한국 육·해·공군·해병대와의 방공반격지원(防空反擊支援) 합동작전 등에 수차(數次)에 걸쳐 출동하여 임전태세의 실력을 배양하는 한편 7월에는 남원지구 수해민 구호에 헬리콥터가 출동하여 중환자 수송 및 의료품 식량을 공급하였고 또 이에 앞서 6월에는 절량(絶糧)으로 사선에서 헤매는 전북 옥구군(沃溝郡) 근해의 고도민(孤島民)을 구호한 바 있다.

9월 15일에는 기동성(機動性)있는 방공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작전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약진하기 위한 전력(空軍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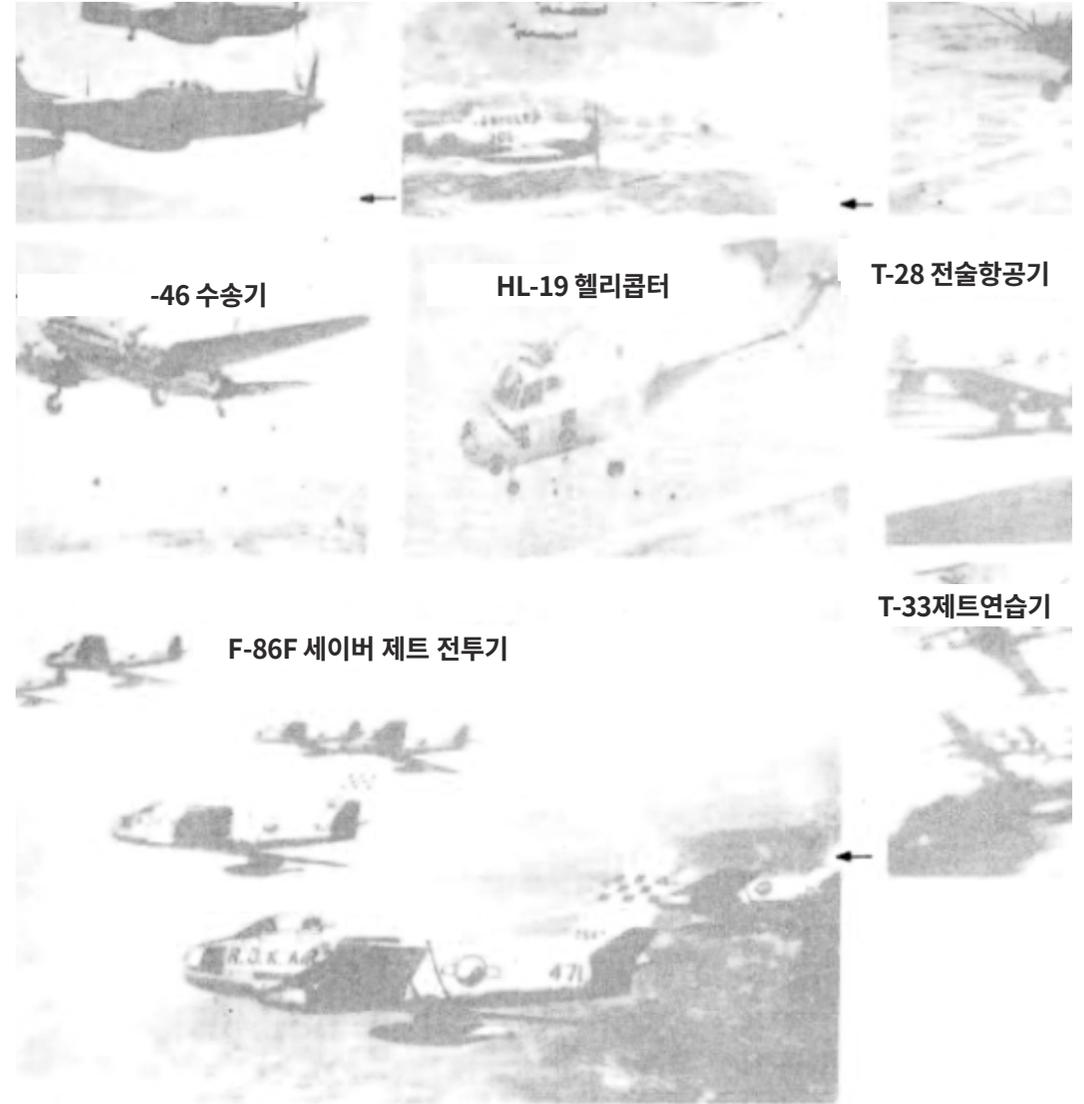


출격직전 미션(임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제트조종사들



기(機)에 기관(機關)

즉각 출격할 수 있는 자세로 대기실에서 비상출동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제트 조종사들.



-46 수송기

HL-19 헬리콥터

T-28 전술항공기

F-86F 세이버 제트 전투기

T-33제트연습기



제트 전투기의 날개 밑에 로켓탄을 장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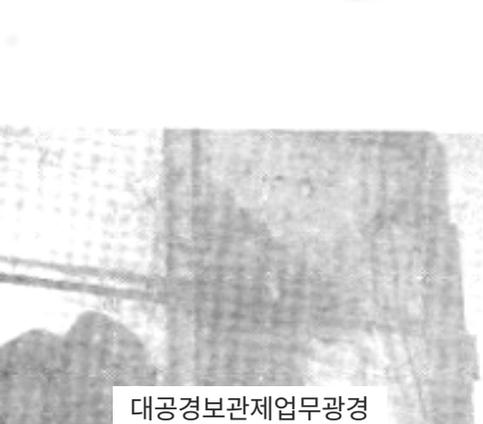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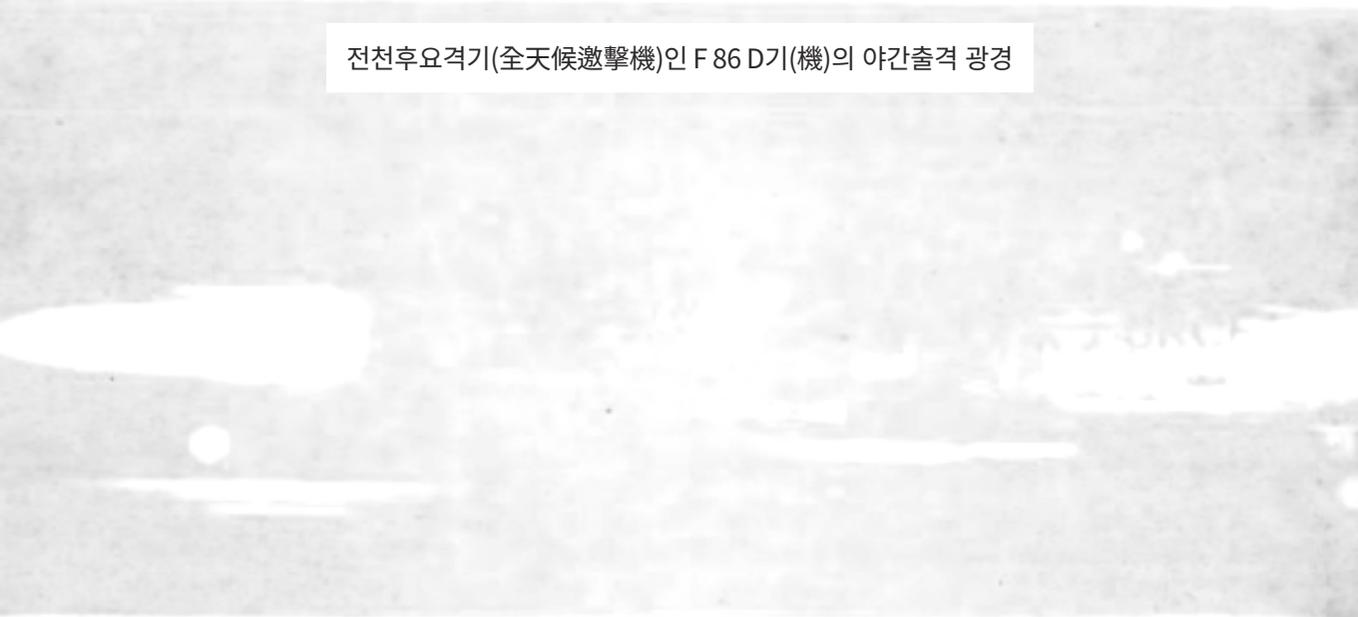
정비사들 포탄을 장전

대지(對地) 사격훈련 광경



삼군합동작전훈련 광경

전천후요격기(全天候邀擊機)인 F 86 D기(機)의 야간출격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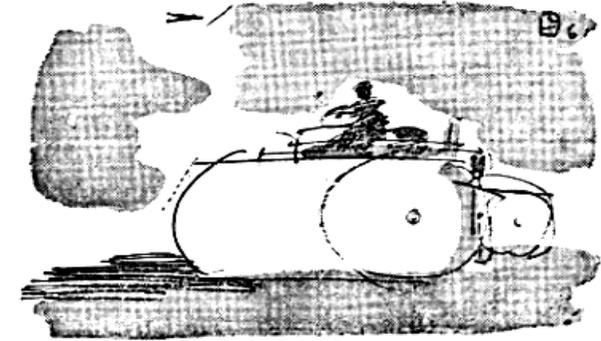


대공경보관제업무광경



전투기의 기체를 정비하고 있는 광경

미사일 제 5 호



표지(表紙)··· 무한(無限)한 우주공간(宇宙空間)을 무대(舞臺)로 하여 싸우는 공군(空軍)이 날로 발전(發展)하는 전력(戰力)과 단결(團結)(응결(凝結)된 흑점(黑點))을 상징(象徵)하고 있다
민철홍(閔哲泓)

<목차(目次)>

특집화보(特輯畫報)·공군 12년 <국군(國軍)의 날을 맞아>

- 한국 공군 발전개요 -

애국(愛國)이라는 것	이은상(李殷相) 2
손발이 맞아야 한다	이희승(李熙昇) 5
협조정신(協助精神)과 사회생활(社會生活)	윤영춘(尹永春) 7

◇ 10월 3일 개천절(開天節)·홍익인간(弘益人間)	김연학(金延鶴) 12
◇ 10월 9일 한글날·한글의 우수성(優秀性)	이승녕(李崇寧) 42
◇ 10월 24일 유엔데이·평화를 위한 노력(努力)	이원일(李元一) 56

홍의장군(紅衣將軍)과 권율장군(權栗將軍)	류광열(柳光烈) 8
미국(美國)의 「메스·커뮤니케이션」	김기점(金基漸) 23
렉싱턴·콩코드 의 싸움	이보형(李普珩) 20

달나라로 가는 길	김영주 46
미사일의 역사(歷史) ③	외지(外誌)에서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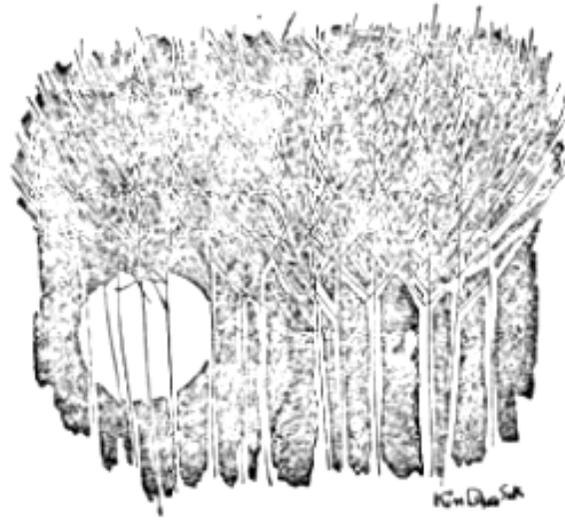
^ 장 명 란 v	술선수범(率先垂範)	이영복(李永福) 38
	수호정신(守護精神)	이선우(李先雨) 37
	어느 파일롯의 편지에서	KSK 39

좌담회(座談會) 일과후의 생활을 말한다	10
---------------------------------	----

◇ 세계(世界)의 경이(驚異) ②	하리 바톤 41
◇ 스위스 기행(紀行)	김재원(金載元) 16
◇ 신앙(信仰)과 생활(生活)	임동선(林東善) 30
◇ 군번(軍番)없는 반공용사(反共勇士)	류덕선(柳德善) 24
◇ 당신도 성공(成功)할 수 있다	편집계(編輯系) 48

^ 수 필 v	비행(飛行)의 꿈	이영희(李寧熙) 32
	동지에(同志愛)	이경남(李敬南) 33

시(詩)·CUPIDO	김종문(金宗文) 34
화문(畫文)·SMILE	백영수(白榮宋) 28
<월간시사> 후르시초프의 위험(危險)한 곡예(曲藝)	54
<꿈트> 슬프지 않은 이유(理由)	고바우 중위 58
소설(小說)·남(南)쪽으로 가는 길	이원복(李元復) 60
<부록(附錄)>특별정훈교육자료(特別政訓教育資料)	65



애국(愛國)이라는 것

이은상(李殷相)

여말의 목은(牧隱) 선생이 강화(江華) 마니산(摩尼山)에 올라 험고한 강산을 바라보다가 산첩첩(山疊疊), 수중중(水重重)한 풍경에 너무나 감격하여 읊은 시구에 ‘산하험여차(山河險如此), 장재오유국(壯哉吾有國)’이란 것이 있다.

‘강산이 이같이 험고할사, 어허 장하다 우리나라여!’라는 뜻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애국심의 기반인 것이다. 제 국토를 사랑하고 제 국토에 감격하는 심경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애국자인 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이 마지막 전몰(戰歿)하기 2일 전에 명나라 수군도독(水軍都督) 진린(陳璘)과 대화하던 중에 진 도독이 소서행장(小西行長)의 피에 빠져 짐짓 그의 나갈 길을 열어줄 생각으로 자기는 남해의 적들을 무찌르러 가겠노라 하므로 충무공은 남해에 있는 것은 적이 아니라 우리 포로들임을 말했다.

그랬으나 진 도독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할뿐더러 도리어 황상(皇上)이 내게 장일(長劔)을 내려 주셨다 하면서 자기가 생살지권(生殺之權)을 가진 것을 들어 공을 위협까지 하자 공은

“한번 죽는 건 아깝지 아니하오. 내가 대장이 되었으매 결코 적을 내어놓고 우리 사람들의 목숨을 죽이게 할 수는 없소”

하여 마침내 그를 감복(感服)케 한 일이 있었다.

그렇다 — 충무공이 말한 그 ‘우리 사람(아인(我人))에 대한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요점인 것이다.

우리 사람! 우리 백성! 우리 동포! 우리 겨레! 조상과 혈통과 역사와 말과 글과 풍속과 제도와 모든 문화와 생활의 전체운명을 같이한 제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심경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애국자인 것이다.

고려 현종(顯宗) 때 대륙으로부터 요(遼)나라 성종(聖宗)이 대군을 몰고 쳐들어 왔을 적에 일이 불행하게 되어

우리 편 장군 강조(康兆) 등이 적에게로 사로잡혀 갔다.

요나라 성종은 강조를 향해서

“네가 내 신하가 되겠느냐”

하자 강조는 대답하되

“나는 고려사람이다. 어찌 다시 네 신하가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은 두 번 세 번 묻다 말고 칼로서 강조의 살을 저미어가며 물었어도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두 동강이 되어 죽고 말았다. 강조는 고려(곧 조국)의 이름 아래 제 생명을 바친 것이다.

그렇다. 조국의 주권, 조국의 명예, 조국에 대한 사랑과 지조를 제 생명같이 여기는 심경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애국자인 것이다.

우리가 애국이란 말을 하 많이 듣고 또 하 많이 쓰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구체적인 뚜렷한 내용을 파악한 이는 적은 것 같다.

과연 무엇이 애국인가. 어떤 이가 애국자인가. 그것의 진실한 내용을 명확히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열거한 세 가지 항목에 틀림이 없다.

제 국토를 사랑하고, 제 국민을 사랑하고, 또 제 국권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제 국토를 사랑한다는 일점에서 볼 때 나는 우리들 농민처럼 애국자가 없다고 본다.

아침부터 밤까지 제 농토를 갈고 또 거기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농민들! 그들의 구슬 같은 땀방울이 떨어져 그 땅이 기름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처럼 국토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도시의 정치인이나 문화인들이 농민들을 계몽한다고 가서 애국심을 선양하라고 외치는 일이 많다. 다시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풍자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누구에게 애국을 가르치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시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애국하는 방법을 배우고 와야 옳을 것이다.

오늘 이 나라의 청년들은 먼저 내 국토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 국토를 떠나서는 내 생활이 무너지고 만다. 이 지구 위에 나를 반가이 받아줄 곳은 여기, 바로 여기, 내 국토밖에는 아무 곳도 없는 줄을 뼈속 깊이 깨닫고 감격해야 한다.

충무공의 이야기로 이런 것이 있다.

충무공이 전쟁 중에 군량을 자기 손으로 마련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 다른 또 백미 오백 석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데 누가 그것을 어디 쓸 것인지를 물었다. 그때에 충무공은 이런 대답을 했다.

“지금 임금(곧 주권을 말함이다)이 의주에 가 계신데 일이 좀 더 불행해지면 강을 건너 요동을 넘어서실 것이다. 조정에는 대신들의 의견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마땅히 배에다 이 곡식을 싣고 서(西)로 올라가서 임금(주권)을 모시고 적을 상대하여 목숨을 다해 싸울 것이요, 혹시 싸움이 불리하여 죽는다해도 임금과 신하가 같이 안고 내 국토 안에서 죽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 마지막 한마디 ‘임금과 신하가 같이 안고 내 나라 땅에서 죽는 것이 옳다(군신동사어아국지지가야(君臣同死於我國之地可也))한 그 말! 과연 100대에 내세울 위대한 애국담언(愛國箴言)이다.

싸움이 터지고 내 신변에 위험이 닥칠 적에 모든 국민들 아니 특히 모든 지도자들로서 과연 내 주권과 사상과 이념을 안고 내 국토 안에서 죽겠노라는 무서운 결의를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런지!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면 망한 나라의 국민을 반가이 받아줄 나라가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살아도 죽어도 나라는 오직 여기밖에 허락된 곳이 없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다시 또 제 국민을 사랑한다는 일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 군인처럼 애국자가 없다고 본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일선에서 나라의 안위를 한 어깨에 메고 국민의 앞을 방위하는 군인들! 그들의 고초와 피와 죽음으로 국민이 하룻밤이라도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아닌가 하고 헤아려 볼 때 그들의 은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지도 인사들이 군인 장병들 앞에서 애국강연을 곧잘 하고 있음을 본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외치는 것인지 웃을 일이다.

그렇다! 군인을 일러 국가의 간성(干城)이라고 한다. 성곽의 정의는 어폭보민(禦暴保民)이다. 밖으로 침해해 들어오는 폭력을 방어하고 다시 안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군인들로서 군인의 임무를 마치 ‘어폭(禦暴)인 것만으로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전쟁하는 데만 쓰는 것이 군인이 아니라 군인의 진가는 실로 ‘보민(保民)에 있다. 국민을 보호하는 그것이 군인의 구경사명(究竟使命)이다.

충무공이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라는 무서운 권한을

가진 고위의 사령관이었으면서도 길에서 피난하는 국민들을 만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그들의 손목을 잡고 위로하며 권유하기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과연 성장(聖將)의 모습이 약역(若如)하다. 국민을 이같이 사랑하는 이라야 진실로 군인이요, 또 진실로 애국자다.

내 동포, 내 국민들을 떠나서 나 혼자 어느 곳 누구와 더불어 같이 산다 할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피와 말과 습속을 같이한 인연의 동포들이 어떻게나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러한 동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 주는가. 또 우리들의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인가.

어디가 싸울 사람이 없어서 우리끼리 싸워야 하나. 시기하고, 물고, 뜯고, 헐고, 뺏고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결코 감상적인 말로써 애국심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동포비협화(同胞非協和)의 통탄할 지난날의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혀를 깨물고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융흥(隆興)한 역사도 가졌고 패망의 역사도 가졌다. 언제 어찌서 융흥했으며 언제 어찌다가 패망했던가. 아니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든지 꼭 같은 사실을 보는 것이 어니와 제 국민들끼리 사랑하고 돕고 합하면 흥하고 제 국민들끼리 파쟁(派爭)과 불화로써 일을 삼으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함께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애국! 다른 것이 애국이 아니라 제 국민, 제 동포를 사랑하는 그것이 애국인 것이다.

다시 또 국권을 사랑한다는 일점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 나라란 국토와 국민이 있다고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 국권, 곧 국가의 주권이란 것이 그 국토와 국민의 터전을 이루어 주고 있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구태여 멀리 올라가 찾지 말고 일제침략 40년간의 사실을 회고해 보자. 분명히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국토도 있었고 또 우리 동포들도 수천만이 있었건마는 국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토는 국민도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도 명확히 보지 않았던가.

하룻밤 자고 나면 이씨가 제 농토를 일인(日人)의 손에 뺏겼다 하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박씨가 일인의 손에 묶여 갔다 하고, 다시 하룻밤 자고 나면 몇 개부락(個部落)의 동포들이 집단적으로 남부여대(男婦女戴)하고 이민열차에 실려 두만강을 넘어서 간도땅으로 떠나갔던 것이다.

국권 하나 없으면 국토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고, 국민이란 비에 젖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다. 오직 이 국권만이 국토와 국민을 보장하는 태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국권, 곧 조국의 주권을 생명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충무공의 죽음을 슬퍼하여 제문을 지어 바친 이가 많았지만은 그중에서 숙종대왕의 제문 중의 일구가 가장 구절(區切)한 한마디를 말했는데 그것은 ‘살신순절(殺身殉節), 고유차언(古有此言), 신망국활(身亡國活) 시견사인(始見斯人)’이란 것이다.

‘제 몸을 죽여서까지 절개를 지킨다는 말은 예로부터 있지마는, 제 몸은 죽고 나라는 살아난 일이야말로 이 사람에게서 처음 본다’는 뜻이다.

국활(國活)! 그렇다. 나라가 살았다는 말!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살렸다는 말이다. 그래서 국토도 살고, 국민도 살았다. 충무공의 천추대공(千秋大功)이야말로 ‘나라의 주권’을 살린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그것이 곧 애국이다. 제 생명을 던져서 국권을 살려야 한다. 사랑은 최대의 희생까지 각오하는 것이다. 사랑의 상대자를 위해서 제 목숨을 초개(草芥)같이 던질 수 있어야 진실한 사랑인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상대자란 다른 것이 아니라, 국토다. 국민이다. 국권이다. 그 국토 위해서, 내 국민 위해서, 또 그 국권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애국의 길이다. 애국의 내용이다.

— 1961년 국군의 날을 몇 날 앞두고
서울 동문(東門) 밖 안암서실(安岩書室)에서—

반공으로 정신무장
단결로써 국가재건

재(再) | 표(標)
건(建) | 어(語)

손, 발이 맞아야 한다

<서로 돕는 정신(精神)이란?>

이희승(李熙昇)



이솝의 우화엔가,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있다. 사람의 몸뚱이 중에서 입을 제쳐 놓은 다른 부분들이 회의를 하였다. 눈이나 코나 귀나 손발들이 다 각각 자기들은 말은 직책이 있어서 부지런히 일을 하건만, 오직 입만은 아무 일도 아니하고, 가만히 놀기만 하면서 자기네들이 애써서 벌어서 만들어 놓은 맛 있는 음식만 먹고 있으니. 입은 매우 쾌짌한 놈이란 것이다.

그리하여 몸뚱이의 이 여러 부분들은 입을 모아 가지고, 일체 일을 안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기를 하루 이틀 사흘…… 지내노라니,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코나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으므로 몸은 한량없이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온몸이 풀리고 기운이 떨어져서 손끝 발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고 눈꺼풀조차

달싹할 도리가 없어서 인제 영 죽을 판이 되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연한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일 안 하기로 동맹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최후까지 버티고만 있었다.

아주 기진맥진한 판에 이르러 손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두 발에게 간청하였다.

“여보게 두 발, 내 말을 들어보게. 아무래도 우리가 살려면, 입을 벌여먹어야 하겠네. 이렇게 기운이 탈진하고서야 이 이상 살 도리가 어디 있나?”

입은 내가 할 터이니, 자네가 수고를 하여 일자리로 걸어가 주게.”

하였다. 발도 이 이상 버티다가는 아주 목숨이 잦아지고 말 듯싶어서 손의 간청을 들었다.

“그리 하게. 나의 최후의 기운을 다하여 걸어는 가겠지만 방향을 모르고는 걸음을 걸을 수가 없으니, 눈에 게 보는 수고를 부탁할 수 밖에 없네”

하고 발은 눈에게 간청하였다.

눈도 이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야 난들 최후의 노력을 아끼겠나? 방향은 내가 알아차리고 살피겠네. 그러나 우리의 적(敵)은 보이지 않는 데 많이 숨어 있으니, 어느 수풀 속에서 바스락 소리라도 나거든, 귀가 책임을 지고 알아내야겠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통째 잃어버리기가 십상팔구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하면서 눈은 귀에게 부탁하였다. 그랬더니 귀도 이에 대하여 아무 이의 없이 찬성하였다.

“그것은 염려 말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합심하고 노력하여 어떠한 먹을 것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한 것인지, 썩은 것인지, 독이 있는 것인지 맛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구별하여 내려면, 냄새를 맡아 보아야 할 터이니 코도 이 제의에 찬동하여 일을 하여 주어야겠네.”

하였다. 코도 물론 아무 군말 없이 그 의견에 따랐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다시 용기를 내고 마음을 합하여 부지런히 일을 하여 입을 먹여 살렸다. 그랬더니 저희들도 기운이 차차 회복되고 정신이 나서, 그 후로는 몸뚱이의 각 부분이 아무 불편도 없이 협심동력(協心同力)하여 일을 잘하고, 따라서 몸 전체의 원기가 점점 왕성하여져서 일하기에 조금도 힘이 안 들고, 서로 의도 좋아져서 매우 평화스럽고 재미 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사회에는 —아니 사람뿐 아니라 생물계에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 속의 각 분자는 각각 맡은 소임이 있으며, 그 소임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완수할 수 있고,

각 분자들의 책임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야만, 그 집단은 비로소 번영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각 부분이나 개체도 살 수 있게 된다는 일종의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다.

다윈의 진화론이 주장된 후로부터, 세상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니 약육강식이니 하는 소리가 많이 돌아다녔다. 우수한 놈만이 살 수 있고, 열등한 놈은 죽어 버리고 말게 된다는 말이요, 약한 놈은 강한 놈의 밥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다.

이 사상은 18·9세기에 유럽 천지를 흔들었다. 그리하여 남보다 먼저 물질 문명이 앞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서로 다투어 가며, 세계 각 지방에 널려 있는 약한 나라 민족들을 새로운 무기로 정복하여, 저희들의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원주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 그들을 노예와 같이 —아니 그보다도 우마와 같이 부려 먹고, 그들의 고혈을 빨아 먹었으며, 온갖 학대를 하다가, 저희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들의 목숨을 마치 버려지나 파리 모양으로 학살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이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모르고, 약육강식의 원칙에 들어맞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세계 6대주의 대부분은 저 백인들의 채찍과 질곡 밑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하였던 것이다. 그 한가지 예로, 금년 8월 18일자 타임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서력 기원 1500년에 포르투갈(도포아(葡萄牙))의 선장 페드로 카브랄(Pedro Cabral)이 남아메리카 대륙의 브라질(Brazil)을 발견하였을 적에는 3백만 명의 인디안(아메리카대륙의 토인)이 살고 있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약 7만 8천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3백만의 인구가 7만 8천으로 줄어들었다는 그 숫자 속에는 문명한 종족이 가지고 온 질병으로 인하여, 미개한 종족으로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죽어 버린 수효도 적잖이 포함되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대부분은 가축과 같은 대우를 받다가 학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브라질이라는 한 나라의 지역에서만 생긴 일이니, 과거 수 세기를 내려오며, 전세계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강자의 만행에 희생된 인구의 총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에 비추어보거나, 그 밖의 생물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때에 엄연한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사회나 동식물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이러한 생존경쟁이 있는 반면에 상부상조라는 큰 원칙이 행해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령 동물이 호흡할 적에,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를 흡수하고, 그 대신 탄산가스를 뱉어 내보내면, 식물은 이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동화작용에 의하여 다시 산소를 뿜어내게 된다. 이와 같이하여, 동물과 식물은 그 생명 유지에 절대로 필요한 물질을 서로 공급하고, 서로 혜택을 받으며 번영하여 나가는 것이다.

또 벌과 나비는 꽃 속에서 저희들의 생명에 절대로 필요한 꿀을 얻어 가고, 그 대신으로 이 꽃의 화분을 날개나 몸뚱이에 묻혔다가, 다른 꽃의 자에(雌蕊)의 주두(柱頭)에 발라 주어서, 그 식물의 생식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피차간의 상부상조하는 사실은 자연계에서 이 밖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농부는 식료품을 공급하고, 공장에서는 식량 혹은 그 이외의 생활필수품을 만들어서 농부나 공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대개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과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중간에서, 수요공급이 원활하도록 편리를 도모하여 주는 직분을 맡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인류사회에 있어서, 상부상조의 가장 현저한 큰 사실이지만, 이 밖에도 유형 무형한 여러 가지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 열기설기 맺어져 있어서 자기들도 모르는 중에 남을 도와주고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도저히 혼자서 고립하여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든지 그 생활 내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이에 대하여 고마운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이러한 감사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흔히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극단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기를 좋아하게 되고, 따라서 남의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의 생활이나 생활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도 망치고 말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짧은 시간에 곧 나타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좀 길게 두고 보면, 이 원리에 틀림없이 들어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다가는 그 결과가 의외에 빨리 오는 일도 있다. 그 좋은 예로는 구정권 시대의 거물급들이 오늘날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는 일가족이 전멸한 예도 있지 않은가.

본래 잘 산다던지, 영화를 누린다던지 또는 부자가 되었다던지 하는 것은, 자기 단독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요, 반드시 다른 여러 사람의 힘을 얻어서 되는 것이다. 남의 재산이나 노력을 착취했던지, 착취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을 괴롭히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수고롭게 한 나머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착취나 혜택에 대하여는, 어느 때에 가서 무슨 형식으로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이나 죽음으로서 대가를 치르는 일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는 반드시 쇠가 따르게 되고, 흥에는 반드시 망이 꼬리를 잇게 된다. 그러므로 몇천 년 혹은 몇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에서 나온

물성즉필쇠(物盛則必衰) (무엇이든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된다)

흥진미래(興盡靡來) (일어난 끝에는 쓰러지는 일이 온다)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생이 끝나면 재미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라는 금언은 조금도 변동 없는 천고의 진리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갑자기 성하게 되면, 쇠하는 것도 급속하게 오고, 오랫동안 두고 차차 일어난 집안은 쇠퇴하여 가는 템포도 그만큼 느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크게 번영하면 영광도 크게 되며, 엄청난 욕심에는, 패망도 지독한 것이 따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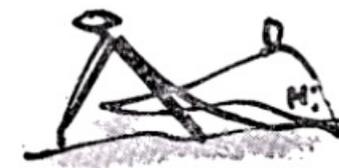
사람은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그만큼 남을 도와줄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기주의를 전연 떨어버릴 수 없는 반면에, 이타주의도 어느 정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약육강식이 이 우주 안에서 전개되는 일면의 사실이라면, 그만 못지않게 상부상조도 시시각각으로 씌어 행하여지는 사실인 것을 주의하여 본다면, 손이나 발이 입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여, 전연 일을 쉬어 버리는 어리석음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필자(筆者)·서울대 문리대(文理大) 학장〉

협조정신(協助精神)과 사회생활(社會生活)

윤영춘(尹永春)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살 수 없으며 서로 돕고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마련되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몸의 구조처럼 눈은 보고 입은 먹고 말하며 귀는 소리를 듣고 손은 동작을 하고 발은 걷고 하여 하나의 개체를 통한 일을 이룩하듯이 공동사회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조차 서로 돕는 협조정신이 없이는

원만한 생활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 바깥일을 보면 아내는 집안일을 보고 자녀는 부모를 도와 일 보는 데서 가사가 잘되어 가는데, 특히 가족주의의 사상이 농후한 동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 옛날에는 사민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사농공상을 말함이다.

사는 문무합일로 술덕겸수(術德兼修)의 사회의 중견분자를 말함인데 문은 경륜할 줄 알고 무는 전투할 줄 알며 이 문무가 하나로 이루어 민족문화를 이어갈 때 국가는 안보되어 부강할 수 있다. 협조를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 신은 전쟁을 준다고 한다.

칼과 보습(Swords and Ploughshares)이라는 책을 쓴 드링크워터가 쓴 일이 있는데 칼과 보습은 상극이 아니라 호조(互助)의 내역(內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칼이 싸움을 잘해도 농부에 필요한 보습이 없으면 농작물이 되어 나올 수 없는 일이고, 농량이 없으면 전쟁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전쟁은 벼의 싸움이라는 말이 근대에 와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문사를 무사보다 더 소중히 한 이유는 평온한 날이 전쟁의 날보다 더 많은 데서 유래한 듯하다. 그래서 문사의 이상은 ‘궁즉독선기신(窮則獨善其身), 달즉겸선천하(達則兼善天下)’라고 해 왔는데 그들의 태도는 유소위(有所爲)와 유소불위(有所不爲)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유소위는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인데 성패득실에 구애될 것이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이다. 유소불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와 녹을 소개시하고 공명을 진토처럼 여기며 부귀에 동심하지 말아야 하고 빈천에 상심치 않는 것이 무사의 기백인 동시에 이런 기풍이 사회에 잠겨 들면 그 사회의 기풍은 정화되는 것이다. ‘도둑놈의 발은 짧다’는 말이 있는데 도적의 소행이 얼마 안 가서 탄로됨으로 도둑질하는 소행을 사회는 오래 묵인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양에 있어서 존사중도(尊師重道)의 정신은 서양이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세해가 되면 중국에서는 붉은 종이에 ‘천지군친사(天地君親師)’라는 다섯 글자를 써서 대문이나 벽에 붙인다.

천지는 자연을 말함이고 군은 국가원수를 말함이며 친은 부모를 말함이고, 사는 선생을 말함인데 자연은 우리에게 생활자원을 공급해 주고, 원수는 정사를 관할하며, 부모는 우리를 양육하고 선생은 우리를 교도하므로 서로 돕는 협조생활에서 원만한 생활을 이룩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사농공상이 피차 돕지 않는 것이 없다. 복지사회란 다름 아니라 대의에 입각해서 무사와 인애와 이타적인 조화된 사회를 말함인데 서로 이렇게 도와서 충돌되는 일이 없으니가 좋은 사회가 이룩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Automation을 자동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하나의 물건이 완성되어 나오기까지에 분업이면서도 합작인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오토메이션의 공작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그 자체가 일하는 것을 사람이 곁에서 감독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전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었다.

때로는 농사를 하고 운반업을 하고 공업을 하고 장사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근래 공업이 발달하면 서부터는 전문 부분으로 나가서 한 가지 부분의 일만을 해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가지 부분의 일이 먼저 진행되고 다른 부분의 일이 늦게 진행된다고 해서 전체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부분의 일만이 충실히 되어 나가면 그만이다. 이것이 근대공업의 특색이다. 이런 공업의 발달은 협조정신에서 유래한 것이다.

「인도양 상의 그리스도」라는 명저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스탠리 존슨 박사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와서 강연을 한 일이 있는데 한국 사람에게 협조정신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한 일을 지금도 나는 기억한다.

두 사람의 팔병신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을 때 팔을 굽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A는 젓가락에 음식을 집어서 B 입에 넣어주고 B 역시 젓가락에 음식을 집어서 A 입에 넣어 주었다. 이리하여 둘은 음식을 서로 잘 먹을 수 있었다는 협조의 표본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다.

인간은 문명의 혜택을 입을 때 전시대의 인간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문명의 바탕을 이루어준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자주 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마시던 탁한 공기가 거르고 걸러서 새로운 공기로 오늘 우리의 입에 들어가듯 이 전대의 문화나 문명이 여러 세대를 흘러 내려오는 동안, 시원치 않은 것은 집어치우고 새로운 것을 가미시켜 오늘의 문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자기가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넘겨주도록 노력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너도 형제로고 우리도 형제로다

형우제공(兄友弟恭)은 부러울 일이 없거니와

너희는 여천지(與天地) 무궁하니 그를 부러워 하노라

이 시조는 병자년의 국치를 당하고 또 심양과 북경에 잡혀가 갖은 고생을 겪은 효종대왕의 작품인데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을 그다지 부러워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천지와 한가지로 무궁한 행복을 누리는데 부러워하노라 함은 비참한 현상을 토로한 심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민족처럼 슬픈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기주의에 눈을 부릅뜨고, 개가 얼마만큼 얻었고 얼마만큼 줄 것인가를 일일이 재고 있는 사람처럼 딱한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다.

채무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적게 받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많이 주는 생활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직과 근로정신에서 남을 도우려는 행동에 입각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협조란 비현실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남과 같이 일하고 그와 같이 침식을 하며 같이 휴식을 하고 그의 진정한 마음의 벗이 되어질 때 상호부조의 원칙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크로프트킹」의 상호부조론은 경제적인 생활로 상호부조를 주장한 것인데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경제조건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정신문제가 더 크지 않은가 한다.

남을 부조한다는 것이 의식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남을 협조한다는 일이 어떤 우월감이냐 열등감에서가 아니라 서로 존경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화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국가적일 때는 반자유민이거나 부자유민의 계급적 형식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치사회는 강력한 통제와 협동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법적 질서에서 일반 국민의 협력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예를 보더라도 외세의 의존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협조정신을 발양한 때가 많았으니 화랑도의 국가적 영향은 컸다고 볼 수 없으나 그래도 공동체의 생활을 영위하는데서 협조정신을 고취하려고 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말하자면 협동정신에서 씨족에서 부족사회에서 부족사회에서 부족연맹으로 또 거기에서 국가사회 내지 민족사회로 지향하여 정신적인 통일세계로 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양반계급이 엄연히 지속되어 와서 민간 협동운동은 국가성을 띠지 못한 채 혈연관계에서 그치고만 감을 주고 있다.

민간협동 단체로는 근세에 와서 발달된 계와 인보운동(隣保運動)은 협동정신을 지향한 이념에 있어서 가장 특색을 가진 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계는 연대적으로 보아 고려 말기에 와서 이루어져서 늦은 감이 있으나 이 역시 국책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에 협력하겠다는 공동정신에서 이루어진 제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동방 군자의 나라라고 공자시대부터 불러 왔다. 그 이유는 천성이 유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협동정신에서 유래한 탓이다.

고려가 몽고의 제압 하에서 국도까지 강화도에 천도했지만 몽고와 싸움하는 가운데 몽장 혼도(忻都)가 개성에 와서 고려의 장군 김방경(金方慶)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당하에 있는 새 새끼를 잡아 방경에게 보이며 어떠냐고 묻기에 방경이 말하기를 곡식을 쪼아 먹을 때는 농부들이 싫어하나 이제 이것을 잡아 죽이니 농부들은 슬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혼도가 말하기를 “내가 고려사람을 보니 글도 읽을 줄 알고 불교도 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 사람과 같이 우리 몽고 사람이 살육을 업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살육의 습성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니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를 순종할 따름인데 하늘은 이것을 죄로 여기기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대를 이 몽고인에게 노예 노릇하게 된 소이라”고 억지 탈을 부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칼 샌드백이 에이브러햄 링컨 전기를 써서 이름을 날렸지만 그보다도 훨씬 앞서서 영국의 시인이요, 희작가인 John Drinkwater가 링컨 각본을 써서 런던과 미국에서 연출하여 많은 인기를 모은 일이 있는데 링컨은 남부 캐롤라이나주 만이 독립하는 것을 반대했다. 링컨은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을 것 이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요, 노예 전부를 해방하고 통일한다면 그것도 해야 할 것이며, 노예의 일부분을 해방하고 일부분은 그냥 노예로 남겨 두고 통일한다면 그것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링컨은 어디까지나 남북미주의 통일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내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흑노해방선언을 하고 말았다. 윌슨 대통령은 전후에 모든 조건을 내건 데서 실패했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의 이상과 조건을 먼저 내세운 데서 승리한 것이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북군의 그랜트 장군과 남군의 리 장군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담화가 벌어졌다. (p 17로 계속)



좌담회(座談會)

일과후(日課後)의 생활(生活)을 말한다.

참석자(參席者)

하사 이주덕(李柱德) (공군병원)
 병장 한상용(韓相龍) (31전대)
 병장 이월영(李月榮) (본부사령실)
 장병 백환기(白煥基) (공군대학)
 병장 손세헌(孫世憲) (통신운동대대)
 사회 민재익(閔載翼) 대위
 일사 4294년 8월 24일
 장소정훈감실

예를 들면 TIME이니 Newsweek니 사상계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사회 — 그럼 구체적으로 교양을 위해서 어떤 책을 읽습니까?

이하사 — 프루타—크 영웅전이나 희랍신화집이 인기지요.

손병장 — 세계문학전집이나 현대 사상강좌 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조리 독파하고 있는 전우들도 있습니다.

백병장 — 파스칼의 「팡세」나 루소의 「참회록」 또는 최요안씨(崔要安氏)의 「마음의 샘터」를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이병장 — 아무래도 고전을 봐야겠어요.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거든요. 고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현대물도 읽어 봐야 그 진미를 올바르게 알 수 없거든요.

사회 — 그러면 전문적인 것은 어떤 것을 그야 물론 취미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병장 — 저는 특기가 통신정비고, 또 라디오에 특히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 「텔레비전」이나 「아마추어 라디오」 「라디오 음향」 같은 외서를 탐독합니다.

백병장 — 저는 원래 범람이 전공이기 때문에 기본서적 외에 요즘 새로 나온 개정법률에 관한 것을 수집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회 — 손병장은?

손병장 — 요새 저는 제대를 앞두고 집에서 가지고 온 영어구문론과 국문해석법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본 것이건만 아직 잘 모를데가 많아요.(웃음)

사회 —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통 얼마나 읽을 수 있어요?

이병장 — 대중없어요. 아무래도 정확하게 계획대로 공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 내무반에 여러 가지 일이 많지요?

백병장 — 그야 물론 일이 적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럴수록 그 사이에서 나는 틈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하사 — 그렇지요. 우리가 제한된 환경에서 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무생활이라는 것도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에요. 공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로만 생각하면 귀찮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성의있게 하면 거기서 얻는 것도 많은 것이거든요. 예컨대 우리 한국사람에게

사회 — 5·16혁명으로 우리 군인은 혁명과업을 수행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이나 솔선해서 수범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 생활의 혁신 내지 혁명이라는 과제는 바로 우리의 일거일동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때인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영내자 여러분들의 솔직한 일과후의 생활을 더듬어 봄으로써 생활혁명에 헌신하고 있는 전우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일과후의 생활은 국기하기식과 동시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기를 알리는 나팔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선 백 병장부터.....

▼독서(讀書)로서 제각기(各己) 실력(實力) 배양(培養)



백병장 — 네,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오늘 하루도 완수했구나 하는 자부심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날에 일어난 일 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순간적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병장 — 참으로 하루의 생활 중 이때만큼 엄숙하게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정돈할 때는 없습니다. 나팔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어딘가 마음 속 깊숙이 간직된 조국에의 충성심 같은 것이 솟아 나오곤 합니다.

사회 — 그러면 일과 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손병장 — 우선 식사(저녁)를 하고(소성(笑聲)) 내무반으로 돌아가 일단 신변정리 청소 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별일이 없는 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또 조용히 산책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백병장 — 편지도 쓰고, 전우들과 잡담도 하고요.....

이병장 — 물론 취미대로지만 대개 영내 생활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독서, 둘째 운동, 셋째 오락으로요. 외출이나 휴가를 빼놓고 말입니다.

사회 — 그러면 우선 독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주시지요.

이하사 — 5·16전에도 공부하는 전우들이 많았지만 혁명이후에는 독서열이 부쩍 늘었습니다. 전에는 실력이라는 것이 소위 배경이니 금력(金力)이니 하는 것에 좌우되었지만 지금이야 어디 어렵이나 있습니까?

손병장 —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대가 가까운 친구일수록 공부에 더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일동 웃음)

사회 — 같은 독서라도 자기의 내면적 정신세계의 충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겠고 또 구체적으로 말해서 제대 후에 당장 취직 같은 것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을 위해서 하는 독서가 있을 텐데요.

손병장 — 대개가 문학이나 사상계통의 서적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의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독서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장 — 전문지보다 종합적 쪽을 주간 월간을 막론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홍익인간 (弘益人間)



김정학(金廷鶴)

1.

홍익인간이란 말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단군설화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이 아래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불교에서 온 말이기보다는, 그러한 사상은 우리 민족이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 후 홍익인간을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으로 삼았던 것이다.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설화의 요점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인(桓因)(제석(帝釋)을 이르는)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어 인세(人世)를 탐내는지라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단체생활에 관한 훈련이라던가, 협동정신의 중요성, 또 깨끗한 질서의 필요성 등……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잡담하고 놀 시간은 있어도 책을 볼 시간은 없다는 말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하사 — 제가 통신편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서는 하루에 두 시간씩 지정된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는 일등병이나 이등병이나 다 공부하게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사회 —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 그런데 독서하는 장소는 대강……

이병장 — 도서관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면 몰라도 대부분 나무반 또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게 됩니다.

이병장 — 부대 내의 한적한 곳이면 어디나 좋지요. 부대 뒷산도 좋고요.

▼ 뺨내기 운동경기로 심신단련



사회 — 그럼 다음에는 운동에 관해서 좀 말씀을 주시지요.

이병장 — 대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배구 축구입니다. 이런 것은 기구가 간단하고 또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백병장 — 그 밖에 탁구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야구도 하고……

한병장 — 특히 다른 나무반이나 대대하고 시합이라도 할 때면 나무반원이 모두 나와 응원을 하고 야단이 나지요.

이병장 — 일과 후에 나오는 「뺨내기」 같은 것은 가장 보편적인 시합일 겁니다.

백병장 — 내기를 하는 시합이 재미는 있지만 차츰 잘못하면 감정에 흐르기 쉬운 단점도 있습니다. 운동 정신을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사회 — 결국 어느 한 편이 반드시 지게 되니까 그렇겠군요. (웃음) 이런 점은 서로가 주의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백병장 — 그런 것들은 단체적인 것이지만 철봉, 평행봉 또는 야랑 같은 것으로 매일 개인적으로 몸을 단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하사 — 요즘 사회의 스포츠 열(열)도 상당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일부 직업 선수에게만 스포츠가 국한되어 있는 감이 있어요. 가족끼리 운동하는 경우가 어디 그리 쉽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군인에게 있어서의 스포츠는 그것이 단체적인 것이건 개인적인 것이건 주목해야 될 것이고 또 서로 장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혼수하다가 뺨도 맞는 오락생활(娛樂生活)



사회 — 여러면으로 운동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계시군요. 그러면 다음 오락부면을 좀……

이병장 —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장기지요.(웃음) 나무반마다 장기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 제 대군인한테는 장기를 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일동웃음).

사회 — 이병장은 장기를 잘 두게 생겼는데.(웃음)

이병장 — 네 좋아합니다.(웃음)

이하사 — 혼수하다가 뺨이라도 안 맞았소.

이병장 — 왜 안맞아요 하하……

이하사 — 저는 군대에 들어오고 나서 바둑을 배웠는데요. 거 아주 기가 막혀요.(웃음) 둘수록 묘미가 나거든요.(일동폭소) 처음엔 고단자(高段者)한테 아홉점 열점을 놓고도 지지만 실력을 배양해서 한점 한점 떼어 나갈 때의 기분이란 참 두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겁니다.(웃음)

한병장 — 라디오 연속방송곡을 듣는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쇼, 퀴즈·올림픽 같은 것 모두 인기입니다.

사회 — 퀴즈 올림픽이나 아마추어 쇼는 나무반 단위로 부대 내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병장 — 주변사관입 장악 하에 거창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로 나무반장임(任)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는 수도 있습니다.

손병장 — 저는 좀 색다른 취미를 가졌어요. 뭐냐하면 가끔 혼자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웃음) 그런데 이걸

을 알고 아래로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홍익할만하거늘 천부인 세 개를 주어 가 다스리게하니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턱(곧 태백이니 지금 묘향산이다)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니 이곳을 신시(神市)라 이르고 그를 환웅천왕이라 하였다.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곡(穀)·명(命)·병(刑)·선악을 맡아 보아 온갖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모두 맡아 다스리었다. 이때 한 곰과 한 범이 같은 굴에서 살며 항상 신 환웅에게 빌어 가로대 원컨대 사람이 되어지이다 하니 신이 신령스러운 쑥 한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먹고 100일 동안만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사람의 형상이 되리라 하였다. 곰과 범이 이것을 얻어먹고 기(氣)한 지 3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하였으나 범은 기를 잘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가 저로 더불어 혼인하는 이가 없으므로 항상 단수 아래에서 아이 배기를 빌었더니 환웅이 거짓 화하여 이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호를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당고(唐高)의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에 (당고의 즉위 원년이 무진이니 50년은 정사요 경인이 아닐 것이니 실상이 아닌 듯하다.) 평양성에 도읍하고 처음으로 조선이라 하였다.

위와 같이 하늘님(천제)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하에 내려갈 뜻을 늘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 뜻을 알고, 아래로 지상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홍익할만하므로' (가이홍익인간(可以弘益人間))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어 가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홍익인간이란 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교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이 단군설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북방 아세아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설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역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 후대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던 도교 불교 등의 술어를 차용한 것이 있다. 예컨대 하늘님(천제)을 환인이라고 한 것도 환인이라 숙어가 불교에서 천제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불교에서 비슷한 개념에 대한 술어를 차용하였을 뿐, 환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고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던 하늘님을 뜻하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하늘님 환인의 손자인 단군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는 설화 내용은 알타이민족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태양신화, 천손 사상이나 접에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인이란 말은 불교에서 온 숙어이지만, 그 설화 내용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이다.

홍익인간이란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널리 인간을 이익되게 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민족이 아득한 옛적부터 전승하여 내려온 정신이 이러한 시조설화에 표현된 것이다. 세계의 여러 민족의 신화를 보면 살벌하고 잔인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한 것에 비하여 우리의 단군설화가 얼마나 평화롭고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늘님이

시끄럽다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산에 올라가 불니다.(웃음)

이하사 — 한국판 「지상에서 영원으로」로군요.(일동웃음)

▼ 애인(愛人)도 만나는 외출시간(外出時間)…… 그러나 너무 짧아—

사회 — 외출을 나가면 대개 무엇을 하나요?



손병장 — 극장도 가고……운동경기 구경 같은 것도 가고……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애인도 만나고……(웃음)

이하사 — 거 이상할 것 없지요. (웃음) 도리어 안 만나는 것이 이상하지. (일동폭소)

백병장 — 그것도 5·16 이후에는 상당히 진지해진 감이 있어요. 전처럼 공연히 그저 즐기 위한 아베크같은 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한병장 — 외출 말을 하니까 자꾸 이상해지는데요(웃음). 저의 집이인천입니다마는 제가 대전에서 복무할 때에는 대전 부근에 사는 전우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초대를 받아 가서 재미있게 지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그런 경우가 적어요. 서울 인심

이 박해서 그런지…… 모두가 개인플레이 입니다.(웃음)

이병장 — 정말 그래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아마 세계적 통례가 아닐까요?(웃음) 본래 큰 도시일수록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모두 자기중심으로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서울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 좀 틈을 내서 우리 같은 촌사람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거예요.(웃음)

사회 — 우선 서울에 집을 가지신 이하사부터……(일동웃음)

이하사 — 좋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모두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웃음)

손병장 — 저는 외출시간의 대부분을 등산 같은 것에 바칩니다. 정상에 올라서서 발밑에 전개되는 산천을 굽어보는 순간이라든가 강변을 거닐며 모래 위에 아로 새겨진 자기 발자국을 돌아다 볼 때 저는 무언가 흐뭇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한병장 — 그런데 외출시간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귀영(歸營)시간이 저녁 8시인데 8시까지 오려면 적어도 6시 반이나 7시에는 떠나야 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웃음). 혹 친척집에라도 갔다가 빨리 오긴 해야겠는데 저녁을 빨리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먹고 올 수도 없고……



손병장 — 사실 7시에서 8시는 가장 아기자기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귀영해야하니 이거 딱합니다.

이하사 — 그러니까 군인이지(일동폭소) 저는 그래서 5시만 좀 넘으면 쑥 인상을 씁니다. 어—이거 같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어찌구 하면서……(일동폭소)

아들을 지상에 내려보내어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데, 홍익인간하게 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하고 높은 정신이냐!

민족에 따라서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것을 민족적 기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타민족을 정복한 일이 없으며, 평화롭고 인도주의적인 사상 감정을 전하여 오고 있다. 그러한 사상 감정이 우리의 민족적 시조설화에 홍익인간이란 이념으로 표현된 것이라 볼 것이다.

2.

개천절이란 말할 것도 없이 단군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위에 든 단군설화에 있어서는 단군이 당고의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당고는 당요를 말하는 것으로 고려 제3대 정종의 휘가 요임으로 그것을 피하여 당고라고 한 것이다. 즉 중국의 요 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에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 연대에 대하여는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이 요의 즉위 원년이 무진이란 설에 의하여 그 50은 정사요 경인이 아니라고 정정한 바 있지만, 하여튼 요의 즉위 연대라는 것도 전설적인 것이므로 역사적 사실로 거론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단군기원은 당요의 즉위년과 같이 무진년을 초점으로 계산한 것이다.

단군설화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국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개천절을 10월 3일로 정한 것은 만근(晩近)의 일이다. 10월은 우리나라에서 옛적부터 상달이라고 하여 숭상하여 온 습속에 의하여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제정한 것이다. 이날은 새 곡식과 새 과실이 무르익어 고대로부터 신에게 제사드리는 달이다. 이날을 개천절로 하여 민족적 시조 단군에게 제사드리고, 온 국민이 건국을 축제하는 것이다.

단군이 건국하였다는 조선은 물론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다. 고조선은 평안도·황해도)를 강역으로 하였던 부족국가였다. 만약 단군기원과 같이 4천여 년 전의 일이라면 그때는 국가형성 이전으로서 조선이란 한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며, 그 강역도 만주쪽으로 좀 더 북쪽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하여튼 단군은 고조선 부족의 시조였던 것이며, 단군설화는 조선부족의 시조설화였던 것이다.

고대에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부족이 적은 사회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부족이 차츰 통합되어 부족국가를 형성하여 갔다. 고조선은 이러한 여러 부족국가 중의 하나이다. 당시는 아직 고조선이 한반도를 포괄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당시까지 아직 우리는 민족적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러 부족국가는 더욱 통합을 거듭하여 삼국을 형성하고, 삼국은 신라에 의하여 통일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는 민족적 통일국가를 이루하게 되었던 것이다.

▲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혁명(革命) 후의 분위기(霧圍氣)

사회— 5·16 이후에는 그 전보다 외출 중에 마음 쓰이는데가 많지요?

이병장— 그전에도 물론 조심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즘은 정말 언어, 동작 하나하나에도 상당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백병장— 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고맙다는 인식을 가지게끔 노력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주저하던 것도 지금은 척척 잘 됩니다. 가령 버스에서 자리를 노약자에게 양보한다든가 하는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손병장— 제가 군인이면서 군인을 칭찬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내 주는 사람은 아직도 대개가 군인이예요. 그래 우리 손으로 시작한 혁명과업을 완수하려면 우리가 먼저 사회의 예의도덕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하사— 정말 리젠트로 머리를 뺨질뻔할까 넘긴 젊은이들이 어린애를 업은 아주머니 앞에 툭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그저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웃음) 충동이 일어나요.

한병장— 제가 미국에서 본 것인데요. 웬 노인이 앞에 앉아 있는 아이 보고 「너는 반할(半割) 밖에 안 냈으니가 일어나라, 나는 다 냈으니가 앉아야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도 자랑할 게 많아요. 더욱 요새는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혀가고 있으니까요.

▲ 잊을 수 없는 추억(追憶)들

사회— 그러면 지금까지의 군대생활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물론 일과 후에 일어난 일로……

이병장— 저는 항병교(航兵校)에서 훈련을 받다가 4주 만에 처음으로 대전 시내에 군복을 입고 하나의 공군이 되어 나왔을 때의 자랑스러웠던 마음 —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잊혀지지 않습니다.

손병장— 첫 휴가를 나와 백을 들고 정거장에 나오니까 아 글썽 꼬마들이 공군 아저씨! 공군 아저씨! 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누구를 부르나 했어요(웃음).

이하사— 저의 집이 강원도 시골인데요. 처음 휴가를 가니까, 동네 영감님들이 모두 와 가지고 비행기를 타봤느냐고 하지 않겠어요(일동웃음) 이걸 타봤다고도 할 수 없고, 안 타봤다고 할 수도 없고 — 그래 아 그거 타보았다고 했지요. 하 하.

손병장— 저는 지난번 휴가 때에 귀영하던 일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낙동강에 홍수가 나고, 교통이 차단이 되어서 귀영할 수가 없어가지요. 그래 하루 늦겠다고 부대에 전보를 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안가고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 말리는 걸 뿌리치고, 비가 짹짹 내리는 길을 떠났어요. 옷과 신발을 다 트렁크에 넣어 짊어지고 뺨스바람으로 산을 두 개나 넘어 대구까지 걸어 왔어요. 대구에 오니까 11시가 넘었는데 마침 12시 급행차가 있어서 타고 왔어요. 그때 영문을 들어설 때의 기쁨, 무엇인가

그러나 통일신라도 아직 대동강과 원산만을 연결하는 선 이북의 땅은 병합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고려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았던 것이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북계의 개척을 한 중요한 국책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고려는 국초부터 민족적 통일의 염원이 컸었고, 따라서 민족 의식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삼국유사가 편찬된 것은 고려 중기인데, 유사에 단군설화가 실린 것도 분명히 민족 의식의 발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군설화가 본래는 고조선의 부족적 시조 설화였었는데, 고려 시대에는 단군이 전민족적 시조로 숭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 민족이 공동된 시조를 숭앙함으로써 민족적 단결을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조에 와서는 국호가 조선이라고 칭하게 됴므로서 단군이 개국하였다는 조선이란 국명과 동일시됨으로써 단군이 전민족적 시조로 간주 된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조 초기의 문헌 예컨대 세종실록 지리지며, 권근 응제시주(應制詩註) 등에 단군설화가 실리고, 이후의 사적에도 실리어 단군이 민족적 시조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한 말과 일제하에 있어서는 민족 의식을 더욱 양양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그리하여 단군에 대한 숭앙의 열은 더욱 높아지고, 이것이 혹은 대중교 등과 같은 종교로 발전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개천절이 10월 3일로 제정된 것도 대개 이 무렵의 일이다.

개천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족적 제전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따라서 민족적 감정을 양양하는 민족적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단군설화 자체에는 설화적 색채가 많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민족이던지 그들의 시조 설화, 또는 건국설화에는 이러한 전설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의 과학적 인식은 따로 할 것이고, 다만 그러한 설화에 포함된 고대인의 사상화 감정은 그 민족의 고유한 것이므로 그것을 전승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고려대학교 교수)

자랑스러운 감정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군인정신이라는 것일 거예요.

사회— 그것참 훌륭한 군인정신의 발로입니다.

한병장— 저는 90년도 봄엔가 항공기의 동체착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의 초조감이란 정말 조종사 상이었어요. 연료소비를 위해 약 30분이나 활주로 상공을 선회할 때의 초조감, 그리고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사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을 한 대 치지 않았어요(웃음)

백병장— 저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그때 정말 공군에 들어온 보람을 느꼈어요.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나서 과연 금수강산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타 본 사람이 아니면 금수강산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했지요.

▲ 다시 이등병(二等兵)이 된다면

사회— 그러면 끝으로 이제 내가 다시 이등병이 된다면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 주실까요. 물론 다시 이등병이 될 리는 없겠지만, 후배들에게 하나의 생활지침으로——

한병장— 우선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도 완수하지 못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런 정신은 버려야 할 겁니다. 설사 윗사람으로부터 무당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후라면 거리낄 것이 없을 줄도 알아요.

손병장— 지난번에 임동선(林東善) 군목(群牧)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이를 접었다가 편 후에 다시 접으면 틀림없이 먼저 접었던대로 접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람의 습관도 그러리라 믿어요. 그래 저는 무엇보다 시간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를 것을 전하고 싶어요. 단 한 시간이라도 자기의 교양이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언제나 읽는 그런 습관 말이지요.

이병장— 저도 역시 책임완수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책임완수는 근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내무반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부지런한 이등병이 되겠습니다.

백병장— 이등병이라고 하면 최소한 3년이라고 하는 제법 긴 우리의 복무기간을 시작하는 때인데요.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이 기간을 그저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불가피한 기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마 군인들에게 권태기가 있다면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일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을 국가에 봉사하는 고귀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기 수양도 되고요.

손병장— 칼 라일의 말 가운데 이런 게 있다더군요. 세계에서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이 첫째 모욕을 참는 것, 둘째 비밀을 지키는 것, 셋째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이었지만 특히 이등병은 항상 기억하고 행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이걸 이등병 때 못하면 못 영영하고 마는 거니까요.

이하사— 이걸 처음 제가 입대하고 나서 느낀 것인데마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급자가 무엇을 시키면 기분이 이상해지기 쉬워요. 이등병이라면 아직 군대에서 말하는 계급의 존엄성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때니까요. 어떨 땐 이런 자기 동생을 위한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요. 또 연장자가 시키면 이걸 형님의 분부거니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는 건 무엇이든 무조건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둘다라도 두들겨보면서 건너라 하지 않았어요.

사회— 요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스위스 기행

김재원(金載元)

스위스 기행(紀行)

제네바시에 도착하기는 밤 열 시였다. 호텔·데·제네바라는 곳에 아침 떠날 때에 전보를 쳐놓았음으로 대개는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도 7월이란 한창 유람객이 많을 때라 정거장에서 일단 전화를 걸고 가기로 하였다. 그랬더니 묘한 일이 생겨서 우리가 예약하였던 여관방에는 나오는 같은 성인 김이라는 모 한국청년이 내 대신으로 들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 청년은 한국 유네스코 관계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 한다. 아마 내가 예약한 호텔에 우연히 그 한국에서 온 청년이 왔다가 다른 빈방이 없으니 내가 방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다.

밤은 깊고 가서 따졌대야 도리 없는 일, 호텔에서는 돈 받고 손님을 치면 매일반인데 내가 내 방을 찾을 도리도 없는 일이고 - 결국은 호텔 아닌 개인 집에 침상 두 개가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는 밤은 열한 시가 지났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들어왔을 때는 열두 시가 훨씬 지났었다. 그 자칭 유네스코의 미스터 김 때문에 이날 밤 딱딱한 침상에서 C씨와 나는 겨우 세 시간쯤이나 잠을 잤을까.

이튿날 아침 유람 버스를 타려고 나가 보았더니 바로 몽 브랑으로 가는 버스가 떠나려고 하고 있었다. 3, 40명 가량의 손님이 있는데 그중에는 분명히 한국 청년같이 생긴 사람이 두 명은 있는 듯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분명히 나의 미스터 김인데 우리의 예약이 몽 브랑이 아님으로 미스터 김에게 말도 걸지 못하고 말았다.

제네바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 도시미의 대부분은 제네바호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유람 버스 대신에 유람 보트를 타고 호수를 두 시간 동안 일주하였다. 스위스에는 호수가 많다. 이 호수의 물은 주위의 산에서 내려옴으로 그 물은 맑고 속깊이까지 들여다 보이고 주위의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이 그 호수속에 잠겨서 보인다. 이 이상적인 조건이 구비한 데에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고 보기 좋은 교량을 걸치고, 유람객을 위하여 호수가로 산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제네바시는 가히 세계에서도 몇째가는 아름다운 도시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 호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식당의 베란다에서 이날 아침과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나라도 언제 이렇게 잘하고 살 수 있나하고 생각하였다.

오후는 유람 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시내의 여러 군데를 구경하였다. 이 곳은 고적은 거의 없는 곳이나 그래도 본래의 국제연맹의 청사같은 항상 신문에서 보는 건물을 볼 수가 있었다.

스위스에 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산에 올라야 한다. 지도를 펴보니 제네바는 스위스 산중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아름다운 융 프라우에 갈려면 인터락켄으로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그곳은 유람객의



중심지이어서 호텔을 구하기 어려울 듯하여 우리는 스위스의 서울인 베른시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베른에 도착하기는 오후 일곱시 경 호텔 중 크로이즈라는 19세기 식의 호텔에 들었다. 방안에는, 수도시설도 없는 곳으로 하루 2불 가량의 값싼 곳이다.

다음날 우리는 기차로 인터락켄에 가서 그곳에서 등산철도를 탔다. 이 등산철도는 그곳에서 3,400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철도로 물론 전기로가며 차량은 두 대 이상은 달지않고 속도는 그리 빠른 것은 아니다. 몇 개의 터널을 지내서 가며 융 프라우에 올라갈 때까지 적어도 4, 5차례는 정거하며 그때마다 내려다보는 절경을 구경하고 사진찍을 기회를 준다 아래는 풀밭으로 각색꽃이 만발하여 있는데 위에는 백설이 덮여있어 그 눈은 1년 동안 녹아보는 일이 없다. 멀리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 보인다. 나는 그리로 올라오는 사이에 원색사진 20여 장을 찍었다.

제일 꼭대기, 등산철도가 서는 곳은 융 프라우 육호라고 한다. 프라우는 처녀라는 독일말인데 육호는 허리라는 말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산이 융 프라우 즉 처녀산인데 철도는 그까지는 올라 못 가고 허리에 까지 온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모두 내려서 약 두 시간 동안 이 천하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상당히 큰 식당이 있고 또 밤을 지낼 수 있는 호텔시설도 준비되어있는 것으로 들었다. 여러 가지 구경할 것이 많다. 아이스 파스타 즉 어름의 궁전이라는 것은 천년을 묵은 얼음 속을 파고 그 속에 큰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 한군데 가면 그곳에는 북극에 사는 개를 가져다가 썰매를 타게 한다. 좀 떨어진 곳에 내려가니 그곳에는 스키를 빌려주는데 눈이 좋아서 제법 10여 명의 스키어들을 만족시키는데 충분하다.

엘리베이터(승강기)를 타고 우리가 올 수 있는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아까 본 스키어들은 아래로 개미(의蟻)처럼 조그맣게 보인다. 그리고 저쪽 산 위의 좀 평탄한데서 헬리콥터 한 대가 올라서더니 이 산봉우리 저 산봉우리 등을 왔다갔다 하고 또 썰매를 단 한 대의 소형비행기도 뜨고 있다. 물론 유람객들을 태우는 것이다.

일본사람이 많이 와서 일본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중에서 우리의 한국말을 듣고 우리나라 청년 한 명이 반가이 찾아왔다. 독일에서 1년간 공장에서 실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렀다고 하며 군사혁명 후의 고향 소식이 대단히 궁금한 모양으로 우리에게서 소식을 알려고 하나 우리도 아는 바가 적어 미안하였다.

C씨와 나는 이곳에서 몇 가지 값싼 선물을 사고 오후 세 시쯤 그곳을 떠나서 이번은 중간에서 좀 다른 코스를 거쳐서 도중에서 한 시간 동안 쉬고 내려왔다. C씨는 아래에서 일직선으로 서 있는 산은 처음 보았다고 차 안에서 자꾸만 사진을 찍고 있었다. 베른에 도착한 것은 이미 밤 아홉 시 후이므로 정거장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밤은 일찍 자기로 하였다.

생각하면 스위스라는 곳은 천여의 생활 조건은 극히 나쁜 곳이다. 높은 산이 있고 평야는 거의 없다 싶은 곳으로 이곳에서 생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목축같은 것 외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산을 이용하여 많은 외국의 유람객을 끌어 그것으로 1년에도 수억 불에 달하는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스위스의 시계는 세계에 유명한데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공업이라고는 시계같은 수공을 주도하는 공업이래야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옛일로서 지금은 화학 공업 기계공업같은 것이 발전하여 농업을 주로 하던 스위스는 지금은 완전히 공업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차를 타고 내다보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 우리는 어찌하면 우리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의 스위스에서 밤을 지냈다.

다음날 우리는 아침 일찍 떠나는 차를 타고 화란(和蘭)[네덜란드] 헤이그 시로 향하였다. (필자·국립박물관장)



필자

(p 9에서 계속)

그랜트 “내가 당신의 적수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

리 “나는 애써 싸웠으나 패배 했습니다.”

그랜트 “그래서 여기 온 것 아니오”

리 “당신의 무슨 조건이던 달게 받고 행복 합니다.”

그랜트 “이것 간단한 조건이오, 나를 아량있는 사람으로 알 줄 아오.”

리 “당신은 관대합니다. 저더러 무슨 요구서를 제출하라 하십니까?”

그랜트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영광이겠오”

리 “우리 군인들의 군마를 우리가 그냥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소유로 하겠습니까.”

그랜트 “잘 알았오, 당신들 장소에서 필요 하겠으니깐 그냥 가지시오”

리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남북백성을 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칼을 장군에게 감사의 표로 받칩니다.”

그랜트 “도로 집어 넣으시오. 이 칼이 소용될 때가 있을 터이니”

그리고 이 두 장군은 악수하고 서로 갈라졌다. 인간성에 있어서 승패로 사물과 인정을 다룰 것이 아니라 아량과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경희대 교수)



<빛을 남긴 사람들>

홍의장군(紅衣將軍)과 권율장군(權慄將軍)

류광렬(柳光烈)

장군(將軍)을 사랑하는 광재우(郭再祐) 장군의 지략(智略)

광재우는 임진왜란 때에 유명한 의병장이다.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싸워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니까 그때의 왜병(倭兵)들은 하늘이 낸 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이라 하였다.

이 광장군은 언제나 승전을 하였지만 나라에서 임명된 장수는 아니요, 의용군의 장수이다.

광장군의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될 때에 남긴 이야기의 한마디이다.

왜병이 임진년에 침입하여 소서행장(小西行長)이라는 장수가 진주성을 치다가 패퇴한 일이 있으므로 일본군은 이것을 분히 여기어 수십만 대병을 몰아서 공격을 집중하였고 이번에는 전년에 싸우던 소서행장이 아니라 가등청정(加藤清正)이었다.

그때 순변사(巡邊使)이던 이빈(李賓)이 광장군에게 진주성에 들어가서 함께 지키자고 하였다. 「홍한 적병들이 이번에는 기어코 진주에 공격을 집중하여 함락시키려고 하니 고단한 군사로는 지킬수가 없다. 의병(義兵)을 구원병으로 보내서 성세(聲勢)를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장수들은 감히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광재우 장군은 홀로 반대하기를 「권위가 있는 이라야 병사를 쓸 줄 알고 지혜 있는 이라야 적병을 헤아릴 줄 안는데 이제 적병이 성하고 날카로운 품이 천하에 당할 수 없는 형세이다. 외로운 성을 어떻게 지키라. 더구나 우리 적군이 다 성 중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응원하는 군사가 없으면 어찌하랴. 나는 밖에 있어서 응원하겠다」 하였다.

감사(監司=지금의 도지사격이나 권력이 강함) 김득(金功)이 성을 내면서 「장군이 대장의 명령에 탄말을 하니 군률(軍律)을 쓰면 어찌할 터이요」하였다.

이 말에 광장군도 노하면서 「내 한몸이 죽고 사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으나 백번 싸우던 군졸(軍卒)을 어찌 차마 버리겠는가」(일신생사(一身生死)·고부족석(固不足惜)·백전군졸(百戰軍卒)·하인기지(何忍棄之))라였다.

순변사 이빈도 그럴싸하게 여기어 광재우는 밖에 있으면서 의령(宜寧)의 정암진(鼎巖津)을 지키고 있었다.

여러 장령들의 회담은 계사(癸巳)년 6월 15일에 있었는데 진주성을 김천일(金千鎰), 황진(黃進), 이종인(李宗仁) 등이 지키다가 그달 29일에 함락되어 장졸과 함께 진주시민 7만여 명이 죽었다는 비참한 전쟁이다.

이 싸움에 적병의 수는 우리 기록에 30만이라 하였으나 줄잡아서 10만 대병이었다.

그러나 진주성을 지키던 우리 군사의 병력을 보면

김천일 영병(領兵) 3백, 황진 영병 7백, 최경회(崔慶會) 영병 5백, 고종원(高從原) 영병 4백, 장운(張潤) 영병 3백, 이계연(李繼漣) 영병 백여, 이잠(李潛) 영병 3백, 민여운(閔汝雲) 영병 2백 등이니 전군을 도합하여야 2천여 명의 군사인데 오직 충의지심으로 백 배나 강한 군사와 대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싸움에 백전백승하는 광장군이 들을 수 없을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김천일도 이 싸움을 앞두고 비장한 맘으로 광장군과 함께 술을 나누고 피차간의 심정을 이야기 하였다.

난리 후에 진주창의사(晉州倡儀使) 김천일, 경상우병사 최경회(慶尙右兵使 崔慶會),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 등 세 장수의 충의를 사모하여 진주에 삼충사(三忠祠)를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 순절한 세 장수는 형세가 틀리어서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는 줄 알고 진주 남강(南江)가에 있는 축석루(矗石樓)에 올라서 최후로 술잔을 들었다.

축석루상삼장사, 일배소지장강수(矗石樓上三壯士, 一盃笑指長江水)

(축석루 위의 세 장사 한 잔 술을 들고 웃으면서 장강의 물을 가리킨다)

광재우 장군은 난리가 평정한 후에

그 탁월한 전공으로 나라에서 벼슬을 하라 하였으나 군이 사양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고양이의 힘을 기르게 함은 쥐를 잡기 위험인데 쥐 같은 왜병이 쫓겨간 이때에 내가 벼슬의 위를 차지하여 무엇하리오」 하면서 창녕 화왕산(昌寧 火旺山)이나 합천 가야산(陝川 伽耶山)에 가서 유유히 여생을 보내고 부귀에 눈뜨지 아니하다가 여생을 마쳤다.

사병을 사랑하고 싸움의 전도를 헤아리는 지략으로 후세에까지 전하는 명장이다.

권장군의 부하애와 조장군의 숨은 공적

임진왜란 때에 도원수 권율(都元帥 權慄) 장군의 행주(幸州)산성 싸움은 우리편이 크게 이긴 전쟁으로 후세에 전하는 바이다.

권율 장군은 전라도 이치(梨峙)와 경기도 오산(烏山)에서 전승을 하고 고양(高陽) 행주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 이것은 왜병이 침입한 그 이듬해인 계사(癸巳)년 2월의 일이다.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명(明=그때의 중국)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평양에 있던 소서행장을 격파하고 그대로 진군하다가 고양 벽제관(碧蹄館)에서 왜장 소조천용경(小早川隆景)에게 패하여 의기가 소침되었을 때이다.

이때에 권율장군은 수원(水原)으로부터 올라와서 서울을 회복하려고 하던 때이다.

적병은 평양에서 쫓겨온 군사와 서울에 주둔하던 군사가 합세하여 그 형세가 치성하였다.

그 때에 권율장군의 중군(中軍)으로 있던 조경(趙敬)이 행주산성에 성책(城柵)을 쌓을 것을 주장하니 권장군은 「미구에 명나라 군사와 합세할는지 모르니 성책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조경은 「그러나 우리가 고단한 군사로 대적(大賊)과 가까이 있으니 성책을 쌓는 것이 좋겠다」하여 쌓게 된 것이다.

계사년 2월 12일 흰희 밝을(여명(黎明))때에 서울에 있던 적병이 진격한다는 보고가 들어 왔다.

권율장군은 먼저 보초를 시켜 산에 올라 바라보니 적병은 우리의 몇십 배나 되는 수만 명의 진격이었다.

적병 백여 기(騎)가 먼저 오고 뒤이어서 수만 대군은 들에 덮이어서(폐야(蔽野)) 진격하여왔다. 이 싸움은 묘(卯)시로부터 유(酉)시까지 세 번 접전하였으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거의 온종일 전투가 계속된 것이다.

왜병은 총이 있고 이편은 활밖에 없던 때이다. 적의 탄환이 비오듯 하는 중에 우리 군사는 목숨을 내걸고 결사대전 하였다.

권율장군은 머리에 구리솥(동정(銅鼎))을 쓰고 친히 칼을 들고 독전하였다. 적병 수십 명이 성중을 향하여 총을 쏠 때에 우리 장수 조경은 지자포(地字砲)를 쏘니 장목(長木)으로 교군(교(輻))같이 만들어 메이고 진격하던 전병은 몸과 사지(四肢)가 산산조각이 났다.

권율은 친히 물을 떠가지고 다니면서 사병 중에 목마른이에게 먹이니 사병들은 감격하면서 싸웠다.

이 싸움에 총사령인 권율장군이 친히 탄환을 무릅쓰고 부하를 물을 떠다 먹이는 덕망도 있었으나 성책을 쌓고 지자포를 준비한 조경장군의 숨은 공도 크다 하겠다.

싸움이 한창 치열한 때에 활과 살(궁시(弓矢)=무기)이 떨어져서 애쓰는데 충청병사(忠淸兵使) 정결(丁傑)이 활과 살을 배 두척(船二隻)에 가득 실어서 한강으로 올려 보내어 구급(救急)하였다.

무기가 떨어졌을 때에 행주의 부인네들이 앞치마에 돌을 주워 담아다가 싸움을 도와서 후세 사람들이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할 만큼 유명한 이야기를 남긴 것이다.

그때의 명나라 장수들은 거만하여 우리 장병을 업신여기는 버릇이 있었으나 이 싸움을 이기므로 우리 장병의 명성이 높아지고 평양 싸움에 이기고 교만하던 이여송도 벽제관 패전으로 상기(喪氣)가 되어 서울 진격을 회피하고 개성에 가 있다가 권장군과 조장군이 적은 군사로 왜병을 격파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한다.

그때의 명나라 임금이던 신종(新宗)황제도 권장군을 격려하는 비단을 보내서 치하하고 중국인들도 「비로소 외국에 진짜 장군이 있는 줄 알게 되었다」(시지외국유진장(始知外國有眞將))고 감탄하였다.

한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그렇게 우리 국민의 성가(聲價)를 높인 것이다.

행주에는 권장군을 제사지내는 기공사(紀功祠)가 있어서 해마다 제사를 지낸다.

370년 전에 우리 군사가 왜적을 격파하던 행주는 6·25동란 때에 「유엔」군이 서울을 진격하기 위하여 한강을 건너온 곳이기도 하다.

행주라는 곳은 이렇게 두 번이나 국난에 나라를 지키던 유공한 지역이다.

(필자(筆者)·한국일보(韓國日報) 논설위원(論說委員))

세종대왕(世宗大王)의 사랑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들어 인재를 양성할 때의 인정 일화다. 후에 쟁쟁한 인물이 되었던 정인지(鄭麟趾)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 최항(崔恒) 박팽년(朴彭年) 이개(李垚) 이선로(李善老) 등이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에서 공부하는 젊은 선비들이 추을 가하여 시종(侍從)을 데리고 집현전을 나가 보았는데 이날 밤의 숙직 신숙주가 야반삼경(夜半三更)인데도 책을 읽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돌아온 세종대왕은 시종을 시켜 다시 집현전을 보게 하였는데 신숙주는 아직 책을 읽고 있었다. 얼마 후에 세종대왕은 또다시 보고 오라고 하였다. 신숙주는 닭 우는 소리가 나자 촛불을 끄고 자리에 들어갔다는 시종의 보고를 듣자 세종대왕은 당신이 입고 있던 수달피 두루마기를 시종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너 이것을 잠든 신숙주에게 가만히 덮어 주고 오너라」



북아메리카대륙의 13개의 식민지로 구성된 당시의 미국이 본국인 영국으로부터 과감하게 독립을 선언한 것은 1776년 7월 4일이나 식민지와 영국과의 무력충돌 즉 미국독립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보다 1년 전인 1775년 4월 19일 미명(未明)이었으며 이 서전(緒戰)을 렉싱턴·콘코드의 싸움이라고 한다. 이 싸움은 결코 두 개의 조직화 된 군대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도 조직도 없는 민중의 집단과 대영제국의 정예부대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이었다.

따라서 이 서전에서의 식민지 민중의 승리는 공고한 의지가 때로는 우수한 무력보다 강하며 독립선언에 있듯이 「자유와 생명과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를 자각한 민중은 「압제와 횡포」를 일삼았던 전제정치를 능히 타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가 되었다. 만일 이 싸움의 영웅이 누구냐고 한다면 아메리카의 민중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민중을 지도한 사상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자유정신이었다고 할 것이다.

1763년 이래 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의 식민지정책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치제도가 발달하고 경제적 기반이 비교적 확고하고 청교도(淸敎徒) 정신이 강력한 마사추세츠 식민지는 바로 이 저항의 중심지였다. 예하면 1764년 영국 정부가 식민지의 대외기관과 상의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과세정책을 결정하였을 때 이 식민지는 「대표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원리를 내걸고 영국의 정책을 부인하였었다. 또 1773년 영국 정부로부터 식민지에 대한 차의 판매독점권을 허락받은 동인도회사가 차를 만재(滿載)한 선박을 식민지의 수도인 보스턴 항구에 입항시켰을 때 이 식민지의 민중은 인디언으로 가장하여 선박을 습격하고 차 상자를 전부 바다에 던져버렸다. 역사적으로 「보스턴차당(茶黨)사건」이라고 말하여지는 이 사건은 이 식민지가 항거를 과감하게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항상 앞장섰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영국 정부는 식민지의 영국에 대한 항거를 효과적으로 진압시키려면 바로 이 마사추세츠 식민지를 철저히 탄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전기(前記)한 「보스턴차당(茶黨)사건」이 일어나자 영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영국은 1774년 4월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반영운동자는 체포되면 영본국(英本國)으로 연행하여 재판을 한다고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일로서 마사추세츠 식민지에 군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국의 보복정책은 마사추세츠 식민지의 굴복이 아니라 기타의 식민지를 자극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남단의 조지아 식민지를 제외한 12개의 식민지를 결속시켰다. 즉 이들 식민지는 1774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대륙회의라는 식민지의 연합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의회는 각 식민지에 혁명정부라고도 할 수 있는 식민지협의회(食民地協議會)의 설치를 권고하고 종래 각 식민지가 유력한 항거 무기로서 사용하여 온 영국상점의 불매운동을 또한 더욱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마사추세츠 식민지는 10월에 콘코드에서

최초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식민지인의 자유·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민지인의 무장을 결의하고 또한 민병(民兵)의 동원 및 지휘를 담당하는 보안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스턴 시내에 있는 영국의 군정부와 접차 대립하는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상이 렉싱턴·콘코드의 싸움이 일어나기까지의 간단한 역사적 배경이다. 1775년 4월에 들어가서 보스턴에 있는 영군(英軍)사령관 게이저 장군은 보스턴으로부터 서북쪽으로 16리(哩)의 거리에 있는 렉싱턴에 반영운동의 중심인물인 샘·아담스와 존·헨크크가 숨어있고 또 거기서부터 5리의 거리에 있는 콘코드에는 막대한 양의 군수물자가 저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리하여 스미스중령과 핏트케엔소령 지휘하에 7백 명의 부대를 인솔시켜 4월 18일 밤 10시부터 극비리에 렉싱턴·콘코드의 급습 작전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작전계획은 사전에 보스턴 시내에 있었던 보안위원회에 의하여 탐지되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서는 곧 리버 및 도오즈의 2명을 렉싱턴과 콘코드에 급파하였다. 양인(兩人)은 4월 18일 자정에 렉싱턴에 이르러 샘·아담스와 존·헨크크에게 피신하도록하고 또한 영군의 습격을 주민에게 알렸다. 여기서 잠시 휴식한 뒤 4월 19일 오전 1시경에 프레스컷트 의사와 같이 세 사람이 콘코드로 달렸다. 그러나 도중 이 세 사람은 영군의 기마(騎馬)탐색병에게 발견되었다. 리버는 잡혀서 렉싱턴으로 돌아가게 되고 도오즈는 일단 피하였으나 이 역시 되돌아가게 되고 오직 프레스컷트 의사만이 콘코드에 도착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영군의 주력부대가 오기 전에 주민들은 응전(應戰)태세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콘코드에 저장되어 있었던 군수물자는 대부분이 안전한 곳으로 은닉될 수 있게 되었다.

스미스 중령의 주력부대는 4월 19일 새벽녘에 렉싱턴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존·파카 지휘하에 약 70명의 무장한 민병이 광장에 줄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영군을 본 파카는 민병에게 「저쪽에서 발포하지 않는 한 발포하지 말라. 그러나 영군이 전쟁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서 일어나도록 하자」고 명령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너희들 반도(叛徒)들이, 해산하라」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총성이 요란하게 나기 시작하였다. 누가 먼저 발포하였는지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역사적 수수께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식민지의 민병과 영군이 충돌하였다는 것, 이리하여 미국의 독립전쟁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핏트케엔 소령이 되풀이한 해방명령과 영군의 압도적 화력 앞에 민병들은 후퇴하여 버렸다. 그러나 이들은 영군이 명령한대로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지는 않았다. 이 싸움에서 민병 측은 8명의 사자(死者)와 10명의 부상자를 내고 영군은 오직 1명의 부상자를 내었을 뿐이었다. 영군은 여기서 일단 부대를 정돈하고 다시 제2의 작전 목적지인 콘코드로 향하였다.

콘코드에 도착한 영군은 군수물자를 수색하였다. 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삼문(三門)의 포와 몇 개의 포차(砲車) 참호(塹壕)기구를 부시고 식료품은 연못에 던져버리고 또한 식민지인의 항거의 상징이었던 「자유(自由)의 기둥」을 쓰러뜨려 잠시동안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동안에 천명을 헤아리는 무장한 민중들은 콘코드 주변의 고지를 차지하여 영군을 포위하였다. 영군의 일부 병력이 콘코드의 북교(北橋)를 점령하고 기타 병력이 군수물자를 수색하기 위하여 콘코드 밖으로 2리나 행진하여 나갔을 때 드디어 민중들은 이때까지의 관망적(觀望的) 상태를 버리고 반격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들은 북교에 있는 영군 병력을 공격하였다. 수적(數的)으로 우세한 민중의 공세 앞에 영군은 도저히 북교를 확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잘못하다가 콘코드 밖으로 나간 영군 병력과 절단될 가능성마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스미스 중령은

동서일화(東西逸話)

불길(不吉)한 예언(豫言)

프랑스 루이 11세(1423—1483)는 여러 가지 불길한 예언을 퍼뜨려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예언자를 붙잡아서 사형에 처하려는 마당에서 그 사나이를 불러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운수팔자는 잘 아는 모양인데 네 자신의 운수는 알고 있는가? 대체 너는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느냐?”

“네 실은 제 운수는 조금도 모릅니다. 다만 폐하보다 사흘 전에 죽는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이 11세는 그 사나이의 사형을 중지하였다.

가장 필요(必要)한 식량(食糧)

루이 12세(1462—1515)가 아직 울루레안공(公)으로 있을 때 어느 시종 한 사람이 농민을 학대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왕은 그 시종의 식탁에는 빵은 놓지 않고 고기만을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시종은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소문을 들은 국왕은 그를 불러놓고

“가장 필요한 식량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빵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빵을 만드는 사람들을 학대하는가?”하고 크게 꾸짖었다 한다.

오리 고기 맛

중국 후한 대에 황보규(皇甫規)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도료장군(度遼將軍)이라는 영예로운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 성품이 강직한 기인(奇人)이었다.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늘 누워있었다. 하루는 하녀가 들어와서 “이런 분이

찾아오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커다란 명함을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보니 그전에 대금(大金)으로 벼슬을 사서 겨우 안문태수(雁門太守)를 지낸 바 있는 사나이였다. 황보규는 코웃음을 치면서 침실에서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사나이는 무례한 자로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안내도 받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 기어코 황보규가 누워있는 침실 옆에까지 왔다. 황보규는 그의 얼굴을 보자

“오리(雁) 고기맛이 어떻던가?”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하였다.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손님 한 분이 찾아왔다.

“왕부(王符)라는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하너로부터 이말을 듣자 황보규는 별안간 침실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급히 갈아입고 쫓아나가 명랑한 얼굴로 그를 맞아드렸다.

왕부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고학(苦學)을 해서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쓴 사람인데 세속을 싫어해서 벼슬도 안하고 일생을 보낸 사람이었다.

인내(忍耐)

엘리자베스여왕 시대의 사서학자(辭書學者)로 유명한 토마스·쿠퍼는 8년이나 걸려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히스테리를 잘 일으키는 그의 아내가 남편이 집을 빈 사이에 서재에 들어가 대부분의 노트를 스토브에 집어 넣어 태워 버렸다. 집에 돌아온 쿠퍼 박사가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누가 한 것이냐?”라고 소리를 치니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일에 너무 열중해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 말을 듣고 박사는 몇 번이고 한숨을 내쉬더니

“당신은 내게 정말 못 할 짓을 했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다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재에 파묻혀 처음부터 다시 쓰기를 시작해서 또 다시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드디어 3만 3천어(語)나 되는 대저(大著)를 완성하였다.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간 병력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군수물자의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19일 정오부터 렉싱턴 방면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영군은 렉싱턴을 거쳐 보스턴으로 철수하는 이 작전이 가장 어려운 작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렉싱턴·콘코드의 싸움이 있기 전에 마사추세츠 식미지협의회는 민병을 조직하고 있었다. 이들 민병은 특히 미닛·맨(Minute Man)이라고 불려졌다. 즉 이들은 소집 명령이 내리면 1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 전투태세를 갖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리버이 등이 영군의 습격을 급고(急告)하였을 때 무기를 들고 나선 민중은 이들 민병만이 아니었다. 렉싱턴 및 콘코드에서 긴급사태를 알리는 종소리는 인접촌락의 민중들에게도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였다. 이리하여 분노에 찬 4천 명을 헤아리는 민중들은 콘코드로부터 보스턴에 이르는 가로(街路) 양측에 제멋대로 자리를 칠수하여오는 영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혹은 언덕 위에서 혹은 돌담 위에서 혹은 가옥 뒤에서 영군을 저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스미스 중령이 렉싱턴에 이르렀을 때 영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다행히 렉싱턴에는 1천 2백 명의 병력을 가진 영군 구원부대가 오게 되었다. 이 부대는 몇 문(門)의 포를 가져왔으므로 이 포로서 집요하게 달라붙는 민중을 일단 위협 해산시킬 수 있었다. 여기서 영군은 부대를 수습하고 잠시 휴식한 뒤에 다시 보스턴 방면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식민지 민중들도 다시 측면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때로는 저녁 이외에 민중과 영군 사이에 육박전(肉迫戰)이 있기도 하였다. 특히 현재 하버드대학이 있는 케임브리지의 교외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여기서 영군 철수부대는 도저히 보스턴으로 직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리하여 방향을 바꾸어 찰스타운반도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영군은 밤에 이르러 찰스 타운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보스턴항에 정박하고 있는 영국 군함의 엄호 포격(嚴護砲擊)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배를 타고 보스턴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4월 19일의 교전에서 양측의 손실은 결코 적지 않았다. 영군측에서는 23명의 희생자를 식민지 측에서는 95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그러나 식민지측에는 영군에 끼친 손실보다도 더 큰 성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훈련이 안 된 식민지의 민중이 능히 훈련을 받은 영군에 대적할 수 있다는 자신을 주었으며 또한 이 싸움에서의 승리의 보도는 무력항쟁만이 식민지측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각성시키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마사추세츠 식민지협의회는 이 승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군의 군정을 부인하기 위하여 보스턴 포위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1955년도 저물어가는 성탄절 날 오후에 필자는 그때 하버드대학에 유학중이었던 C형과 몇 분의 안내를 받아 렉싱턴과 콘코드의 유적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자동차는 그 옛날 영군이 진군하였던 순서대로 렉싱턴을 거쳐 콘코드에 이르렀다. 식민지 민중이 처음으로 반격을 개시하였던 북교와 주변의 고지는 눈으로 두텁게 덮여 있었다. 이 북교 위에 서서 우리 일행은 유사시에 1분이면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였던 미닛·맨의 활약을 마땅히 고국에 널리 소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의 뜻을 피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보다 5년 후의 4월 19일이라는 날이 미국의 역사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유를 자각한 민중이 그 힘을 과시한 또 하나의 의의깊은 날로서 영원히 그리고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조차 하지 못하였었다. (1961.8.10)

미국(美國)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적(理論的) 연구(研究)와 실제적(實際的) 교육(教育)—

김기점(金基漸)



미국에 있어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에 관한 교육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또한 매스·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있어 근래 어떠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매스·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는 오늘날에 와서야 새삼스레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루어진 근대사회의 과제였으며 근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물론이려니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사회적 제반 조건이 확립되었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더욱이 기술 문명의 발달 그리고 고도화된 기계발명과 사회조직의 확대분화와 복잡화에 따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많은 자금과 대규모의 시정(施政)장비를 투입시키게 하였으며 또한 이는 소수의 지식층으로부터 광복(廣幅)한 대중화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먼저 매스·커뮤니케이션과 프로파간다(Propaganda)와의 관계를 잠깐 다루고자 한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이거나를 막론하고 이들 의식을 표현함으로써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동일한 의사를 갖도록 작용한다든가 계발적인 작용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활동은 선전적인 조작을 하는 것과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매스·커뮤니케이션은 계발성을 내포한 작용을 하는 것이나 프로파간다는 조작적인 것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시민여론을 지도하는 대중전달의 수단이 곧 선전(프로파간다)이란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선전기술이 작용하는 조작성 허위성을 배제하고 일반대중에게 진실한 것을 사실 그대로 제공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학계에서 특히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최근 미국에 있어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연구와 그 교육은 이론적 연구와 실제적인 교육과의 관련성이 그 특징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론과 실재가 밀접해졌다는 것이며 양자 간의 통합의 기운(機運)과 경향이 농후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발전이나 혹은 매스·컴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대략 매스·컴에 관한 교육을 목적하는 신문학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에 관한 많은 연구는 도리어 사회적 사회심리학, 심리학, 정치학 등의 영역으로서 다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매스·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중심인 많은 신문학은 철저한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1선의 신문인(新聞人)이나 방송인이 직접교육에 임하여 실제적이고 직업적인 훈련을 하여 온 것이 통상적이었다.

말하자면 신문기사를 어떻게 쓴다든가 방송원고를 어떻게 만든다든가, 또한 신문 잡지를 여하(如何)히 편집한다든가 라디오나 TV의 프로를 어떻게 짜며 광고를 어떻게 효과적인 것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기술적이고 직업적인 것을 중점 두고 다루어져 온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제적인 직업교육에 있어서 전혀 이론적인 연구가 불요(不要)하다든가 혹은 전연 무시되어 왔다고는 할 수 없다.

이론적 연구와 실제적 교육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은 차원의 차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연구는 사회학자, 사회 심리학자, 심리학자 혹은 정치 학자들에 의하여 각기 영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연구 과제로서 다루어져

온 것이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신문학과는 무관하게 별개의 과제로서 발전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실상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서 신문학 혹은 그 참여자의 손으로서 다루어져 온 것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이 타 분야의 학자들 손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실정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년 간의 경과를 보면 이들 양자가 근래에 이르러 접근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보이며 더구나 그간에 있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통합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또한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즉, 많은 신문학 과정에 있어서는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강좌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취급하려는 점이 엿보인다.

그 일례를 든다면 이름있는 보스턴대학의 신문학 과정에는 기본과목인

“Principles of Journalism”()

외에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History and Survey of Communication”

등의 강좌가 종래의 기술적인 과목과 같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왕년(往年) 윌버·셀램(Wilbar schramm)하에 미국에서 최초로 독립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소로서 설립되고 여러모로 많은 업적을 남긴 일리노이 대학의 유명한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같은 것도 초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독립된 연구기관이었을 뿐이었으나 금일에 와서는 College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의 부속기

관으로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오늘날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 사회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계발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타면에 있어서 앞서 논급(論及)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신문학과는 별개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연구에 종사해온 많은 사회학자,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 응용영역에도 진출함과 동시에 매스·컴에 관한 실제적 교육에 대하여서도 협력하며 참고하는 경향이 강하여졌다는 사실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사실 많은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신문학의 스태프로서 진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많은 세미나(Seminar)나 혹은 훈련 기관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논술코자 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관련 영역의 상호협조 내지는 통합의 경향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즉 관련 영역의 연구자도 실제적인 교육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일례를 든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연구에 있어서 최근 주목할만한 미시건주립대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프로세스의 모델의 연구를 다루고 있거니와 동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같은 현대자본주의 경제기구에 있어서 광고(Advertisement) 같은 영역에

<수기(手記)>

군번(軍番)없는 반공용사(反共勇士)

나는 구월산(九月山) 유격대원(遊擊隊員)이었다.

류덕선(柳德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의 회고담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은 지난날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사선을 같이 넘었던 구월산 유격대의 전신인 장연(長連)부대의 여러 동지들의 애국적인 분전(奮戰)이 없었던들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더구나 나의 구월산 유격대의 6개월 생활을 통하여 오늘의 나를 있게 하여 준 당시 장연부대 본부의 바오로 동지(카톨릭 세례명, 본명은 그의 유가족 관계로 밝히지 않겠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나는 낯선 고장에서 괴뢰(傀儡)의 총탄에 쓰러져 가며 얼마나 붉은 오랑캐들을 저주하였을지 모를 일이다. 바오로 동지가 이미 타계로 떠

난 지 오래이고 보니 불현듯 나의 생명의 구원자인 그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그리워진다. 지하의 여러 동지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 당시의 구월산 유격대원이 이름 없는 무명의 전사로서, 군번 없는 반공의 용사로서 얼마나 용감하게 분전하였는가를 일부분이라도 그 공적을 알리고자 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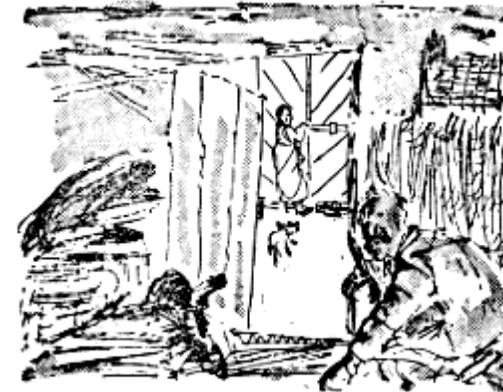
구월산유격대(九月山遊擊隊)

당시 황해도 구월산록(麓)을 중심으로 그 고장의 반공청년이 주동이 되어서 4283년 12월 UN군의 철수작전의 일익(一翼)으로서 남하하는 괴뢰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유격대가 조직되었는데 이가 곧 장연부대이며 그 후에 구월산을 근거지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구월산 유격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당시 나는 공군의 일원으로서 첩보수집 임무를 띠고 ○○기지를 출발하여 황해도 적의 점령지역에 잠입을 성공하여 약 1개월 만에 장연유대와 합류되어 이들과 근 6개월간 구월산 유격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유격대의 주임무는 당시 아군이 철수한 이후에 있어서의 지방적색분자(地方赤色分子)의 색출소탕과 남하 피난민(南下避難民)의 보호 또는 괴뢰군 해안경비대에 대한 공략과 적 후방의 교란 등이었다. 이 장연유격대와 합류한 후 약 1개월여간 나는 무전기를 가지고 본대와외의 통신임무를 수행하였다.

전황(戰況)이 서부전선에서는 한강을 대치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4284년 1월 중순(中旬) 경 어느 아침이



라고 생각되는데 황해도 장산곶(長山串) 해안으로부터 상륙한 괴뢰군 해안경비 제26여단 소속의 대대병력으로 추산되는 적군과 장연 서남방 10리의 용두리(龍頭里)라는 곳에서 접전이 되었는데 병력이나 장비, 보급에 있어서 우리 유격대가 열세였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용두리 전투에서 하루를 지탱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조반을 먹을 사이도 없이 우리 유격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말아서 구월산 중으로 부득이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 용두리 방어선의 붕괴 소식이 나에게도 들어오게 되자 나와 무전사는 부랴부랴 무전기 가설을 철수하기 위하여 먹다 남은 밥술을 집어던져 버리고 일어섰다. 무전기 안테나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사용하던 장

비 일체를 말끔히 거둬가지고 부리나케 장연부대본부로 뛰어가 보니 이미 유격대본부는 철수한 후였다. 그 리하여 할 수 없이 무전기는 무전사에게 맡겨서 조속히 적의 지역을 탈출하라고 일러서 먼저 떠나보내고 나는 흑시나 하고 대본부저항진지(隊本部抵抗陣地)로 급히 달려갔으나 역시 이곳도 세불리로 퇴각 중에 있었다. 적은 아방(我方)이 철수하는 것을 알자 발악적으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적탄이 우리 진지로 비 오듯이 날아오는 실정이었다. 나는 근처에 별로 차폐물도 신통치 않고 하여 길너머의 방공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때 무작정하고 뛰어 들어가 보니 이 안에는 아직 미처 후퇴 못한 장연부대의 후방부원이었던 바오로 동지가 혼자 남아서 찢찢매고 있지 않은가. 나는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대열에서 혼자 낙오되어서 지리도 통 모르는 나에게 구원의 손길이라도 잡힌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공포와 불안에 찬 음성으로 고개를 숙이라고 이르며 손으로 전방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과연 적의 기관총좌가 마구 불을 토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즉각 나는 바오로 동지와 의논한 결과 이 방공호 속에 있다는 필경 적탄에 개죽음을 당할 것 같기에 죽던 살던 이 방공호를 빠져 나가려고 마음 먹고서 한 50미터 뒤에 있는 민가로 피신하기로 했다. 적탄의 사격 간격을 이용해서 나와 바오로 동지는 엉금엉금 포복으로 기어서 어떤 민가로 뛰어 들어갔다. 나와 바오로 동지의 고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두 여인(女人)의 경우(境遇)

밭길로 문을 걸어차고 그 민가에 들어간 나와 바오로 동지는 즉시 숨을 장소를 물색하여 보았으나 대문 옆에 광같은 헛간이 있을 뿐이었다. 날은 잔뜩 찌푸린 데다가 유난히 귀가 떨어질 듯이 추웠다. 저 광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한 시간도 채 못 되어서 동태가 될 것만 같기에 나는 바오로 동지의 얼굴을 엿보고 적의 수색대가 오면 최후까지 반항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한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 집 사랑방으로 뛰쳐 들어가려는데 함의하였다. 이때까지도 마당에는 아무런

서는 벌써부터 많은 학자나 연구자가 실사회에 나서서 각종 조사를 하고 현실적인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응용의 영역에서의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 이러한 경향은 종래부터 보 이기는 하였지만, 근자에 와서 매스·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 특히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하겠으며 지금까지 분리해온 듯한 신문학과 타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협동이 밀접해졌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오늘날까지 각기 다른 영역에 있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점차로 그 영역을 벗어나 일반적 이론에도 보편화되어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러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거니와 이곳에서 또하나의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 교육의 기구의 재편과 교육의 확대 그리고 그 과정의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앞에 여러 가지로 신문학에 있어서의 이론에로의 접근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관한 강좌의 충실화를 지적하였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경향으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관련 영역과의 관계의 강화 그리고 이런 통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학은 두말할 것도 없이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기척이 없기에 무작정하고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안에서 노파 한 분과 중년 아주머니가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다가 기침을 하고 나와 보는 것이었다. 마침 이 집은 바로 동지가 전부터 잘 아는 집이어서 임시변통조치로서 사정을 얘기하고 위기를 모면하였다. 자식을 둘씩이나 유격대에 협조하였다는 구실로 적의 소위 열성분자의 밀고로 괴뢰군에게 총살 당한 원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여간 꺼릴 뿐 아니라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여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할 수 없이 소지하고 있던 소련제(製) 권총으로 위협을 하여서 이 노파를 물리쳤다. 소리를 치거나 적에게 통고를 하면 죽이겠다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기가 죽어서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바로 동지는 중년 아주머니인 이집 안 주인을 붙들고 사정 얘기를 한 뒤에 불을 좀 지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와 바로 동지는 아랫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밖의 동정에 연신 주의를 모으면서 얼굴만을 쳐다볼 뿐이었다. 간간이 총소리가 이따금씩 들릴 뿐 콩 볶아 대듯 하던 기관총 소리도 멎어 버렸다.

나와 바로 동지는 오늘밤을 여기서 넘기고 내일 해뜨기 전을 틈타서 우리 유격대의 방어진지로 탈출하기로 의논했다.

때가 오후 두어 시나 되었을까, 창구를 통해서 밖을 감시하고 있던 바로 동지가 갑자기 안색이 일변하면서 나를 부르며 “쉬”하고 밖을 가리키기에 창가로 바짝 기어갔다. 이 사랑방 창문으로는 밖이 모두 내다보여서 적군 5, 6명이 소총을 메고 뒷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하! 조만간 이 마을 집들을 수색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갔다.

불안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기를 두어 시간이나 했을까 거의 저녁녘이 되었는데 뒷문을 통해서 이 집 중년 아주머니와 함께 웬 부인이 어린애를 업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즉각적으로 마을의 적색(赤色)열성분자를 인도하는가 싶어서 급히 권총의 방아쇠에 손을 갖다 대었다. 이때였다. 방안에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던 바로 동지가 갑자기 놀라면서 문을 열고 그 아이 업은 부인에게 달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바로 바로 동지의 부인이었던 것이다. 이 집 중년 아주머니가 건너 동네 바로 동지의 집에 가서 바로 동지의 부인에게 전갈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UN군 철수 후에 장연부대마저 후퇴해서 남편의 생사를 모르다가 부랴부랴 쫓아 온 것이었다.

바로 동지는 그의 부인이 자기의 소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놀라움과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의 부인과 해후(邂逅)하였던 것이다. 바로 동지의 부인은 남편의 신상을 염려하면서 어서 이곳을 탈출하라고 이르면서 괴뢰화폐 2백원을 바로 동지에게 건네는 것이었다. 부인에(婦人愛)의 뜨거운 마지막 장면이라도 보는 듯하였다. 바로 동지가 그의 부인과 마당에서 작별을 하고 방에 들어온 지 채 10분이 못 되어서 웬 또 하나의 부인이 이 집 주인아주머니를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다시 초조와 불안에 떨면서 동정을 엿볼 수 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이 부인은 다름이 아니라 약 보름 전에 안악군(安岳郡) 서하면(西河面) 전투에서 분전하다가 전사한 ○○중대장 진곤 동지의 부인이었던 것이다. 이 부인도 역시 남편의 생사를 몰라 애태우다가 찾아온 모양이다. 그 부인은 본래 일본 출신 여인으로서 우리말이 서투른 데다가 원한과 분노에 찬 얼굴은 우리를 보자 금세 눈물이 글썽거리며 치마 밑에서 수류탄 한 개를 꺼내주는 것이 아닌가. 자기 남편의 원수를 갚아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부인이 주는 수류탄을 소중히 받아 쥐고서 위로하여 주었다. 나는 반공용사의 거룩한 아내를 둘씩이나 보았던 것이다. 과연 유격대는 대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반공심(反共心)에 불타며 얼마나 원수놈들에 대하여 적개심이 강한가를 엿볼 수 있었다.

관한 방송 신문 광고, 일반 세론(世論)과 여론조사 혹은 시장조사 등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깊은 영역에 있어 상호밀접한 관계가 맺어져 하나의 교육기관 속에 통합되어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래(徒來)에 있어서의 매스·미디어(Mass Media)로서 신문과 잡지 따위 인쇄 매개체와 이밖에 기계문명의 고도화된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새로운 전파매개체가 또한 출현하여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신문학의 과정도 점차 확대되었고 신문 저널리즘의 강좌에 방송 저널리즘의 강좌 역시 중대하여온 것은 필연적인 경향의 하나이다.

그러면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새로운 매개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아울러 광고 시장 조사 등의 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되고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의 중요성이 인식되어감에 따라 당연한 결과로서 신문학 연구 과정의 재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이 확충이 요청되게끔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영역은 상호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그 자체 내에 있어서 또한 각기의 복잡한 내용을 가짐으로써 더욱 이에 대한 고도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각기 복잡한 내용을 충실케하기 위하여 일면(一面) 여기에도 적용한 교육과정을 설치함과 아울러 타면(他面)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과 공통된 것을 인정코 어느 모로 통일이 이루어짐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 종래의 신문학의 조직과 내용에 관해 재검토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의 단적 표현으로서 이제까지의 일반 신문학의 규모로 전문적인 과목으로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예를 든다면 현재 이러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대학을 보면 미시건 주립대학과 일리노이 대학이 있으며 보스턴 대학과 같은 곳에서도 그러한 규모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 밖에 대학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동향이 엿보인다.

우리 한국의 대학 신문학 과정과는 판이(判異)하게 미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학의 과정뿐만이 아니고 대학원의 석사 박사과정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타분야 전공의 학생에 까지도 이 강좌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만 들어도 얼마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관련 영역이 현저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교육의 확대 교육의 충실이 시대적 요구에 응하여 그 얼마나 미국 사회의 무거운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재론을 요(要)치 않는다.

그러나 이상 논술한바 미국에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이론적 연구가 실제적인 교육으로 현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떠한 과제를 던져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筆者)·공군중령(空軍中領) 공보과장(公報課長))

3주야(三晝夜)의 방황

이런 촌극(寸劇)을 치루고 난 후에 어둠이 스며드는 무렵이었다. 갑자기 발소리가 밖에서 요란하더니 대문을 열라고 고함을 친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장총(長鎗)을 멘 괴뢰군 서너 놈들이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와 바로 동지는 굳어진 얼굴로 최후를 각오하고서 방문을 몰래 빠져나와서 담을 끼고서 대문 옆 담 밑에 돌이서 바짝 달라붙었다. 바로 동지는 수류탄을, 나는 권총을 가지고서 놈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서면은 몇 놈이 되든지 간에 끝까지 버티어볼 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밖에서는 고함소리가 요란하고 우리들은 손에 땀을 쥐고 있을 때에 길너머로부터 괴뢰군 집합 나팔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대문을 열라고 소리치던 놈들이 “에이 집합이군, 동무들 그냥 가봅시다.”하고 돌아가는 기색이었다. 나와 바로 동지는 이때 손을 마주잡고 천명(天命)이 주신 우리의 요행에 기쁨을 가누지 못하였다. 우리들은 그날 밤을 거의 뜬눈으로 새우고 아침녘에야 좀 눈을 부쳤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어제 일대의 괴뢰군들이 이 마을에 주둔하였다가 오늘 새벽에 유격대를 쫓아서 떠나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보에 용기를 얻고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멀리서 새벽닭이 우는 것이 들린다. 그래도 어디에 닭이 부지해 있을까하고 귀를 의심하여 보았다. 놈들이 강제로 압수하여서 취사장에 놓아둔 닭이 틀림없으면은 적의 보초선이 얼마 멀지 않으리라는 것을 즉각 예측할 수가 있었다.

차가운 아침 바람을 쐬면서 우리들은 밤새 폐를 끼친 주인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말도 변변히 못한 채 영금영금 기어서 놈들의 보초선을 넘는데 성공하여 이 고장 지리에 밝은 바로 동지의 필사적인 지혜 이용과 안내로써 나는 눈을 주위 먹어가며 만 3주야(晝夜)를 헤맨 끝에 장연부대 ○○중대와 합류하게 되었다. 산속을 해매면서 동사를 면한 것이 무엇보다도 바로 동지의 따뜻한 부축에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 후 바로 동지는 서해안 대화도(大和島)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흰 눈이 덮인 겨울 산을 볼 적마다 그와 고행을 하던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마음씨 착하고 열렬한 반공투사였던 그의 영령(英靈) 앞에 어서 조국 통일의 희소식을 전하여 주었으면…….

(필자(筆者)·공군소령(空軍少領)·10전비단작전처(戰飛團作戰處) 정보과장(情報課長))

섬의 구원

제라아드 티켈

화문(畵文)

SMILE

백영수(白榮洙)

나는 소박한 미소가 좋다. 입술 가상이 사이로 생기는 그 굽은 아니 별로 굽지도 않은 서너개의 선이 랑 눈도 함께 따라 웃는 입술. 마음껏 거침없이 벌어지는 입술사이로 송곳니가 의적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서 얼마 안 되어 영불(英佛)해협에 위치하는 영령(英領) 찬넬 군도(群島) 중의 하나인 조그마한 비무장의 아모렐 섬을 한스 베이스 대위가 지휘하는 독일군의 일단이 점령한다.

수도사(修道寺)들과 물새들만이 들르던 외로운 아모렐 섬의 영주로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유고 화라이즈를 임명하고 이 섬을 다스리게 한 것은 16세기 말이었으며 그 후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도 화라이즈가의 후손인 젊은 영주에 의하여 주민이 3백을 넘지 않는 조용한 섬이 다스려졌던 것이다.

전쟁이 시작된 후, 어느 날 젊은 영주는 섬의 간부들을 회의실로 모이게 하고는 영국왕실로부터 위임된 섬의 통치를 자기가 임명한 늙은 집정관에게 맡기고 여동생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난다.

섬을 점유한 독일군은 섬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했으며 모든 총포(銃砲)와 라디오를 압수했다. 탄압은 유혈의 반항을 유발할 것이라는 집정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토이스어(섬의 고유언어)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영국 왕실의 전통을 상징하는 젓소 비너스를 독일 본국으로 가져갈 것을 집정관에게 통고한다. 그들은 비너스를 독일로 데려가서는 영국에 대한 심리전에 이용하려는 것이 었다.

한편 영국의 육군성에서는 아모렐 섬의 비너스를 구출하고 섬에 주둔하는 독일군의 기습부대가 숨겨두고 있는 쾌속포함(快速砲艦)을 항구 밖으로 유인해 내서는 격침시키려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육군성(陸軍省) 소속의 마렌틴 모랜드 소령에게 지시한다. 영주와 함께 영국으로 탈출한 여동생 니코라 화라이즈양은 영국 전시 부녀봉사단에 근무하던 중 모랜드 소령의 안내역으로서 무전사인 알렉산더 휘브스 상사와 함께 잠수함을 타고 아모렐 섬으로 잠입한다.

아모렐 섬에는 영주가(領主家)의 유일한 혈통으로서 옥스퍼드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니코라양의 사촌오빠인 평화주의자 리오넬 화라이즈가 그림을 그리면서 남아 있으며 독일군은 영국의 간첩으로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그의 행동을 감시하나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을 알고 혐의를 두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함께 뛰어놀며 자란 니코라양은 사촌오빠인 리오넬을 사랑하며 영국으로 함께 탈출할 것을 생각한다.

비너스를 독일로 수송하는 날, 리오넬로 하여금 다른 황소의 얼룩을 비너스와 똑같이 그리게 하고는 소를 바꿔쳤으나 배에 실는 순간 가짜 비너스임이 한스 대위에 의하여 발각되며 이로 말미암아 니코라양 일행이 섬에 잠입한 것을 알게 된 독일군은 섬의 수색을 시작한다.

모랜드 소령이 시한폭탄을 장치하다가 독일군에게 발견될 찰나에 동소령을 구출한 섬의 소년 조지가 일행과 함께 영국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출발 시간이 임박하였을 때 수색대를 다른 곳으로 유인한다. 그러나 소년의 거짓말을 눈치챈 수색대의 상사가 일행의 집합장소로 향하는 소년을 미행한다.

해변가에 집합하여 일행을 태우려 오기로 된 보트를 기다리는 중 비너스가 새끼를 낳으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일행이 근처의 헛간으로 가서는 낳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지 소년을 미행한 독일군 상사가 총을 겨누고 나타나서 일행을 생포한다. 그러나 캄캄한 산중으로 이들을 혼자서 연행하게 되면 탈출할 것을 염려한 상사가 수색대원의 도착을 기다리는 중 비너스가 송아지를 낳는다. 이를 받아낸 니콜라양은 독일군 상사에게로 송아지를 안고 막아서며 일행에게 눈짓을 하는데 마침 모랜드 소령

드러나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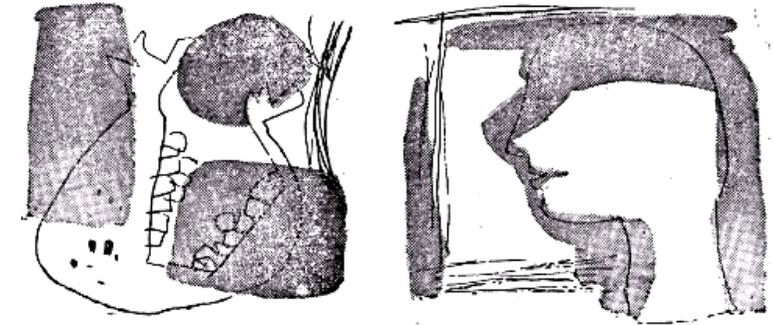
이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그이의 나이를 짐작하기 힘들다.

정말 소박한 웃음이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려 보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 세상을 아는 노인처럼 이해가 것들은 미소 같기도 하다. 물론 그 미소에는 악의도 거짓도 없어 보인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았다는 옛말처럼 그 미소는 천냥 빚을 갚을 수 있을꺼라고 생각된다.

제이무리 화가 낫던 여인이라도 그 미소를 보고 아름답게 느껴질게다.

봄별을 받은 아름답게.....

적당히 들어가는 한쪽의 볼 우물에는 한번 꼭 눌러보고도 싶고 뽀뽀라도 하고 싶은 심사가 돼 버린다. 물론 가상이 사이로 여러 개 주름이 간 어린이의 예쁜 미소는 아니라도 정녕 귀엽고 놓치고 싶지 않은 잇을 수 없는 미소이다.



이 장치한 시한폭탄의 요란한 폭음이 들리고 이튿을 타서 놀랜 상사에게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은 일행은 배가 기다리기로된 장소로 향한다.

한편 그들 일행이 독 안에 든 쥐라고 생각한 한스 대위는 전화력(全火力)을 해변에 집중하고는 항구에 숨겨진 포함(砲艦)을 출동시켜 전원을 생포할 것을 결심하고 사격을 금한다.

영국으로 함께 떠나려던 리오넬은 모든 것이 발각되었음을 알자 자기가 떠난 후 무모한 섬사람들이 독일군에게 괴로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붙드는 니코라양과 일행에게 작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언덕에 있던 한스 대위는 이 광경을 목격한다.

모랜드 일행이 탄 보트가 막 해변을 떠난 순간 독일군의 포함이 나타나서 위협사격을 하며 다가온다. 바로 그때 어디서인지 비행기의 폭음과 함께 3대의 영국전투기가 나타나서 보기 좋게 포함을 격침시키며 일행이 탄 보트는 무사히 탈출한다.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은 채 바라보던 한스 대위는 리오넬의 집으로 향한다. 리오넬의 화실에 들어서니 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한스 대위를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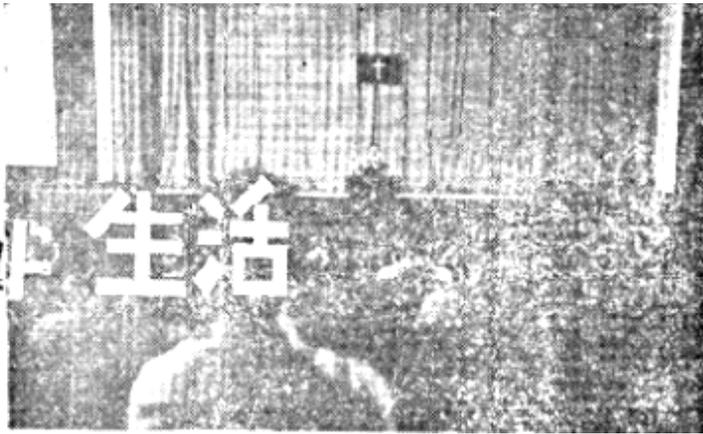
리오넬을 바라보며 한스 대위는 두 개의 상이(相異)한 운명을 상상한다.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자기의 운명, 그리고 독일의 수용소를 갖은 고문을 다 겪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을 마칠 리오넬의 운명.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한스 대위는 리오넬에게 돌아설 것을 명령한다. 고요한 표정으로 리오넬이 창문을 내다보며 돌아선다.

× × × ×

信仰과 생활

林 東 善



신앙(信仰)과 생활(生活)

임동선(林東善)

<인생(人生)과 생명(生命)>

인생(간)은 생명체의 절정이다. 우주 만물 가운데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은 말할 바도 없다. 희랍의 철인(哲人) 프로타고라스가 인생을 만물의 척도라고 말한 것은, 척도라는 표준을 가지고 사건을 측량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 자신을 표준 삼아서 무엇이냐 추단(推斷)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옛말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함은 인생의 자기의 유한성을 애달프게 여기는 말인 것이다. 미국의 시인 에머슨이 말한 ‘인생은 무엇이며 또 인생은 무엇이 아닌가?’라는 뜻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또 위대하다는 말일 것이다. 프랑스 문인 빅투유르는 ‘우주만물의 위대함보다도 내적인 자기심계(自己心界)가 더욱 위대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칸트가 내적 도덕률을 경탄한 것과 비슷한 것이다. 예수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위대한 것으로서 우주 만물보다도 귀중하다고 평가하였다.

<생명(生命)과 욕구(慾求)>

생명이 있는 곳에 욕구가 따라간다. 광물계는 생물계와 달라서 영양의 작용이나 운동의 작용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런 욕구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생물계에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각기 필연적으로 욕구가 따른다. 더구나 인간은 고등한 생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욕구는 매우 복잡하고 강력한 것이다. 따라서 생에 대한 애착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인간이 제일 크다. 오늘날 현대과학문명을 경탄하지만은 생명의 신비는 아직도 해명을 주지 못한다. 즉 죽음을 과학으로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인생은 진정한 안전과 이해와 평정과 진리와 형제애와 영생을 찾는다. 이와 같은 욕구는 당연한 것이다. 욕구하는 바가 없으면 인생이 인생되는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다.

<욕구(慾求)와 불만족(不滿足)>

역사를 상고한다면 인류의 문화는 욕구에서 발생하고 욕구에서 성취된 것이었다. 물질은 유한한 것이나 인생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이다.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다. 욕구는 선악의 이종이 있다고 본다. 사람이 욕구하는 바가 계속하여 현대에 불만족을 느끼지 아니하면 결코 진보와 발전이 없다. 그러므로 인생은 욕구에서 새로운 욕구를 잇달아 자기의 현재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그 본성이요, 생명의 요구이며 또 인격의 가치이다. 칼라일은 ‘만족해하는 도야지가 되는 것보다 불만족해하는 인생이 되며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불만족해하는 소크라테스가 되라’고 했다. 우리 자신은 물질에 대하여서는 만족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도덕률에 대하여는 불만족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불만족(不滿足)과 신(神)>

철인 플라톤은 인간을 정의하여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라고 하였고 미 여행가의 한 사람은 세계를 일주하고 돌아와 말하기를 ‘내가 군함과 대포없는 나라는 보았지만 신을 안 믿는 나라는 못 보았다’고 했다. 말틴루터는 ‘모든 인생은 참신이 아니면 거짓신을 가진다’고 했다.

옛말에 ‘새는 죽을 때가 되면 그 노래 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우면 마음이 착하다’ 즉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는 누구나 신을 찾게 된다는 말이다.

불인(佛人) 무신론자 발레이가 ‘대서양 한복판의 모진 풍랑 속에서는 유신론자가 되고 요행히도 무사히 육지에 상륙해서는 다시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한 말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다.

인생은 신으로부터 창조 받은 피조물이다. 현대인은 신으로부터 해방 받으려고 하나 실상은 다른 신

즉 물질과 향락과 권력의 우상에 포로가 되고 만다. 여기서 각성할 때에 이론적 실존이 되고 거기서 한 계급 더 올라가는 비약이 곧 종교적 실존이 되는 것이다.

<신(神)과 종교(宗教)>

종교란 말은 영어 Religion의 역어(譯語)이다. 이 말은 나전어(羅典語)에서 발달한 말인데 재결합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재결합이라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결합한다는 말이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인생은, 생명의 중심이며 본원이신 신에게서 분리되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어거스틴이 신을 떠나 시세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나전문학, 돈, 여자 등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헤매었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마침내 그는 다시 신계로 돌아올 때에 영혼의 안식과 위대한 성자(聖者)가 되어 가치 있는 생의 삶을 얻은 것이다.

불교에서 인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기독교에서는 인생에게 신성이 있다고 신앙한다.

수학에서 동 종류가 아니면 가감을 못하는 것과 같이 인생에게 신성이 아주 없다면 신과 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생은 본래 신에게 기원을 두었으므로 다시 신계로 귀일(歸一)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신과 인생 사이에 이 재결합을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중보자(中保者)라 하며 유일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교(宗教)와 신앙(信仰)>

신앙이라함은 시간적으로 미래의 것을 현재의 실상으로 여기는 것이요, 공간적으로 내면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을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현재화하며 영계(靈界)를 대상화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 정당한 신앙은, 이성적으로 성경 속에서 인격적인 산 예수를 발견하고, 감정적으로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自服)하며, 그의 의를 우리러 쳐다보고, 의지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선을 체득하며 인격적으로는 그를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다.

즉 신앙은 하나의 전통이나 교리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생활인 것이다. 건전한 신앙은 양면성을 가진다. 즉 신적이면서도 인간적이며 영구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이며 믿음이며 행위, 곧 생활인 것이다.

<신앙(信仰)과 생활(生活)>

열매없는 나무가 무가치하여 죽은 나무인 것과 같이 인간이 생활의 향상이 없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죽은 인생인 것이다.

내가 군내에서 많은 장병들을 대하는 가운데 그 중 신앙적인 변화를 가져온 몇 사람을 소개할까 한다.

얼마 전부터 나는 ○○장교와 친교를 갖게 되었다. 그는 불의의 중환으로 병원에 입상(臨床)하여 대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한 심지에서 고통과 번민 속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군목(軍牧)이 그를 방문하여 신앙으로 권고하고 저의 고통 중에 있는 육체와 혼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육체를 수술하는 것은 의사가 할 것이나 인간의 생사는 신(하나님)께 달렸더라’는 말을 들을 때 그는 현세 이외에 내세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우리를 주관하는 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얼마 후에 병환이 완치되어 갔다. 병과 같이 신앙심도 약생(藥生)하여 갔다. 그때부터 그의 생활은 180도의 방향전환을 가져왔다. 그의 방랑적인 생활은 술, 담배는 물론 쌍소리까지도 유명하였고 술로 인해 살림이나 자녀교육은 알 바가 아니었고 부부간이나 부자간의 애정도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와도 같은 가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부터 그는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었으며 과거 자기의 비정상적인 생활을 속죄하려는 것이었다.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던 부인이나 가족들도 열렬한 크리스천이 되었고 황무지 같은 가정에는 부활의 새봄이 오게 되었으며 생활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살림은 점점 질서가 잡히고 윤택해져서 화초밭 어장 젓양 등을 사양(飼養)하여 가계를 돕는 것이다. 그는 변화됨을 받아 성실근면하여 가족과 사회에 모범적 인물이 되었다. 과연 신혼부부의 가정인양 이상적인 가정을 이룩하여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공군의 나사로’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다. 과연 죽은 생활에서 생명있는 신앙을 역역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않고 권능(權能)에 있나니라!’

나는 또 ○○기지에 있는 ○○중사의 경우를 말하고 싶다. 그의 유아세례교인으로서 부모 형제를 북쪽에 두고 단신 월남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으나 그의 신앙은 독실하여 항상 만족하면서 기쁜 생활을 해 왔다. 그는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수필>
비행(飛行)의 꿈

이녕희(李寧熙)



폰텐벳리의 작품에 「태양속의 여인」이라는 단편이 있다. 맛있는 소설이다. 소형 자가용기로 하늘을 산책하는 어떤 비행기 애승가(愛乘家)(?)의 이야기다. 빛이 넘쳐 있는 대기의 끝에서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된다. 젊고 아름다운 그 여인도 소형 자가용기를 몰고 하늘 가로 산보 나온 것이다.

두 사람은 스피커를 통하여 말을 주고받으며 비행한다. 몽개구름이 치솟은 하늘이 복도, 빛이 충만한 하늘의 별판에서, 비행기 애승가의 마음은 여인에게 강하게 끌린다.

— 태양이 여인을 유혹하고, 여인이 나를 유혹했다.

<유혹>이라는 낱말이, 이렇게도 신선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다루어진 소설을 본 적이 없다. 무지개 빛깔의 운층, 보라빛깔의 우층(雨層)과 에메랄드 빛깔의 베일을 뚫고, 두 비행기는 하강하기 시작한다. 헤어지는 시간이 온 것이다. 비행기 애승가는 여인의 주소랑 캐어물으며 이번엔 땅 위에서 산책하자고 청한다. 그러나 여인은, 아버지를 핑계 삼아 거절한다.

— 땅 위에서의 산책은 위험해서 안 된다는군요.

가벼운 웃음소리를 남기며 여인의 비행기는 달아나 버리고 만다…….

전체 문장도 아름답거나, 착상이 재미있고 인상적이어서 잊혀지지 않는 소설의 하나다.

인간 로케트가 연달아 쏘아지는 요즘이지만, 이 같은 하늘 가에서의 산책이란 나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비행기라고 타 보기는 전후 두 차례 뿐이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 비행단 견학을 갔다가 얻어 타 본 고추잡자리 - 그 당시 군용 연습기를 두고 흔히 이렇게 불렀다. 모양이, 빨간 고추잡자리 같았던 탓이다. —

두 번째가, 서울 부산 간을 여객기로 왔다 갔다한 일이다.

여러 차례 타 보지 못해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 느낀 경이와 황홀감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칙닝쿨처럼 갈등에 얽혀 사는 세상사에서, 초연해지는 마음의 높이, 준엄한 자성의 공간, 비로소 부피가 마련되는 개념들, 하루에 한 번쯤,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같이 찬란한 고독의 주변을 누릴 수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질까 생각해 본다.

폰텐벳리는 「태양속의 여인」에서, 그 역설적인 감정을 교묘하게 잡아내고 있다. 대기 속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여인,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대기의 일부분이요, 고독의 대상일 따름이다.

—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인가? 현실의 발판 위에서 인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반문하고 싶어진다.

고독의 값어치를 목살하려는 자리에서, 늘상 환멸이란 빗어지기 마련이다. 폰텐벳리는 이 환멸을 거부함으로써 주인공을 현실에 참여하게 한다. 그야말로 비행기로 나르듯 멋들어진 이론의 비약이다.

‘난다’는 행위 또는 이 행위의 상징인 ‘날개’는 옛날부터 최상급의 형용사로 행세하여 왔다.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라고 하여 황홀감을 나타낸다. 남자들에겐 ‘돈이 날개’라고 하며 여자들에겐 ‘웃이 날개’라고 하여, 돈과 웃의 위력을 날개에 빗댄다. 꿈도 하늘을 나는 꿈을 꾸면 소원성취 내지는 최소한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고 일컬어진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으로는 능력의 우세함을 나는 것에

감당해 감으로써 언제나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아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그의 신앙은 점점 정화되고 깊어갔다. 그가 확고한 신앙에 섰을 때 신앙은 생명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몇천 환의 박봉으로써 교회는 물론, 빈곤과 기아에서 헤매이는 지방민(地方民)들을 위하여 봉사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중사는 적으나마 따뜻한 구조의 손을 펴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소박한 어린 생명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는 불타는 심정으로 군내복무의 여가와 소액의 봉급으로 불쌍한 학생 2, 3명에게 장학금(지방학교입으로 영가입)을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기지대장(基地隊長)을 위시한 여러 장교의 협력하에 지금은 9명의 중고등 학생이 공군장병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있다. 그 후 중사로 진급되어 봉급이 증액함에 따라 계속 군내와 민간인들에게 숨은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사의 봉급은 장학금과 기타 선한 사업으로 다 지불되다시피한다. 한 인간이라도 더 교육을 시켜 참다운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가목한 정신은 신이 주신 진리 위에 선 신앙인 것이다.

(필자(筆者)·군목실장(軍牧室長))

비긴다. 영어로 fly high(높이 난다)라 하면 대망을 품는다는 뜻으로 통한다.

이 몇 가지 사실만 보아도, 인간이 하늘 날기를 얼마나 희구(希求)하고 동경하여 왔는지 알 수가 있다. 이 희구와 동경의 원인인 비행 그 자체에도 있었겠지만, 하늘 즉 우주에 대한 신비감과 더할 나위 없는 정복욕에 있었을 것이다.

비행의 꿈을 채울 수 없었던 옛날 희랍사람들은 그들의 신화 가운데서 사랑의 신 큐피드에 날개를 달아 인간들의 꿈을 대행시켰다.

아름다운 청년신 큐피드는 어디든지 자유로이 날아가서는, 황금의 화살로 젊은 남녀의 가슴을 쏘아 사랑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습을 감추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는 큐피드는,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슈퍼맨이다.

미국에서, 만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에게는 물론, 어른들 간에도 흥미와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한 이 슈퍼맨이란, 불사신(不死身)의 초인간이요 정의의 쾌한(快漢)이다. 그는 자유로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악과 대결한다. 용감무쌍한 이 슈퍼맨의 희원(希願)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인 것이다.

큐피드의 옛날에서 슈퍼맨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은 끈덕지게도 날아다니는 꿈을 간직하여 온 셈이다.

그러나 이 날아다니는 꿈에는 반드시 선의가 따라 다니기 마련이었다. 비행행위를 신과 결부시킨 옛날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오늘날 악의의 비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겪은 공습으로 뼈에 사무치게 깨닫고 있는 것이다.

미, 소 양국에서 줄을 이어 인간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이 두 나라의 우주 간 경주에는 눈부시도록 집요한 감정이 서려 있다. 그것은 다만 양진용(兩陣容)의 정치적인 후광을 위해서 벌어지는 경주만은 아닌 상 싶다. 인류의 끊임없는 비행에의 꿈이, 경주의 바퀴에 어지러운 속도를 더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 경쟁에 휩쓸려 함께 들뜨고 싶지도 않지만, 애써 방관시킬 수도 없다. 다만 우리는 한 인간의 권리로서 이것만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이 끝내 선의의 비행, 인류의 오랜 꿈을 채워주는 비행이어야 한다는 일이다.

(필자(筆者)·「소년한국일보」(少年韓國日報) 편집부장(編輯部長))

동지애(同志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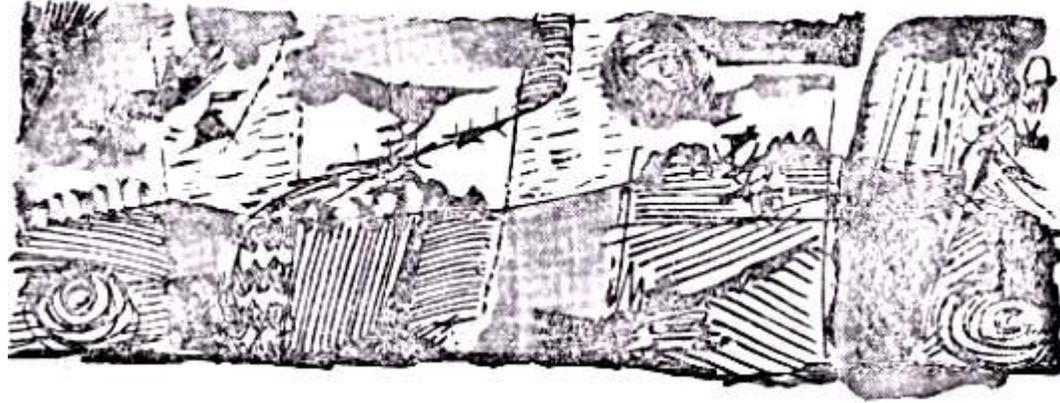
이경남(李敬南)



미국의 두 번째 우주인인 버질 그리섬 대위가 그 자신이 명명했다는 자유의 종 7호를 타고 지구 준궤도(準軌道)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카리브해의 예정된 장소에 낙하했을 때, 뜻하지 않는 사고로 해서 캡슐의 문이 열려 해수가 밀려들고, 따라서 그리섬 대위는 캡슐에서 뛰어나와 바닷물을 흠뻑 마시게 되고, 5백여만 불짜리 귀중한 캡슐은 바다 속으로 빠져버렸다는 그 극적 사고에 대한 보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때 느낀 여러 가지 충격 가운데서도 특히 나의 뇌리에 아직껏 생생한 것은, 그리섬 대위를 바닷물에서 구조해낸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활동과 또한 5백만 불짜리 캡슐을 건져 보려고 무진애를 쓰다가 마침내는 역부족으로 포기해 버린 역시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이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 관측의 자료가 담겨 있다는 그 캡슐을 무사히 건져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은 그 누구나 공통된 생각이겠지만 더욱이 그 아쉬움이 통절한 슬픔으로 느껴지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심정은 가히 추측되고도 남음이 있다.

캡슐이 건져졌다고 해도 그 캡슐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과학적 가치는 우주비행사 그리섬의 명예와 더불어 더욱 빛날 것이지 헬리콥터 조종사들에겐 뭐 특별한 명예가 돌아가는 일도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비탄에 가까울 아쉬움의 감정이란 영예와 훈장 따위의 공리를 떠난 순수한 감정이라는 데서 필자는 그들에 대해 더욱 측은한 느낌을 아니 품을 수가 없다. 헬리콥터 구조대의 말이 났으니 생각키우는 것은 우리들이 저 처절한 6·25 전란을 치를 때 수없이 목격한 UN군 헬리콥터 구조대원들의 눈물겹도록 웅망스러운 활약이었다. 공산군의 전략 전술적 요충들을 강타하기 위하여 출격했던 우군 비행기가 적의 지상 포화나 혹은 기관 고장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적지에 추락하고 그 비행사들이 요행히 파라슈트로 낙하했을 경우 그 우군(友軍)비행사를 적진 속에서 구출해 내기 위해 헬리콥터는 적의 각종 포화를 무릅쓰며 날아갔던 것이다. 만일 헬리콥터 구조대의 출동이 없었더라면 그 불행한 파일럿들은 적의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적지를 방황하다가 아사(餓死)할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 불행의 극지에 빠진 우군 비행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헬리콥터는



시(詩)

CUPIDO

김종문(金宗文)

오늘도 외줄기 줄을 탄다

두드러진 두 안구(眼球)가 공중에 뜨면서 하나가 되며 삼색(三色)이 아롱지는 하나의 「아드발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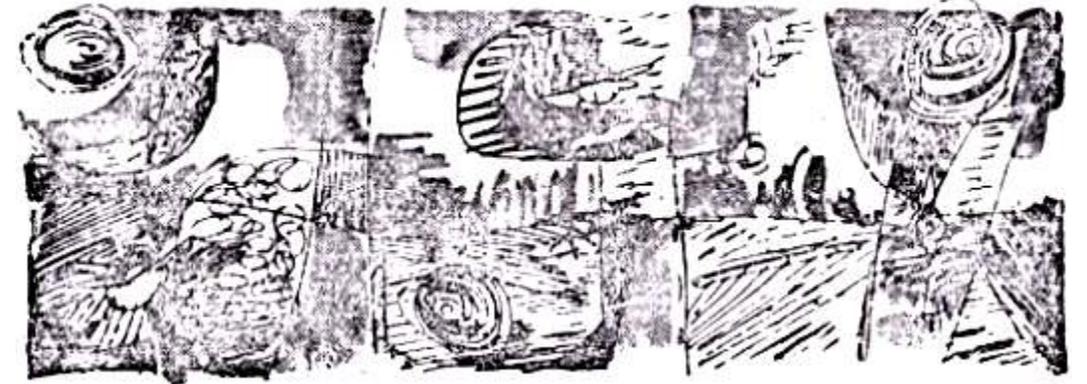
그것은 뇌실(腦室), 구름이 닿으면 터질 듯 아니 터질 듯 공중을 떠돈다.

날아가는 것인데 이들이야말로 적진을 강타하는 포격기, 전투기의 파일럿 못지않게 슬기롭고 헌신적이어서 했던 것이다. 특히 추락한 비행사와 그를 구조하려는 헬리콥터 조종사와의 관계처럼. 승고한 전우애와 뜨거운 휴머니티가 풍겨주는 감동적인 일도 드물 것이다.

생각을 더듬다 보니 이런 일이 회억(回憶)된다. 필자가 6·25 전란에 종군했을 때의 일이었다. 종군했다기보다는 참전했다고 해야 옳은 일이겠지만 그때 나는 현역군인은 아니고, 서해지구반공유격대(西海地區反共遊擊隊)의 한 부대 요원이었다.

우리들이 주둔하고 있던 곳은 상취나도(上吹螺島)였다. 5만분의 1 지도에서야 찾아볼 수 있는 이 무인도는 진남항(鎭南港)으로 들어가는 광양만의 한가운데 있는 전술적으로 봐서는 아주 요긴한 요충이었다. 우리 유격군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해서 공산 치하의 진남포항은 대소선박의 운항이 전적으로 제압당하고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평남(平南) 용강(龍岡) 일대의 적 해안포는 간단없이 우리 기지를 향해 포격을 가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 1952년 가을 어느날 - 우리 기지와 진남포항의 중간지점 상공에서 UN군 세이버Z기와 공산군 MIG-15 사이에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다. 맑게 개인 가을 하늘에서 멋들어지게 벌어진 이 공중전을 신나게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우리 세이버 Z기가 뿔뿔의 필살의 일격이 MIG-15에 명중되어 적기는 화염을 뿜으며 바다 속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땅에 박힌 채 먼지 묻은 얼굴들은 제각기 안구(眼球)속에 하늘이 있음을 모르기에 거기에 떠도는 「아드발룬」을 바라다보지 못한다.

무슨 소리라도 좋다. 그것은 「아드발룬」이 터지는 소리

뇌실(腦室)은 정체(正體)를 잃고 분산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어떤 조각은 월계수(月桂樹) 가지에서 푸른 단장을 하고 어떤 조각은 고원(高原) 중턱에서 양(羊)떼를 지키는 피리소리가 되고 어떤 조각은 땅 위에서 깃들 곳을 잃고 헤매이다—.

외줄기 줄에 걸리어 저울질되며 「아드발룬」과 해후(邂逅)하기 위하여 기(旗)를 내걸고 토파간다.

그런데 다음 순간, 추락하는 적기 속에서 뛰어내린 공산군 비행사의 낙하산이 활짝 퍼졌다. 바람은 남서쪽으로 살랑살랑 불어오고, 그 파라슈트는 바다 위로 서서히 밀려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

“발동선(發動船) 출격준비! 적 비행사를 생포하자!!”

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공작선의 발동이 걸렸다. 바람의 속도로 보아 적 비행사의 파라슈트는 필경 우리 기지에서 5백 야드 가량 되는 해상에 낙하할 것이 분명했다.

MIG 비행사를 생포한다는 이 절호의 찬스를 맞아 우리들의 가슴은 마냥 부풀고 긴장했었다.

바라보니 적 파라슈트는 육지에 낙하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이 역력하였다. 하늘에는 여전히 피아(彼我) Z기가 화려한 백선 비행운을 그리며 가을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고공에서 직하비행 해 온 적 MIG 2대가 닭을 쫓는 매처럼 달려들더니만 자기들의 동료인 그 파라슈트를 향해 미친 듯이 기총소사(機銃掃射)를 해대는 것이었다. 적군 파라슈트는 순식간에 불덩어리가 되었고, MIG 조종사는 일전 직하 바닷물 속에 곤두박질해 떨어져 버렸다. 그뿐만 아니었다. 동료 낙하산에 기총소사를 퍼부은 그 공산 Z기는 다시 한번 하늘을 선회하더니만 그 동료가 빠져버린 바다의 포말(泡沫)을 향해 또 치명탄을 쏘아대는 것이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의 그 비정의 논리를 역력히 목도한 우리들은 요즘도 가끔 그 일을 회고하면서 야릇한 웃음을 머금은 때가 있다.

(필자(筆者)·신태양사(新太陽社) 편집장(編輯長))

미국(美國)의 활공폭탄(滑空爆彈)

1943년 중엽 미국의 보잉B-17 54대가 독일의 케룬을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폭격에 관해서 독일의 어느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국 폭격기에 의한 케룬 폭격은 도시를 수비하는 아방(我方)의 맹렬한 대공포화로 격퇴되었다. 그러나 두 개의 수직미익(垂直尾翼)을 가진 고속 엄호(嚴護)전투기 한 대가 저공으로 침입해 왔다.

그리하여 우리 방공진(防空陣)의 활약으로 전기(全機) 격퇴하였으나 추락된 비행기가 모두 크게 폭발하여 우리 쪽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틀리는 이야기였다. 독일이 참말로 그렇게 믿고 이와같은 보도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때 미국은 B-17 폭격기에 두 개씩 GBI이라는 활공폭탄을 적재하였던 것이다.

이 GBI의 주익폭(主翼幅)은 3.6미터이며 두 개의 수직미익을 가지고 있고 32키로미터의 사정거리를 자동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목표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B-17은 목표지인 케룬 지역에 돌입하기 전에 미리 이 GBI를 발사하고 나서 그곳을 피하였다. 즉 맹렬한 대공포화로 전부 격퇴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반전해서 돌아간 것이었다. 이리하여 GBI은 케룬 시가지지를 향해서 격추 여부 없이 그대로 지상에 낙하하여 108개의 활공폭탄은 전부 폭발한 것이다.

미국에서 최초로 실전용이 된 것은 이손이라는 것과 라손이라고 하는 무추진공대지(無推進空對地) 미사일이다. 이손으로 말하면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명명한 것이며 라손은 사정과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손의 발사 중량은 450kg인데 미부(尾部)에 불이 커지도록 되어 있고 무선수신기와 유도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폭격수는 미부의 불빛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무전으로 원격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 눈부신 활약을 한 것은 버마전선이었다. 110발의 이손이 좁은 철교들을 향해서 낙하되어 맹렬한 대공포화 가운데서도 35발이 직격으로 명중함으로써 열다섯 개의 다리가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미해군에도 밧드라는 미사일이 있었는데 길이가 3.6m 날개의 폭이 3m 되는 활공폭탄이었다. 이것은 레이더를 사용해서 호우밍으로 목표에 향하도록끔 설계되어 있었다. 발사 전에 레이더의 발신기와 수신기가 목표에 고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군함을 목표로 할 때는 상당히 유효한 것이었다.

물론 이 당시의 미사일은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할 때 신뢰성이 적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당시 실험장 부근에는 폭탄투하용 실험장보다도 훨씬 넓은 위험구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다.

폭격기라면 설사 목표 조준을 그르쳤다 하더라도 발사된 다음에는 자연히 탄도를 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방향이 틀리는 경우는 없으나 유도미사일로는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뛰니 뛰니 해도 제2차대전을 통한 미사일의 화제는 독일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로켓 발전에 관해서 우리들이 최초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1929년 대에 상영된 ‘월세계(月世界)의 여인’이라는 영화였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월세계로 향하는 로켓 계획에 여성 한 사람이 긴 탐험대가 참가한다. 여러 가지 의구(疑懼)와 불안으로 달세계에 도착한 후 대원들의 단결이 깨어져 몇몇 사람이 죽었는데 귀국 직전 산소장치가 파괴되어 오직 한 사람 밖에는 남을 수가 없게 되어 영화의 주인공은 자기가 남을 결실을 한다. 그리하여 로켓을 보내고 나서 동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를 여자도 몰래 로켓에서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달나라 사막 위에서 뜨거운 포옹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 줄거리인데 이 영화



제작에 있어서 로켓에 관한 부분은 헬마 오베르트가 협력한 것이다. 오베르트는 전호(前號)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 액체연료 로켓을 최초로 개척한 사람이다. ‘월세계의 여인’에서는 오베르트는 로켓 발사 부분을 담당할 계획이었는데 실험 중에 엔진이 폭발하여 그 부분은 영화화되지 못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그는 액체연료 로켓의 엔진을 완성하였다. 그것을 헬나 폰 브라운이 이어받아 V2호로서 결실을 본 것이다.

A1에서 A4까지

발틱해의 1소만(小灣) -스텝신만- 입구에 우제톱이라는 섬이 있었다. 이 섬 한 귀퉁이에 페네퓌디라는 적막한 한 어촌이 있어 다른 마을들이 여름이 되면 굉장히 번창하는데 이곳은 변함없는 한촌(寒村)이었다. 여기에 1937년 독일 육군의 로켓 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전에는 미사일 연구를 백림(伯林) 교외에 있는 쿤마스도르프 연구소에서 하였는데 그 최초의 것으로는 AGGREGATE 1 즉 조립 1호라는 것으로 A1로 약칭되었다. 1933년 일단 완성을 보아 시험대 위에서의 실험을 거쳐 A2 계획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1934년에 완성하였다. 이 로켓은 북해 불콰드에서의 발사실험에서 약 2,000m 상공에 달하였는데 여기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나는 로켓 연구비의 증액이며 다른 하나는 실험의 안전과 비밀을 유지할 수가 있는 실험장의 필요성이었다. 여기서 선택된 곳이 페네퓌디였다. 이리하여 헬나 폰 부라운도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실험연구는 A3을 거쳐 A4의 단계로 들어섰다. 도중에 히틀러의 의견으로 경비식감 같은 난관에 봉착하면서도 A4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1940년에는 A4의 완성으로 해서 독일 각 방면에서 페네퓌디에 모여든 과학기술자들은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1942년 8월 13일과 16일에 있었던 두 번의 A4 시사(試射)는 실패로 돌아가고 10월 3일에 있었던 세 번째 발사에서 비로소 실험은 성공하였다. 이때 A4는 로켓 분사(噴射)의 굉음과 함께 서서히 지상을 떠나 점차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A4는 약 1분 만에 연소가 끝난 후에도 상승을 계속하여 최고고도까지 달하였다. 고도 87km에 달하였을 때 안정판이 고장이 나서 머리를 위로 둔 채 강하하다가 그 후 대기층에 이르러 머리를 수그린 채 바다로 낙하하였다. 이와는 별다른 시험에서 A4의 사정(射程)이 약 300km에 달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1936년 독일 육군이 요구한 로켓 성능은 1톤의 폭탄을 탑재하고 발사중량 12t, 추력30t, 사정 240km였다. 그런데 A4는 바로 이 요구에 응할만한 것으로 등장한 것이다.

A4는 전장 14m 직경은 1.66m, 자체중량 3t, 폭약중량 1t, 연료 3.8t, 액체산소 5t, 발사중량 13t, 추력 26t, 연소시간은 65초라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A4에 다시 불행한 날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히틀러가 A4로는 영국 본토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는 꿈을 꾸는 것이다. 이리하여 A4는 다시금 다량생산의 일보 직전에서 멈추게 되었다.

수호정신(守護精神)

이선우(李先雨)



‘희랍은 미로 망하고 인도는 철학과 종교 때문에 망한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 미의 창조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것처럼 위대한 죽음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정신을 부정하는 예술가로부터 뛰어난 작품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한 민족이 위대한 문화를 보유했 리 만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은 미의 창조만을 알고 이왕의 것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수호정신!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문명인의 태도가 아닐까 한다.

생명을 바쳐 싸우며 수호하려는 자는 무엇인가 그 가슴 속에 숭고한 미를 간직하고 있다.

— 조국에의 사랑, 가정에의 사랑, 민족문화에 대한 꿈이 수 없는 애착심 - 이러한 것이 깰지어 있다.

혁명 전 자유당이나 민주당 위정자들은 흡사 희랍인들이 지켜야 할 그들의 예술, 그들의 철학, 그들의 학술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이민족에게 매각한 것처럼 민족 고유의 갖가지 미를 사육을 위해 투기했다.

수호정신에 투철한 군인이 그대로 방관하고만 있겠는가!

우리들이 막대한 장비와 병력으로서 수호하려는 것은 자유당이나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갖는 일체의 미, 존엄한 국제인 것이다. 위대한신 어머니이며 그리운 처자식이고 찬란한 민족문화인 것이다.

모두가 따스한 촉감을 느끼게 하는 유순한 것들이다.

조개 껍질이 탄탄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연약하고도 귀중한 것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나는 언제나 우리 비행단이 이 조개껍질처럼 탄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그 젊은 조종사가 남겨 놓은 폭음의 파장을 자질한다.

(筆者·11전비정훈관(戰備政訓官))



솔선수범(率先垂範)

주영복(周永福)



큰 일은 사소한 단초를 갖는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전야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미명(美名) 아래 누적되어왔던 부패와 부정은 비단 정치, 경제, 외교 등 외적인 대공(對共)투쟁의 약화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국민 각자의 정신면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타락이 완시켜 놓았던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하에 있어서는 국민으로서의 권리향유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의무에 대한 충실성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보아 혁명과업 완수의 길은 우선(爲先) 국가대계(國家大計)를 위해 단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국민 각자의 정신혁명이라 생각한다.

군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혁명주체로서의 우리들 군인은 솔선 혁명공약 실천에 수범하여 국민 정신을 선도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혁명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우리의 일상생활…… 바로 우리들 주변의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군 풍기(風紀)를 엄정히 하라, 시간관념을 철저히 하라, 절전 절수에 협력하라, 낭비와 외래사치품 사용을 삼가라 등등 모두가 우리들 일상생활에 관한 일들로서 나는 휘하 장병에게 누차 이를 호소하였고 또 솔선 이행하였다.

혁명 전에도 그러했지만 혁명 후에 있어서 더욱이 출동시간을 엄수하고 매일 같이 아침 체조에 앞장서 나간다는 것 등 맹목적인 일과의 이행이 아니라 의무를 솔선수범하고 난 다음의 쾌감을 전례없이 향유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정신혁명을 가져다 주는 동기가 아닐까.

혁명과업 수행 도상(途上)에 있어서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군인의 솔선수범은 새로이 부하된 하나의 귀중한 의무인 것이다.

Kant는 행위구분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는 행위와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소위 의무감에서 발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 둘은 모두 그 외적결과에 있어서 동일하나 내적신념 즉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판이한 것이라고 했다. 전자의 행위가 의무에 따른 강제적이며 타

율적인데 반하여 후자는 자발적인 의무에서 나온 자율적 행위라고 하겠다.

우리의 솔선수범이 바로 이 자율적 행위로 이루어질 때 근본적인 정신혁명은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筆者)·제11전비단장(戰飛團長))

1943년 7월 7일 도른펠가 소장과 폰 브라운은 히틀러를 방문하고 A4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하고 겨우 생산 해도 좋다는 양해를 얻었다. 그런데 그 직후 8월 16일에 영국장거리폭격기 600대에 의한 폭격으로 연구시설이 파괴되는 운명에 봉착하였다.

V1호(號)의 런던공격(攻擊)

결국 독일의 장거리 미사일로서는 비행기형의 V1호가 먼저 실용화되었는데 그 V1호에 의한 런던 폭격의 최초의 광경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1944년 6월 12일 밤 도바해협을 방공전투기 모스키프로 초계(哨戒)하고 있던 영국공군의 마스구레이브 중위는 카레 쪽에서 불덩어리가 날라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속도는 모스키프와 거의 같고 모스키프의 우측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때 마스구레이브 중위는 반전해서 그것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기총으로 3발을 속사(速射)하였다. 총탄에 명중된 불덩어리는 대음향과 함께 폭발하여 바다에 떨어졌다.

그 다음날인 13일에 날도 아직 밝지 않은 오전 4시 초계기에 의해서 도중에 방해받지 않은 불덩어리는 수평비행으로 런던상공에 이르러 굉장한 폭음으로 런던시민을 깨우고 그대로 급강하하여 스완스콕이라는 일각에서 폭발하였다. 이것이 V1호의 런던 공습 제1호였던 것이다.

6월 21일에는 런던에 1,000발체의 V1호가 발사되고, 6월 26일에는 2,000발이 되고, 7월 8일에는 하루 사이에 820발이나 발사되었다.

V1호라는 것은 추진방식은 파루스 제트 즉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제트 추진방식으로서 매초에 47회씩 진동판이 단히고 열리고 하였다. 그럴때마다 크게 폭음이 들리기 때문에 BUZZ BOMB이라고 불리웠다.

V라는 것은 Vergeltungs Waffe 즉 보복병기의 약칭인 것이다. V1호의 정식 명칭은 FZG67이었다.

V1호의 연구는 1942년 초기에 페네문다섬에 있는 공군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인기로서의 비행 컨트롤과 정확한 발사제어 같은 것이었다. 한때는 사람을 탑승시킨 시험도 있었다.

1942년 12월 24일에는 최초의 무인기 V1이 발사되었다. 그때로부터 1년여의 연구개발을 거쳐 양산이 시작된 것이다.

V1호는 상술한 바와 같이 파루스 제트추진 중익단엽(中翼單葉)의 비행기 모양의 미사일이었다. 익폭(翼幅)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 적은 것은 4.9m, 큰 것은 9m나 되었다. 전장(全長)은 7.7m, 폭약은 700kg, 연료는 저급 가솔린으로 총중량은 2.2t 이었다. 목표까지의 유도에는 지측항법(地測航法)이 취해졌다. 자이로로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고도계 자기컴퍼스 등으로 정해진 고도와방향을 취하게 하고 공정의(空程儀)로서 사정을 제어하였다. 공정의는 기체 비행에 따라 조그만 프로펠러가 돌아 그것을 계수기로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정회수만큼 신호가 들어오면 목표상공에 도달한 것이 되어서 그때 승강타(昇降舵)가 급강하의 위치로 고정되어 V1

호는 급강하로 들어간다는 원리로 되어있었다.

이 V1호의 속도는 매시 500-600km, 비행고도는 900-1,500이라는 저공으로 최대사정이 250km 정도였다.

비행고도가 낮은 것과 속도가 느린데서 V1호에 대한 대책은 비교적 간단하였다.

영국은 템페스트, 스피트 화이어, 무스탕, 모스키프 같은 것을 모아서 편성한 16중대의 방공전투대를 제1선에 배치하고 해안에는 2200의 대공화기를 배치하였으며 런던 주변에는 약 2,000개의 조색기구(阻塞氣球)를 띄웠다. 이것들은 모두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아무래도 비행고도는 낮고 속도는 느리며 거기에서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 피할 줄을 모르는 형편이고 보니 제대로 대책만 강구한다면 그다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리하여 조색기구는 239발의 V1호를 떨어뜨렸으며 전투전도 1,847발의 V1호를 격추하였다.

최후에는 북프랑스에 상륙한 연합군이 V1호 발사기지의 대부분을 점령하여 발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는데 그때까지 8,070발의 V1호가 프랑스 점령지역 해안에서 영국 동남부를 향해서 발사되었는데 약 반수(半數) 가량이 도중에서 격추되었으며 도중에 고장이 나서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런던에 도달한 것은 약 3분의 1 정도였다. 이 V1호로 해서 런던이 입은 피해는 죽은 사람 5,500명, 건물도괴(倒壞) 23,000을 헤아렸다. 이런 가운데 런던은 다시금 평정한 상태가 찾아온 것 같았다. 9월 7일 영국 정부는 V1호의 기지가 대부분 점령되고 불안은 제거되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때 독일은 A4 즉 V2호의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V2호(號)의 공포(恐怖)

V2호가 처음으로 런던에 발사된 것은 공교롭게도 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이었다.

9월 8일 오후 6시 40분 하늘에 검붉은 불덩어리가 나타나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하여 치즈위크 지구에 낙하하여 수십 호의 건물이 날아가 버렸다. 이것이 V2호에 의한 런던 공격의 시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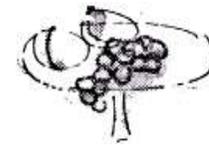
V2호의 속도는 음속의 약 3배나 되고 더구나 고도 916km의 대기권 밖에서 공격을 가해오기 때문에 V1호에 대처했던 방어법을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유일의 방어책은 V2호의 발사지거나 제조공장을 공격하여 V2호를 발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뿐이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독일의 연구소나 공장 또는 조립공장 등에 대한 반복폭격, V2호 발사지점의 폭격, 그리고 발사지점에 이르는 수송로 파괴, 발사지점이나 집적지(集積地)에 있는 V2호 파괴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뿐 아니라 V2호 부대 장교들이 들고 있는 호텔도 소사(掃射)하는 등 철저히 했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V2호를 하루쓰산에 있는 노루도하우젠 근교의 폐갱(廢坑)이 된 암감갱(岩監坑)에 공장을 설치하고

어느 파일럿의 편지(便紙)에서

K.S.K



김하사, 오늘도 폭염이 여전하구려. 모처럼 만에 해변에 나와서 소금 내음나는 바닷물의 짙짙한 훈기(薰氣)를 맡으니 사뭇 더위가 덜어지는 것 같소이다. 이마에 구슬 땀방울을 푹푹 흘리며 유달리 더위를 잘 참는 S 중사도 오늘같은 염제(炎帝)의 노여움엔 언간히 당해 내기가 힘들었겠는데 기체 밑에서 흠뻑 땀투성이가 된 모습이 눈에 선하오.

근 1년 만에 찾은 고향이고 보니 휴가라고는 하나 처음 4, 5일은 일가 대소가에 인사 다니느라고 눈코 뜰 사이가 없었고, 더군다나 나이 찬 큰아들에게 만며느리감 맞선 빈

다고 동분서주하시는 어머님 덕분에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력저력 소일하여서 내려오는 길로 즉시 정비반으로 편지라도 띄운다는 심사가 어긋나고 말았소이다.

오늘은 오전 중을 읍내에 있는 모교엔 들러서 교편을 잡고 있는 옛 학우들과 오랜만의 담소로 보내고, 마을 너머 있는 갯가에 나와서 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이요. 아득한 수평선이 마치 활주로와 연결된 듯한 착각이 드는데 거기같이 복사열(輻射熱)이 없는 것 뿐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군. 그리고 귀 찢어지는 엔진 소리와 이 착륙의 폭음 소리가 이렇게 조용한 갯가에도 귓전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으니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린 실직자처럼 공연히 한가한 생각에 흥이 돋질 않는구먼. 짜장 내가 먼저 이렇게 휴가를 왔다고 해서 남아 있는 동료들이나 정비반원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여겨져서가 아니라 웬일인지 내가 너무나 조용한 교육 속에 있기에 불현듯 잠음들이 그리워졌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되오.

내가 떠날 때까지도 채 끝내지 못하였던 새로 들어온 기술도서들은 한 번 다 훑어봤는지 궁금하군. 이 더위에 라인에 나가라 일과후에 내무생활하라 겨울이 좀처럼 나질 않겠지만, 우리가 남의 손에서 만들어진 기계를 타고, 만지고, 고치는 이상 조작이나 보수의 세밀한 방법까지도 완전히 체득하여야만 되지 않겠소?

김하사!

내가 지금 이렇게



지하공장에서 생산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공장은 두 개의 터널로 만들어져 있어 그것들은 각기 약 270m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연결하는 통로도 소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A4의 1일 최대 생산량은 13발이 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은 그렇고 V2호와 싸워서 이겼다. 런던에 대한 마지막 V2호 공격일은 1945년 3월 27일이었다. V2호는 그때까지 6,916발이 생산되었다. 런던을 목표로 하여 발사된 것이 1,120발이며 그밖에 2,500발은 유럽 대륙 내 여러 목표지에 퍼부어졌다.

런던에 퍼부어진 1,120발 가운데 1,050발이 런던시 내외에 떨어졌다고 한다. 발사되고 나머지는 훈련용이라던가 실험연구용으로 쓰여졌다. V2호에 의한 피해는 죽은 사람이 2,000명 이상이고 중상자가 6,000명 이상, 건물 파괴는 수만을 헤아렸다고 한다.

개발(開發)된 각종(各種)미사일

페네문디에도 연합군의 공격이 심해졌다. 1945년 1월 초순에 이르러 페네문디 연구소에 퇴피(退避)명령이 내려졌다. 도른벨가 소장과 폰 브라운은 연합군 측에서 중전을 맞을 결심을 하고 4월 하순경 서방으로 이동하여 바리리아의 오벨요호에서 미군에 투항하였다. 미군은 종전과 더불어 약 100발의 V2호의 부분품을 얻어 본국으로 보내어 제네럴 엘렉트릭 회사에서 조립하였다. 그리고 폰 브라운도 미국으로 건너가 이 작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이때 소련도 역시 수많은 독일의 미사일 기술을 반출해 갔다. 그런데 그때 가져간 것은 V1, V2의 기술뿐 아니라 미사일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그때 독일은 이미 각종 미사일 즉 지대공(地對空) 혹은 공대공(空對空), 공대지(空對地) 또는 다단식 로켓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2차대전 중에 사용한 미사일도 V1, V2만은 아니었다.

1943년 9월 14일 이탈리아의 최심 전함으로서 35,000t이나 되는 로마호가 불과 한 대의 도루니에 DO217 폭격기에 의한 고도 6,400m에서의 직격탄에 맞아 격침된 것도 이 폭탄이 헨셀 HS293이라는 활공(滑空)유도미사일이었기 때문이다.

왓사팔이라는 지상에서 항공기를 향해서 쏘는 지대공 미사일도 있었다. 연합군의 대독(對獨) 폭격이 치열해짐에 따라 공격 병기로서의 미사일 뿐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도 급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독일로서는 재빨리 40종 이상이나 되는 대공미사일도 계획하였다. 그중에서 실용 가치가 있었던 것은 네 가지 뿐이었는데 엔제안, 슈멧테루링, 라인트호타, 왓사팔이 그것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이 왓사팔이었는데 소형의 V2호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들도 모두가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에서 개화(開花)를 보게 된 것이며 페네문디는 다시금 옛날과 같이 조용한 어촌으로 돌아갔다. <차호(次號)에 계속>

바닷가이라도 나와 있다니까 어디 무슨 동리의 어여쁜 처녀라도 같이 말동무가 있을 것이라고, 숙단은 절대 금물이요, 오래 살아 내려온 마을의 소문도 소문이라니와 어릴 때 소꿉친구 계집애들은 이미 다 남의 주부가 된 지 옛일이고, 요새같이 바쁜 때가 사철 중 다시 없는 이 고장이라서 한가한 그런 꿈은 아예 어렵도 없는 일들인 것이요, 농사나 밭일도 일러러니와 수년래 이 고장 갯마을에는 풍어기(豐漁期)가 와서 아낙네들까지 총동원되다시피 하오, 하루에 한 차례씩 밖에 안 다니던 해안 연락선도 두어 번씩 들리게 되고, 선창가에는 제법 푸짐한 안주를 장만하고 내왕(來往)손들을 유혹하고 있는 술집들이 생겨나서 주름 잡혔던 이 고장 어부들의 얼굴에 자못 생기가 도는 것 같소이다. 어서 이 조그마한 갯가의 고장이나마 신흥어촌으로서 발전되어 가난한 우리의 농어민들이 기를 펴고 재건에 나서야 하지 않겠소. 어제도 아마 서울에서 학생 계몽대가 와서 새 소식과 더불어 새로운 힘들을 복돋아 주어 이 고장 사람들에게 적잖이들 산다는 의욕에 힘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요.

다시 내 마음은 자꾸 우리 비행단의 라인 쪽으로 내키고 있다는 것을 감추지 못하겠구려. 제3편대의 R중위의 얼굴, 항상 좌중을 웃기는 P대위 그리고 늘 낙천가이신 K대대장님들의 모습들이 보고 싶어지는데, 인간은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게 마련인가 느껴지오, 그런데 왜 이 우리의 인간사회는 늘 무모한 경쟁의식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으면서 살아나가는 것인지 알고도 모를 일이라고 여겨지오.

김하사
이렇게 무더운 노염(老炎) 중이고 보니 어서 겨울을 계절을 실어다 주는 산들바람에 묻혀서 뒤편이 그 너머에다 심어 놓은 코스모스들이 어서 피어나길 기다려나 보는 기대 속에서 피서할 자위(自慰)라도 가져보구려. 소련의 인공위성 보스도크 제2호가 지구의 열너덧 바퀴를 돌아서 인류의 대기권 비행능력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더라도 뱃속 검은 후루시초프의 능글맞은 수작이 무슨 선전홍계를 꾸밀런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들이 할 일이 따로 있으니 오불관연(吾不關焉)이라 김하사 자네는 우리의 애기(愛機)를 닦고 나사를 조이고, 나는 하루하루의 미션을 멋지게 해치워 버리는 것만이 우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아니겠는가. 드높고 맑은 하늘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꿈과 이상이 영겨진 독무대가 있기에 마치 우리들은 하루의 수확을 만재(滿載)하고 귀향하는 고깃배처럼 한결 즐겁고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김하사
이때쯤 해선 해가 넘어가고 라인에는 하루의 마지막 더위가 푹푹 쩌 올라오겠지만 캐노피 커버를 덮고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하루 비행을 끝내고 워커 끈을 풀고 있는 공지(空地)의 젊은이들의 등 위에는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서 가고 있지 않겠는가. 내일에 대한 우리들의 설계가 우리들 모두의 가슴속에 아롱 새겨 그려지면서 저 구름 속을, 높푸른 창공을, 갈대밭 너머의 저 활주로 끝을 우리들은 마냥 달리고 있지 않는가. 대대의 여러 장교님들과 정비반 여러 엔지니어들에게 안부를 부탁하면서 붓을 놓겠소.

(필자(筆者)· 공군대위(空軍大尉))

요세미트의 폭포(瀑布)

그러면 다음의 경이순례(驚異巡禮)는 어디로 할까?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워싱턴주에는 레니어산(해발 4,370m인데 189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이 있다.

이 산은 한편쪽에는 여러 갈래의 빙하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고산식물의 꽃이 피는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명산의 하나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코이아 공원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목(巨木)의 삼림이 있다. 이 나무들은 모두가 높이 90m 이상이나 되며 3천 년이나 묵은 것들이다.

그러나 태평양 연안의 경이 가운데는 아무래도 요세미트 협곡이 제일일 것이다. 요세미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20km 밖에는 안 떨어져 있다.

백인들은 1851년, 즉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10년 전까지는 아무도 요세미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이 협곡은 세라 네바다산맥의 심장부에 감추어져 있어 그 비밀은 산정(山頂)이나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알고 있었다. 수 세기 동안이나 그들은 1.6km나 되는 벽처럼 솟아 있는 단애(斷崖)에서 전혀 속세와 격리된 이 신비로운 협곡에서 생활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태평한 생활도 1851년에 이르러 중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이보다 2년 전인 184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금광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어 이제까지의 직업들을 버리고 우거(牛車)나 포장마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여 너도나도 황금을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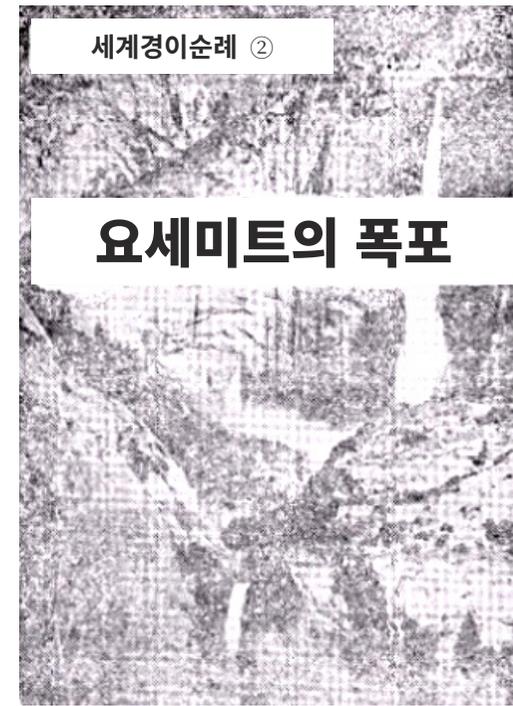
이 사람들은 제자신들만을 생각하여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행복이나 생활 같은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그들을 학대하였으며 조수(鳥獸)를 살육하고 어류를 전멸시켜 버렸다. 인디언들은 백인들과 싸워서 패할라치면 야음(夜陰)을 타서 백인들을 기습하여 학살하는 한편 통나무로 지은 오두막집에 불을 지르곤 산 속 깊이 도망치곤 하였다.

이러한 인디언들을 풀려주기 위해서 1851년 3월 제임스 사베이지 소령 지휘하에 백인 의용대가 조직되어 눈에 덮인 좁은 길을 따라 진격을 개시하였다. 이 길로 말하면 적지로 통하는 길로서 이제까지 백인은 누구하나 가본 일이 없는 곳이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깊은 삼림 속을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었는데 돌연 단애절벽에 부딪혔던 것이다. 사베이지 소령은 부대 선두에 있었는데 이 거창한 단애를 바라보는 사이에 인디언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삼림이나 수초지(收草地)로 뒤덮여 있으며 아무리 적은 나무라도 생겨날 여지가 없을 만큼 반들반들하게 치솟아 있고 몇백 미터나 되는 탐과 같이 생긴 바위나 단애로 둘러싸인 산속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계곡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까지 누구도 보지 못하였을 만큼 큰 폭포가 절벽 꼭대기에서 계곡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베이지 소령이 서 있는 옆을 흐르고 있는 강물은 분류(奔流)가 되어 단애 끝으로 흘러 가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네댓 개 합친 것만한 높은 폭포가 되어 180m나 되는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었다. 폭포수는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 자욱한 안개로 변하여 아래에 있는 암석에 흰 장막이 펼쳐지니 이와 같은 장관이 ‘신부의 베일’이라는 별명을 갖게 하였다.

소령은 부하를 거느리고 급한 걸음으로 험한 소로(小路)를 내려와 계곡의 바닥까지 가서 회색으로 물들여진 대안(對岸)의 화강암 층암절벽



세계경이순례 ②

요세미트의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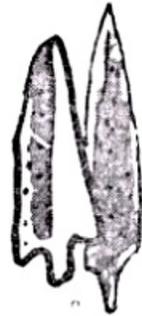
10월(月)9일(日). 한글날

한글의 우수성

—과학적(科學的)인 관찰(觀察)에서—
이승녕(李崇寧)

1.서(序)

국어나 한글을 평가하는 태도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 기미운동 즉후(卽後)는 독립운동과 함께 한국의 것이면 무조건 우수한 것으로 유도하는 태도가 대체며 그것이 국민의 사기를 돋우고 애국심에 불을 지르는 구실도 한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도 계몽에 있어서 세계제일이 아니면 배달민족의 우수를 부르짖었고 열광적인 애국심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했기로서 지금 보면 지나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물론 이것은 그 시대성에서 잘 이해가 되며 식민지 생활의 국민의 열등의식을 씻어주는 방법으로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오늘날 20세기 후반기에 더구나 우주과학시대나 하는 이 마당에서 과학성을 잃은 감정론에서 일을 해석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이미 시대가 허용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에 자란 학자나 그 시대의 사고법을 지니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아직 구체대적 사고법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어나 한글 문제에 관한 한 다른 어떠한 부문보다도 더 한층 비과학적인 것을



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900m나 되는 높이였으며 표면은 번들번들하여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이 절벽은 거창하게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대장(隊長)'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때 계곡 위쪽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흡사히 대포를 쏘는 소리와 같았다. 이 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사람의 척후(斥候)를 내보냈다. 그들은 나무 사이를 주의 깊게 헤쳐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였던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참으로 거창한 폭포였던 것이다. 그들 머리 위 실로 780m 높이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여러분은 나이아가라의 16배나 높은 폭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창한 폭포가 어디 있겠느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베이지 소령도 그때 부하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진실한 사실이었다. 사베이지 소령은 얼굴에 물거품을 뒤집어 쓰면서 물소리를 듣고 바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상최고의 가장 장대한 폭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 폭포에 가까이 다가서 있던 관계로 그들은 이 놀라운 폭포가 1단만으로 낙하하고 있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한참 만에야 그것은 3단으로 되어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제1단 폭포는 450m나 되는 것으로 '신부의 베일'이라 불리는 폭포를 둘 합친 것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제2단은 240m, 제3단은 노도(怒濤)와도 같이 급류로 되어 90m 높이에서 낙하하고 있다.

탐험가들은 이들 폭포에 경탄하면서 더욱 비경 깊숙이 찾아 들어갔다. 그때 유달리 하늘 높이 솟은 산정이 보였다. 산정은 거의 1.6km나 되며 깎아 세운듯한 암산(岩山)으로 돔(Dome) —둥근 지붕—을 반으로 쪼갠 것 같은 모양을 하고 담벼락처럼 솟아 있는 측면은 계곡 쪽으로 향해 있었다. 병사들 가운데는 이 기묘한 반원형의 산이 폭포보다 더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밤이 되어도 일행은 한 사람의 인디언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다시 네 개의 또 다른 폭포를 발견하였다. 모두가 90m에서 180m의 높이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굽기가 9m나 되는 노수(老樹)도 발견하였다. 그들은 자연의 신이 만든 비밀의 보고(寶庫) 요세미트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비할 데 없이 멋있는 협곡을 이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오늘날에 와서도 그 전부를 볼 수가 있다. 나무나 돌이나 그밖에 모든 것이 거의 그 당시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 × ×

이 유명한 협곡을 찾아 들어가려면 먼저 좁은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거기에는 수위가 있어 우리들을 일단 제지하고 고양이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일찍이 이런 사고법의 전환을 주장한 것인데 여기 한글을 중심으로 그 일단을 펴려 한다.

2. 훈민정음(訓民正音)과 세종대왕(世宗大王)

전일에 세종대왕이 무슨 이유 또는 동기로 훈민정음을 제정했는가에 여러 구구한 추측이 있었다. (a) '민족적 자각으로 문화적으로 중국지배에서 독립하려고 한 것'이라고 이것이 가장 강조되고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측은 당연한 반면 너무도 막연하고 훈민정음제정과 구체적인 연결을 마련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b) '외국인의 내조(來朝)로 외국문자가 있음을 알고 그의 자극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것은 더구나 곤란한 추측이다. 세종 이전에 외국문자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새삼스레 세종시대의 외국문자 운운은 너무나 불합리한 이야기이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제정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다음에 일일이 예시해 보겠다.

(1) 세종대왕은 문화 또는 학문에 이해가 깊은 왕으로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 중 지금의 아카데미랄 집현전의 제도를 확장하고 수재를 모아 학사로 만들고 다시 없이 활약시킨 것이어서 연구업적의 발표와 저작물의 출판 등 또는 연구생활의 물적 후원 등 현대적인 문화시책을 이미 5백년 전에 실천한 놀라운 명군(名君)이었다. 그리하여 만사는 여기서 진행되며 세종은 아이디어의 제공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2) 중국은 그때 명나라가 문화적 건설에 성과를 올린 것인데 그 중 언어통일이(한자음 정리 및 통일) 진행되고 표면상 성공된 시대이었다. 그것이 바로 홍무정음(洪武正韻)이란 16권의 거질(巨帙)로 출판된 것이다. 원나라 때에 북방음을 썼기로 남북방어음의 혼란으로 이것을 통일하느라고 여러 학자를 모아 연구한 것인데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자극을 준 것이며 세종이 가장 관심이 컸던 과제가 된다.

(3) 세종대왕은 기이하게도 중국의 운학(韻學)에 깊은 연구를 가지고 있었다. 운학이란 것은 한자음의 학문으로서 시대적 발달 체계의 변화, 자음의 분류 등을 연구하는 것인데 세종은 이런 것을 연구하여 당시의 대가이었다. 세종은 이미 발음학자요 언어학자이었다고 하겠다. 이것이 훈민정음을 만들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다. 세종의 운학은 신숙주에게 제시할 정도이었으며 그것은 훌륭한 것이었다. 때로 세종의 자신만만 한 언사가 풍겨져 나올 정도이었다.

(4) 세종은 한국에서도 명의 홍무정음과 같이 한자음의 대개혁을 머금게 되었으니 세종은 훈민정음뿐 아니라 홍무정음과 같은 동국정음(東國正韻)이란 한자음 개혁의 기도(企圖)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세종과 신숙주 이하 집현전 학자는 한자음 또는 국어문제를 정확히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나신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불교 원조문제로 유신(儒臣)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닥뜨려 고생한 나머지 이제는 유신의 시비를 피하려고 했던 듯이 이러한 언어문제도 거의 비밀과도 같이 진행시키고 실질적인 성과 위주의 태도를 보였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즉 한글의 제정은 시대성의 고려에서 깊은 연구와 신중한 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다음에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고찰의 태도에서 비로소 한글이 정확히 이해될 것이라고 하겠다.

3. 한글의 과학성(科學性)

앞에 언급한 것 같이 깊은 연구 끝에 이루어진 한글은 문학제정사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수하고 과학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모음론

훈민정음 당시에는 중성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오늘날 모음이라고 부른다. 당시에는 7모음 조직인데 대립의 체계란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 (· 하늘을 상징한 것
- (— 땅을 상징한 것
- (- 점이 위에 놓였다
- (- 점이 아래에 놓였다
- (· 점이 밖에 놓였다
- (· 점이 안에 놓였다
- (· 이것은 짝이 없는 고립의 모음이다

이렇게 대립으로 자형을 꾸며 놓은 것은 세종이하의 송학의 철학을 이용한 것이고 또 국어의 언어사실을 잘 파악한 까닭이다. 이것은 4백년 뒤인 유럽에서 심리학을 언어학에 도입한 언어학파(프라우언어학단)의 학자들이 주장한 것인데 음운대립(opposition phonologique)이란 원리가 그것이다.

개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세미트는 국립공원이어서 야생의 새나 짐승이 보호되어 몇천 마리의 새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고 사슴떼들은 사람을 보아도 놀라 달아나지 않고 길바닥에 서성대고 있다. 만약에 고양이가 새를 죽인다던지 개가 사슴들한테 덤벼들던지 하면 야단이 기 때문에 이 지대에 고양이나 개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엄금하는 것이다.

덮어 누르는 것 같은 바위와 바위 사이의 수목 터널을 뚫고 나가면 돌연 앞이 탁 터지며 호반(湖畔) 광장에 나선다. 그곳은 기왕에 사베이지 소령 일행이 캠프를 쳤던 곳이다. 엘 캠프 —대장— 폭포는 번들번들한 암면(岩面)을 타고 쏟아지며 반대쪽에는 '신부의 베일' 폭포가 부드럽고도 조용하게 요동하며 흡사히 노랫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180m의 단에서 안개의 장막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 바로 머리 위에서 굉장하고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사베이지 소령도 들은 소리인데 우리들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다. 차도의 모퉁이를 돌아서 세계최고의 폭포에 직면한다. 첫째 폭포는 780m나 되는 위에서 낙하하여 물거품을 희고 큰 우모(羽毛)와 같이 되어 바위 언저리에

이것을 5백년 전에 세종과 그 집현전 학사들이 발견한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앞에서 언어사실이니 하고 말했지만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我) — 너(汝)	보드랍다(軟) — 부드럽다(柔)
남다(餘殘) — 넘다(溢)	줄다(縮) — 줄다.
꺾다(刻) — 꺾다(折)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모음 위에 적용시켜 자형의 대립을 꾸민 것이니 참으로 놀라운 바이다. 또 발음의 설명에서도 ‘혀(舌)가 오무러진다’ ‘펴진다’ 또는 소리를 심천(深淺)으로 나눈 것 등 다 현대과학 그대로이다. 소리의 심천만해도 다음과 같음이 서구의 음향학(音響學)의 공식이다.

i < e < a < o < u
고(高) 저(低)

이것은 진동의 주파수의 다소에서 소리의 깊고 얇음이 결정되는 것인데 훈민정음에서 ‘아음은 ‘소리가 얇다’ 느니 함은 기계실험도 없이 감각 하나로 잘 규정한 것이다.

자음은 ‘초성’ 또는 ‘중성’이라고 했는데 그 체계는 중국식 체계의 그대로이었지만 자형으로 이를 나타내려고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ㄴ	ㅇ
ㄴ + ㅡ → ㄸ	ㅇ + ㅡ → ㅉ
ㄸ + ㅡ → ㅊ	ㅉ + ㅡ → ㅊ

그리하여 「ㄱ」의 격음(激音)이나 「ㄱ」의 경음(硬音)이 그대로 자형에서 구별되도록 되었으니 제정자(制定者)의 태도란 참으로 놀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체계의 모방에서 무리가 생긴 것도 사실이나 여기 예시할 것까지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옛날의 철자법은 한자한자가 그대로 음절의 단위가 되고 그 음절경계가 나타나 있어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철자법을 모르느니’하고 마구 평하는 것을 보는데 틀린 일이 다. (V. 음절경계)

불V휘V기V폰V남VㄱV. ㄴVㅁV. VㅂV매V아V니V필V썩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는 까닭에)

여기서 「깊은」이라고 하면 음절경계와 혼란되나 「기V폰V」하면 음절경계가 명시된 것이다. 그들은 「스, 드」 받침을 잘 구별하고 있어 오늘의 우리 생각으로 평할 것은 아니다.

간(筭) — 갖(皮)	못(釘) — 못(池)
곧(所) — 꽃(花)	낱(箇) — 낱(書)
빈(貧) — 빛(色)	긴(柱) — 갖(楹)
밭(田) — 밭(外)	

이렇게 보면 오늘의 우리 머리를 가지고 마구 평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다음과 같은 철자법도 잘 지켜진 것이다.

놀애(歌) 물애(沙)
술위(車) 달아(달라 이(異))

이렇게 「리」를 치켜 올리는 태도도 참으로 정확한 것이었으니 놀라운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중기에 돌아보지 않으므로 발달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사잇 스」도 어느 규정하에 잘 지켜졌던 것이다.

형(形) ㄱ ㅁ ㅡ = (10 + ㄱ)

나(那) ㅇ ㅈ = (0 + ㅇ)

태자(太子) △ 位 (0 + △)

이것도 책에 따라 다 훌륭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철자법에도 큰 관심을 가졌었다고 짐작된다. 이러한 태도를 이어받지 못한 자손들이 딱한 것이 아닐까 한다.

4. 결론(結論)

한글이 문자로서 우수한 것은 물론이다. 외국 사람도 그 합리성과 간결성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학자들은 이것을 외국에 잘 선전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 불어판 문자학의 저서에서 한글이 빠져 있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선전할 것과 외국의 한글 연구자가 많이 늘어가야 하는 것이다. 작년에 필자가 필리핀 역사학의 대회에 나가게 된 것은 대북시(臺北市)에서 열림 한중일 3국 학자의 회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서 참가했다가 그 끝에 간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아닌 필자는 맞지 않는 대회이었지만 간 이상 한글의 선전중심의 과제를 들고 발표를 한 터이다. 그래서 대립의 원리의 설명에 이르러 모두 그 원리에 감명한 듯이 느껴졌다. 그러므로 이런 간단한 사실도 자주 선전해야 하지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며 흔히 ‘귀국(貴國)은 중국어를 사용합니까’식 질문에 우리의 반성이 큰 바 있다.

그러나 한글이 세계제일이라느니 국어가 세계제일이라느니 하는 소리는 아예 말아 주기 바란다. 언어나 문자가 세계제일이란 평가의 기준도 없거니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딘지 교양과 상식을 의심 받을 것이다. 국어가 세계제일이 되려면 문화가 발전하고 국어가 대문학(大文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산하며 3단계의 폭포는 더 한층 소리가 요란하고 물안개를 뿜으며 우리들 오른쪽에 아름다운 무지개다리를 놓는다.

비산(飛瀾)하는 물거품과 거창한 석벽에 정신이 팔려있으면 우모와 같은 폭포 안개에 바람이 불어 풍향에 따라 좌우로 커다란 곡선을 그리고 바위 사이를 뒤흔드는 것 같은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단애에서 쏟아져 내려온다.

국어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문학작품이 세계적으로 소개되고 우리 문화를 연구하려고 외국인들이 다투어 한글 공부로 달려들 때에 비로소 국어는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아무 작품도 내놓지 않고 한글은 세계 제일이라고 하면 남의 웃음을 살 것이다. 오직 한글 문자가 가진 과학적 원리 같은 것과 그 합리성을 외국인에게 주장 선전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선 우리는 문학작품의 좋은 것을 내어 세계의 인기를 이끌므로 국어가 대문학어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국어 자체가 권위를 가지려고 노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筆者)·문박(文博) 서울대 문리대(文理大) 교수(教授))

나는 언젠가 한 번 이 폭포 가상머리까지 기어 올라가 바위에 얽혀서 낙하하는 폭포물을 쫓아 아래를 내려다본 적이 있다. 폭포는 450m의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바람으로 해서 가루처럼 부서지고 또 바위에 부딪쳐 일어나는 굉음은 아래서 듣는 것보다 훨씬 거창하게 들리며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월형(半月形)의 산정으로 올라가 보기로 하자. 사베이지 소령과 그 일행이 요세미트를 발견하고 25년간 사람들은 저 등근 지붕을 반으로 쪼갠 것 같은 산정을 올라가 보려고 하였으나 너무나 험준하고 거기가 바람이나 눈에 씻겨서 반들반들하기 때문에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다람쥐들이나 올라갈 수 있어서 이들 작은 동물은 산정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조소(嘲笑) 하였다.

그러나 1875년 스코틀랜드 태생의 앤더슨 대위가 이 정상을 정복하여 전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가 혼자서 이 산정을 올라갔다 해도 누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위 균열(龜裂)에 쇠못을 박고 또 그 위에 쇠못을 박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여 조금씩 올라가 드디어 마지막 300m까지 다 올라가 정상의 편편한 데까지 올라갔다.

그다음부터 다람쥐들에게는 그렇게 태평한 세월이 못 되었다. 앤더슨 대위가 사용한 쇠못은 발전하여 계단을 만들게 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 계단에 손잡이로 쓰이는 강철 밧줄이 양쪽으로 쳐있다. 이 손잡이는 등산자들을 끌고 올리고 미끄러지기 쉬운 암면에서 발을 헛디디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300m나 되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맛있는 스티일에 찬 모험이다. 여러분은 라바솔 신발을 신고 있는가? 이 등산에는 그 신발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말을 탈 줄 아는가? 커브가 진 단애 아래까지 약 13km의 산길을 말을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거의 수직의 계단을 케이블을 의지해서 올라간다. 처음에는 팔이 미끄러져 내린다. 그러나 계급이 있는 덕택으로 아주 아래로 떨어질 염려는 없다. 이 미끄러지기 쉬운 험준한 산정이 인디언이거나 백인이거나 모든 사람들을 오랫동안 올라오지 못하게 한 까닭을 잘 알 수 있다. 케이블이나 계단이 없었다면 불과 3m도 위로 올라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점 앤더슨 대위에 무언(無言)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올라가는 동안에 지쳐서 팔이 아프고 케이블에 손이 까진다. 그러나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만곡(彎曲)이 심하지 않아 거의 편편하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거기는 정상인 것이다.

여기는 해발 2,700m 계곡 바닥에서 1,500m나 된다. 절정에서 튀어나온 바위는 반쪽으로 잘라진 600m의 단애 위에서 덮어씌운 것같이 매달려 있다. 그 위에 올라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면 흡사 창공을 날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저 시끄러운 폭포 소리도 여기서는 속삭이는 소리만큼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1.6km나 아래에 있는 삼림은 흡사히 부드러운 녹색 흙이불과 같다. 눈에 덮인 산들이 우리들 둘레에 솟아 있고 빛나는 계곡은 발아래 퍼져 있다.

우리들은 그때서야 사베이지 소령이 인디언들을 추격하던 끝에 산정과 폭포가 감추어져 있는 별천지에 마주쳐서 어떠한 느낌을 가졌던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디언들이 이 행복한 수렵지(狩獵地)에서 황야로 내쫓겨 요세미트에의 향수를 가슴에 간직한 채 죽어간 그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자주(譯者註) — 하리바톤은 세 개의 폭포를 합쳐서 요세미트의 폭포는 세계 최고라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세 개 가운데 가장 높은 ‘신부의 베일’폭포를 가지고 요세미트의 폭포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1937년 에미국 군인 지미 엔젤이 베네젤라의 정글에서 발견한 ‘엔젤폭포(990m)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폭포이며 다음은 같은 베네젤라의 ‘구케남폭포(600m), 제3위는 뉴질랜드의 ‘사우스랜드폭포(576m), 제4위는 남아프리카의 ‘쓰케라폭포(540m), 5위가 요세미트 폭포(520m)로 되어있다.)

뉴턴과 노파(老婆)

만유인력의 법칙으로서 유명한 뉴턴(1642—1727)이 살던 집은 지금도 런던의 레스터 광장 남쪽에 있어 그의 실험실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끊일 사이가 없는데 그가 생존 시 옆집에 살고 있던 노파가 뉴턴의 집을 찾아온 왕립학회(王立學會) 회원에게

“참말 열집 양반은 머리가 좀 돌았나 봐요. 매일 아침 햇볕이 내리쬐이는 데서 비누 거품을 가득 풀은 대야 앞에 앉아서 파이프로 거품을 뽐고서는 그것이 파열(破裂)하는 것을 잔뜩 노려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위에서 좀 들여다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 학자는 2층으로 올라가 내려다보니 과연 뉴턴은 비누 거품 표면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얇은 막으로 광(光)의 굴절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달나라로 가는 길

不遠實行될
美國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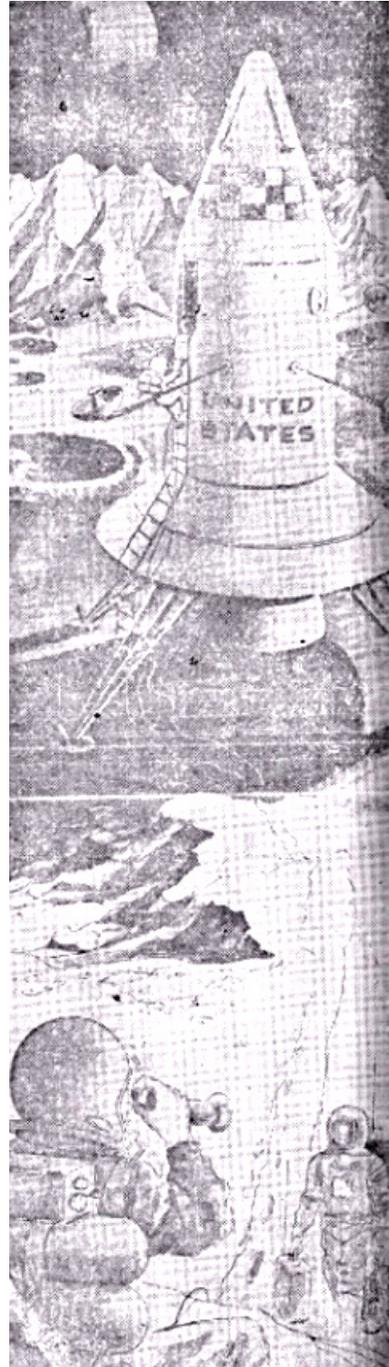
달나라旅行計劃

불원실행(不遠實行)될 미국(美國)의 달나라 여행계획(旅行計劃)

월세계(月世界) 여행(旅行)의 어려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다시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까닭은 단순히 달나라까지의 거리가 지구 직경(直徑)의 30배나 된다는 원거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달은 다만 지구의 한 개 위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실은 지구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상원(相遠)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구에서 달을 향해 물체를 발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행하는 사이에 달은 언제까지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발사된 물체와 달과 지구 이런 것들의 위치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리나 위치의 산출방법으로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자세히 해설하자면



원효대사(元曉大師)와 해골 -

원효대사가 학승(學僧)일 때 젊은 승도와 당나라 유학을 떠났다. 당나라 서울인 장안을 앞두고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해오던 원효 일행은 그날 밤 어떤 공동묘지에서 밤을 세웠다. 밤중에 목이 마를 원효는 가까운 골짜기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이튿날 아침 동행과 함께 그 샘을 찾아가 보니 샘은 샘이었으나 해골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다. 동행한 젊은 승도(僧徒)는 걸질을 하고 물을 마시지 않았으나 원효는 물을 마시고는 “아, 그 물맛이 꿀맛이구나.”하고 허허 웃고는

“이 물로써 나는 목을 축이고 달게 해갈했다. 생사유무가 모두 무상한 공이로다.”하고 원효는 여기서 인내천(人乃天)이라는 불도의 진리를 깨달았다. 인간이 바로 하늘이요, 신이요, 부처라는 불교관이다.

“장안으로 간들 이 이상의 고승이 있겠는가?”

하고 원효는 장안에 들어갈 것을 단념하고 귀국해버렸다. 진리를 깨달은 원효는 만리길을 천신만고(千辛萬苦)로 찾아왔으나 안전(眼前)에 둔 장안은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효대사의 인간본위(人間本位) 불도진리(佛道真理)는 여기서 생겨났다.

아버지와 아들 - 석유왕 존 록펠라가 워싱턴에 있는 윌러드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안내원에게 가장 싼 방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안내원은

“그렇지만 록펠라님.....”

이렇게 못마땅한 어조로 말하였다.

“아드님이 여기서 유숙(留宿)하실 때는 제일 좋은 방을 쓰시는데요.”

그 말을 듣고 록펠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닐세 아들에게는 돈 많은 아버지가 있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혜택이 없네.”

몇 권의 책이 될 것인데 지구와 달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할 여지도 없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365.26일로써 일주(一周)한다. 이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지구 그 자체는 하루에 1회 자전한다. 이와 같은 지구의 주위를 달이 역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어느 고정된 일점(一點)에서 본다고 하면 처음 보는 달에서 다음의 새로운 달을 보기까지의 기간은 29.53일인데 그동안에 지구도 1공전 365.26일로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달의 실제공전은 $\frac{29.53}{365.26}$ 만큼 관측된 공전보다 적은 것이 되어 $29.53일 + (1 + \frac{29.53}{365.26}) = 27.32일$ 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달은 지구처럼 자전한다. 달이 자전하는 시간은 공전과 같아서 27.32일인 것이다. 이것은 흡사 우리들이 운동장을 한 바퀴 뛸 때 언제나 상반신이 트랙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달의 지구쪽을 향해 있는 면은 언제나 같아서 반대쪽 면은 지구상에서는 영원히 바라다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질의 유성으로서서는 태양계에서는 수성이 있다. 수성은 태양 둘레를 88일로 공전하는데 그 사이에 1회만 자전한다. 그 때문에 수성의 태양을 향해 있는 쪽은 언제나 420도라는 더위로서 영원히 낮인데 그 반대쪽 면은 영원히 밤일 뿐 아니라 영하 200도 이하나 되는 혹한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성과 같이 밤낮이 항면(向面)에 따라서 일정한 일은 없다. 지구에서 바라다 볼 수 없는 쪽에도 밤과 낮이 교대로 찾아온다. 그런데 이 같은 변화는 지구와 같이 알맞게 반일씩으로는 될 수 없다. 달은 27.32일로 1회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달 표면의 낮은 14일이나 계속되고 밤도 또한 약 14일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칙적으로 주야의 구별이 있는 것과 태양광선을 적당히 완충할 수 있는 대기도 없기 때문에 낮이 계속되는 14일간은 100도 이상의 맹서(猛暑)가 계속되는가 하면 다음에 오는 14일간은 밤과 더불어 영하 150도 이하의 혹한이 닥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볼 때 지구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살기 좋은 조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지구와 달과 그리고 태양이 세계의 천체 사이에 개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아무래도 지구상에서와 같이 동서남북 같은 방향관념이 통용되지 않는 우주 공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달은 비교적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존재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독일의 폰 브라운 박사 같은 사람은 달나라에 가기보다 화성을 가는 것이 로켓 궤도계산에서 볼 때는 훨씬 용이하다고 말하고 있어 우주여행은 단순히 거리만으로서 쉽고 어려움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달에 도전(挑戰)하는 미국(美國)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미국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 달나라로 보내고 다시 지구에 귀환시키는 계획을 명백히 하였다. 유인(有人) 달로켓을 실현시킨다고 하는 케네디 대통령의 결의는 이제까지 산만하였던 미국의 우주계획 전체의 방향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시키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우주개발 노력을 가일층 기울이려는 것은 물론이고 인공위성 분야에서 소련이 뒤졌다는 논의도 있고 하여 미국의 위신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음도 사실이라 하겠다. 유인로켓의 개발을 포함해서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월세계 여행계획 전체의 비용은 향후 5년에 90억 불 정도가 들고 실현까지에는 200억 불 내지 400억 불이나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 바람에 미국의 일부 지식층들은 그만한 돈이라면 월세계 여행에 소비하기보다는 암정복에 충당하는 것이 인류를 위한 길이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달나라 여행계획에 400억 불이나 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금후(今後) 5년간에 40억 불이 들고 완성까지 90억 불이 있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금액은 미국 납세자 1인당 매년 15불씩만 더 납세하면 조달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거두는 수확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까지 소련은 월세계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에 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것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이 분야에서만이라도 큰소리를 치고 싶어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 있다. 인류가 향후 10년 이내에 달나라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면 천문학적으로 볼 때 1967년 7월 20일경이 인간로켓을 발사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은 달이 가장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앞을 뿐 아니라 더구나 만월(滿月)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고 유인로켓 발사가 이날에 한정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우연히도 이날을 말하고 있음은 흥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달나라에 사람을 내리게 하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실험이 있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까지에 실로 수많은 각종 실험이나 준비, 연구와 개발이 있었다는 사실로서도 능히 상상할 수가 있다.

인간(人間)을 보내기까지의 준비계획(準備計劃)

예상되는 많은 초기적 실험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머큐리 계획인 것은 틀림없는데 목하(目下) NASA에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 달을 탐사하려는 일련의 계획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첨단을 가는 것이 금년 말에서 내년에 걸쳐 실시될 렌자 계획이다.

렌자는 도합(都合) 5회 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모두 아틀라스 에이제나 B형 2단 로켓으로 발사되며 중량은 363kg이다. 그 제1호는 지구에서 100만km 되는 곳을 도는 초타원(超橢圓) 궤도로 올려져서 지구인력 및 그밖에 천체 에너지를 탐사하도록 되어 있다.

당신도 성공(成功)할 수 있다.

당신은 다음 질문(質問)에 예스냐? 노냐?



여기에 설정한 질문은 모두가 당신의 인생건축을 위한 청사진이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 · × 질문에서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1문(第一問)>

이 질문은 미국의 대실업가(大實業家) D.F.Boyd씨가 그의 30대에서 판매원을 하면서 장차 대성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제출했던 설문이다. 그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반드시 그에 응당한 대가가 치뤄진다는 원리에 착목(着目)한 것이다.

A설문(設問)···도덕적(道德的) 조건(條件)

(1문 15점,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즉시 해답해야 한다)

1. 나는 어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
2. 나는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즉, 금후(今後) 2, 3년 내지 10년간에 달성할 명백한 목표를 말할 수 있는가? ()
3. 친구와 동료, 또 윗사람에게 솔직하고 성실한가? ()
4. 나는 도덕적으로 결백한가? ()
5.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할 교양에 힘쓰고 있는가? ()
6. 장래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연마에 게을리하고 있지나 않은가? ()

B설문(設問)···육체적(肉體的) 조건(條件)

(1문 15점,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것도 즉시 해답해야 한다)

1. 머리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육체적 약점은 없는가? ()
2. 키(신장)에 비해서 몸무게가 보통인가 아닌가? ()
3. 음식은 충분한가. 과식하는 예가 많지 않은가? ()
4. 밤마다 잘 자는가? ()
5. 운동부족은 아닌가? ()
6. 마음과 몸에 영향을 주는 악습관은 없는가? ()

C설문(設問)···성격적(性格的) 조건(條件)

(이 질문은 A,B에서 합격한 자가 생각해서 해답한다)

1. 나는 결핍하면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는가?
 2. 생활상의 파란으로서 극단적인 낙관을 하거나 비관을 하지 않는가?
 3. 실망과 낙담을 했을 때도 여전히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4. 그날 일에 충실한가?
 5. 어제 실패한 일 때문에 오늘 일에 의욕을 상실하는가?
 6. 결단을 신속히 또 명확히 내릴 수 있는가?
 7. 자신있는 해답을 내릴 때까지 그 문제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가?
 8. 윗사람과 동료들에게 대하여 정직한가?
 9. 나는 생각이 깊고 신중하고 또 슬기로우며 친절하기도 한가?
 10. 남과 의견을 달리할 때도 남의 의견에 따라가는 버릇이 있는가? 없는가?
 11. 수입의 얼마라도 저축하고 있는가?
 12. 자기 일을 조금도 빈틈없이 잘하고 또 그 태도가 만족하다고 생각하는가?
 13. 나의 교양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수입의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가?
 14. 기술, 마음의 집중, 결단, 안내, 사려 신뢰 등 이 가운데에서 현재의 나의 지위로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5. 나는 14문(問)을 위하여 평소에 힘쓰고 있는가?
 16. 현재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장래와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는가?
 17.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장래의 목표로서 가능한가?
 18.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평생의 사업으로서 다른 적당한 사업이 있는가?
 19. 나는 무엇 때문에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해답을 필요로 하는가?
 20. 나는 나의 인생의 최고목적을 말할 수 있는 인물인가?
- ※ 마지막 20번째의 해답은 해답 전부를 종합한 결과에 내릴 수 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은 당신의 인생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생에는 '늦었다'라는 것은 없다. 늦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늦지 않았었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늦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설문은 또 반드시 현재의 당신의 지위를 밝혀줄 것이다. 또 이 설문은 당신의 생활 태도를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설문에 힘쓴다면 긍정적 확신과 행동적 인생관을 얻어 세상을 백안시(白眼視)하거나 의심하며 불안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소(一掃)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3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이 질문에 해답할 때 한결 인생에 대한 자신을 얻을 것이다.

<제2문(第二問)>

이 설문은 핏보르그 대학의 Chetar 박사가 만든 것으로 사람의 특성을 알아내는 질문이다. 심리학자인 Chetar 박사는 사람의 성격은 약 6천 종류가 있는데 잠재적 능력은 행동효과에서 비로소 나타나고 결정지어지는 것이라 하며 두뇌, 숙련, 지식 등은 잠재능력이라 한다. 박사는 다음 열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이것에 의한 행동효과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했다. 당신의 특성은 무엇인가? 다음 질문에 답해서 1문 10점 60점 이상을 얻을 수 있는가?

1. 누구보다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가? () — 자신력(自信力)
2. 남과 쉬이 친할 수 있는가? () — 친지성(親知性)

이 사탄을 사용해서 프로스펙타 계획의 실시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탄의 초단 로켓은 680t이라는 거대한 추력이 있으므로 4단식의 C-2형을 사용하면 중량 6,800kg의 우주선을 월세계 궤도에 진입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프로스펙타 그 자체의 중량은 1,390kg이지만 달에 소프트 랜딩하는 우주선의 총중량은 2,268kg이 된다고 한다. 그 이유로서는 프로스펙타는 달에 착륙하면 그 표면을 자주(自走)하여 탐사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폰 브라운 박사는 이 프로스펙타 계획의 후기에는 로봇이 채집한 달 표면의 물질전분을 지구로 가져오려고 생각하였던 모양인데 그것이 과연 실현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모양이다.

어쨌든 차로 5회 사베리아로 14회를 거치기 때문에 프로스펙타 계획에서는 주로 사람이 착륙할 예정지점의 지리적, 물리적 조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어떤 프로스펙에는 텔레비전 장치를 적재하여 착륙지점에서 반경 80km 이내를 정밀히 촬영(撮影)하면서 이동하며 시시각각으로 그 영상을 지구기지에 보내도록 되어있다.

로켓에는 무엇이 쓰여지나?

사탄이 실용기로 들어갈 때쯤 해서는 그 다음으로 초대형 로켓인 노바의 발이 추진되어 발사실험단계까지 이를 예정이다. 노바는 높이가 120m 초단부분의 직경은 20미터가

- 3. 쾌활한 성질을 가졌는가? () — 쾌활성
- 4. 비평하기를 좋아하는가? () — 감수성
- 5. 날카로운 슬기가 있는가? () — 기지(機智)
- 6. 부지런한가? () — 근면성
- 7. 생각해내는 힘이 있는가? () — 창의력
- 8. 기억력이 있는 편인가? () — 기억력
- 9. 모나지 않는가? () — 적응력
- 10. 남에게 믿음을 받는가? () — 신뢰성

이상 10개문에서 1-5까지는 우리들이 매일 생활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의 기질을 결정케 하고 6-10까지는 매일 생활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의 자신을 제어하는 힘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전자를 기질특성이라 하고 후자를 제어특성이라 한다. Chetar 박사는 잠재적 능력을 정지되어 있는 모터라고 하면 행동특성은 전력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그러므로 전기(前記) 열 가지 특성은 사람들의 제각기 가진 잠재적 능력을 행동으로 옮겨 그 사람이 나아가려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 설문에서 60점 이하에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 경쟁에 있어서 그만큼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제3문(第三問)>

<설문1> 당신이 생각해서 당신의 장점으로 생각되는 열가지를 열거하라.

(한 가지에 10점 60점을 얻으면 합격)

<설문2> 당신의 친구(親友) 20명을 선정하여 그 친구들과 당신과 비교해서 당신이 나은 점 열 가지를 열거하라. (한가지 10점, 60점을 얻으면 합격)

이상 두 가지 설문도 Chetar 박사의 설정이다. 그는 어느 날 재미있는 문의를 가진 사람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Baklei라는 청년이었는데 모든 일에 자신이 없다고 말하였다. Chetar 박사는 그의 성격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앞의 설문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던 것이다. 며칠 후에 Baklei는 다음 같은 장점 열 가지를 가져왔다.

- ① 학교에서 공부한 시간이 남보다 적었는데도 성적이 나았다는 점.
- ② 어떤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를 떠날 때에 회사 측에서 몹시 애석히 여기고 다시 돌아오면 언제라도 환영하겠다고 했다는 점.
- ③ 글을 써서 출판을 했더니 곧잘 팔렸다는 점.
- ④ 대학을 고학(苦學)했다는 점. 그 때문에 무리한 일도 참고해 낸다.
- ⑤ 공부하기 위하여 모든 오락을 스스로 억제했다는 점.
- ⑥ 병든 누이동생과 가족을 돌보아 주었다는 점.
- ⑦ 친구로서 자제로서 형제로서 정성을 다 했다는 점.
- ⑧ 큰 실망을 당한 일도 있었으나 그 실망을 극복했다는 점.
- ⑨ 항상 정직한 것과 성실을 지켰다는 점.
- ⑩ 모든 일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여 남의 신뢰를 어긴 바 없다는 점.

설문 2는 설문 1을 손에 쥔 Chetar 박사가 Baklei에게 두 번째로 요구한 질문이다. 며칠 후 Baklei씨는 다음 여섯 가지를 적어왔다.

- ① A보다 나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 ② B보다 나는 신중하다.
- ③ C보다 나는 학력이 낮다.
- ④ D보다 나는 판단력이 있다.
- ⑤ E보다 나는 남의 의견을 이해하는데 빠르다.
- ⑥ F보다 나는 자기자랑을 하지 않는다.

Chetar 박사는 전후 두 가지 표를 검토한 뒤에 Baklei씨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당신은 어떠한 일이라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질문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과 용기가 필요하며 그렇게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질문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Chetar 박사에 의하면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완전한 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의 하나라고 보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보고 남의 장점에만 확대점을 비추어 자신에는 망원경 밑으로만 들여다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남도 역시 어디인가 결점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 ① 자신이 없거든 남과 자기를 비교해 보고
- ② 얼핏 눈에 띄지 않으나 자기 자신의 장점을 찾아 주목하여 성실히 이것을 살리면 그릇된 자기 자랑이 아닌 참된 자신을 얻게 된다.

라고 말하였다.

<제4문(第四問)>

<설문> 당신은 1주일내 새로 인사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60퍼센트 이상 기억하는가?

(10페센트 10점으로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

남의 이름을 기억해 둔다는 것은 처세상 가장 필요한 일의 하나이다. 단 한번 인사했는데도 다음 기회에 자기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호감과 친밀감을 가져준다. 보통은 얼굴을 알면서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이름은 기억하면서도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는 예도 허다하다. 이것은 재치있는 사교에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

미국의 Hkins라는 탐정은 그가 한번 인사하거나 만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꼭 기억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높아 사진기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그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 ① 처음 인사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몇 번이고 외워본다. 그리고 그 사람에 흥미를 가지고 사람은 언제나 다시 만난다는 기대하에서 이름을 잊어버리면 곤란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한다.
- ②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얼굴도 동시에 인상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얼굴의 특징을 발견해 둔다.
- ③ 한번 외운 이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사용한다.
- ④ 그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기억할 때까지는 그 사람을 대했을 때 연거푸 사용한다.
- ⑤ 어느 자리에서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필요치 않아도 이름을 불러준다.
- ⑥ 이상과 같은 것을 연습해보는 데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A...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접촉할 때 위와 같은 방법을 시험해 볼 것.

이름을 말하지 않고 소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진해서 그 이름을 물어서 정확한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은 즐거워한다.

B...이렇게 해 알게 된 이름은 일단 그곳을 떠나서 다시 한번 외워둔다. 그리고 잊어버린 이름은 예를 써서 다시 알게 되면 뚜렷한 기억으로 남는다.

⑦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중에 새로 인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기장이나 수첩에 적어보는 버릇을 가진다.

⑧ 내가 자주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꼭 외우기로 한다.

⑨ 1주일간에 새로 인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본다. 가령 50명의 사람과 인사를 교환했다면 적어도 40명 이상의 이름은 쓸 수 있어야 한다.

⑩ 얼굴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이름을 알아두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

이밖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데는 처음 인사했을 때의 장소, 분위기, 그 사람의 표정 등에서 특징적인 것 하나를 인상에 넣어둔다.

넘는 거대한 로켓으로 그 추력은 4,000t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노바의 발사실험은 당초에는 1967년경으로 예정을 잡았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신우주정책에 의해서 그 시기가 단축되어 1964년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의 과학고문들은 노바가 공룡과도 같이 너무 커서 그때문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많은 혼란을 두려워하여 노바의 로켓연료를 액체식이 아니고 고체식으로 하는 것도 예의(銳意) 연구하고 있다. 그 때문에 NASA는 6,200만 불의 예산으로 고형로켓을 노바에 응용하여 소형이면서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또한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되는 노바는 5단식으로 될 모양인데 만일 이 다단식 노바가 쓸만한 것이 못될 경우에 고형로켓식 노바로 전환할 뿐 아니라 사탄을 개량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던지 그 상단부에 원자력 로켓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긴급수단도 아울러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우주선 그 자체의 연구는 아폴로계획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 계획으로는 아폴로는 길이가 12.2m 직경이 3.7m 무게가 68,000kg이 될 모양인데 3명의 승무원(선장과 항해사 및 기관사)이 탑승할 예정이다. 머큐리 위성용 캡슐과 같은 형태가 되느냐 혹은 원타형(圓橢形)이 되느냐는 아직 최종적 결정을 못 보았는데 대체로 이번 가을쯤 개발을 담당할 민간회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분명해질 것이다.

아폴로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자면 빨라도 6년 후라고 보겠는데 이에 탑승하는 사람의 훈련은 지금부터 서서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6년 후라고 하면 앞서 머큐리 로켓에 탑승했던 세파드 중령은 43세나 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사람들로서는 너무 나이가 많다. 따라서 보다 젊은 후보자가 선출될 것이다. 또한 그 수는 25명 정도로서 머큐리계획에 참여했던 파일럿들이 교관으로 지도할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폴로의 승무원들은 수년간에

수상(隨想)

Lost time.....

류기영(柳起英)

쓸데없이 시간을 보낼 때면 곧잘 열차 속에서 보내는 지루한 시간을 상기하고 그 시간과 비교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대구가 고향인 나는 때때로 대구를 다녀와야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열차 속에서 보내는 시간의 지루함에 대구 가기를 꺼려한다. 아침 7시 반 무궁화호면 12시 19분에 대구에 도착한다.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 아침 직장에 나와서 어물어물하는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하고 또 열차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것처럼 아까울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달리는 시간은 꼬박 4시간 49분이다. 어쩌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라도 만나 다방에서 잡담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10시가 넘는다. 가령 퇴근해서 열차를 탔다고 가정하면 이미 대구에 내려 있는 시간이다. 또 퇴근하여 돌아오는 길에 심심해서 기원(棋院)에 들러서 두 세판 바둑을 뜨고 보면 어느새 10시다. 때로는 약주집에 들러서 친구와 한잔 나눈다. 그러면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은 지루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내는 시간은 자못 정당한 소비처럼 열차 속에서 보내는 시간처럼 아까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며칠 전, 대구를 다녀온 이래 나는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에는 문득문득 열차가 달리는 시간을 생각하며 내가 공연히 보내는 시간과 열차의 진행도를 곧잘 비교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퇴근해서 시내를 목표도 없이 거닐면서 어느 친구를 상기한다. 별다른 용무가 있는 것도 아니오 만나면 구주부레한 쓸데없는 잡담이 벌어진다. 별반 재미있는 화제도 없겠다는 생각에서 그 친구 찾기를 그만두기로 하고 매양 들리는 다방에 들러서 한잔 마시고 한 대 태운다. 그리고는 몇 시나 되었는가 하고 시계를 들여다본다. 어느새 7시 반이 가깝다. 이와 동시에 나는 퇴근시에 서울역을 출발한 무궁화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 무궁화는 대구까지의 절반의 거리인 대전역에 도착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열차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시간 - 이 시간은 비길 데 없이 귀중한 시간이다. 이 열차가 가령(假令)한 시간은 고사하고 30분, 아니 10분이라도 연착했을 경우를 생각할 때 이 연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승객들과 그 승객과 관계있는 사람들에 일어나는 사태 이 연착된 시간으로 인해서 일생이 관계되는 중대사가 없다고 누가 단언하랴. 이 귀중한 시간을 나는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나는 내심 시간에 대해서 미안하게 느낀다. 그다음 어슬렁거리며 다방을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거의 10시다. 이때 대전역을 출발한 열차는 이미 대구에 놓인다. 그래서 나는 요즘 걸핏하면 '아, 천만에 도착하는 시각, 대전에 도착하는 시각, 대구에 도착하는 시간하고 시계를 들여보며 뉘우쳐보는 버릇이 생겼다.

Lost time is Never found라는 격언이 머리에 떠오른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되찾이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면서도 대개의 사람들은 시간의 귀중함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공기 속에 있는 산소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생각에서 인지는 모르나 시간은 결코 '값 없는 청풍(淸風)이오 임자 없는 명월(明月)'은 아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고가(高價)한 값을 지녔고 제마다 임자가 있는 것인데...

일본의 어느 경제학자의 수필이라고 기억되는 글 속에 경제학에 시간 가치가 취급되지 않고 있음이 수상한 일이라고 지적했었다. 상대방이 시간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이쪽이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는 사람의 경제생활이 고도로 발달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흔한 일이며 이 같은 시간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땅히 민법에 입법화되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가 싶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축지법(縮地法)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어떤 거리를 보통 사람 이상으로 빨리 오고 가는 사람을 일컬어 축지법을 하는 위인이라고 한 상 싶은데 무슨 그런 법이 있는 상 싶지도 않고 또 그때 열차가 7시간 걸리는 서울 부산 간을 한 시간으로 축지하는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니까 멋있게 질러가는 지름길을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축지법이 아니고 축시법(縮時法)이며 시간관념의 표현인 것 같다. '바쁘거든 질러 가라'는 속담도 시간관념에서 생겨난 말일 것이다. '일각(一刻)이 여삼추(如三秋)'나 '세월이 여유수(如流水)*'여시(如矢)*'나 하는 우리 고래의 문자가 모두 시간관념을 표현한 것이겠지만은 '일명중천금(一鳴重千金)'은 시간의 소중함을 말한 것이겠다.

Lost time -무슨 프랑스 영화의 타이틀 같으나 is never found가 붙어서 시간관념이 높은 영국사람들의 금언(金言)이 된다. 우리는 지금 혁명과업이라는 매우 할 일이 많고 바쁜 세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서울역을 떠난 급행열차의 달그다 달그다하는 '바쁜 소리'가 연상된다.

× ×

걸쳐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될 뿐 아니라 학자로서도 상당한 능력과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된다. 이점에 있어서 종래의 파일럿과는 전혀 다른 승무원이 되는 셈인데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한 선발이 예상되고 있다.

달에 6일간(六日間) 체재(滯在)

아폴로는 노바 5단식 로켓의 최상단에 부착되어 세 사람의 승무원이 탑승하면 발사준비가 급속히 행해진다. 노바의 발사중량은 400t 이상으로 그 대부분은 연료인 것이다. 노바의 초단은 북아메리카社 로켓 다인 부문이 제작하는 F-1 로켓 엔진 8기(基)로 되어있어 이들 엔진이 1분간에 소비하는 연료는 액체산소 720t RP-1 연료 360t 합계 1,000t 이상에 달할 것이라 한다.

초단의 연소시간은 2분강(二分強)으로 발사 10분 후에는 3간까지의 로켓을 사용해서 지구를 떠나 200km 높이에서 우선 지구를 도는 궤도에 진입한다. 이것은 파킹궤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소련이 금성로켓 발사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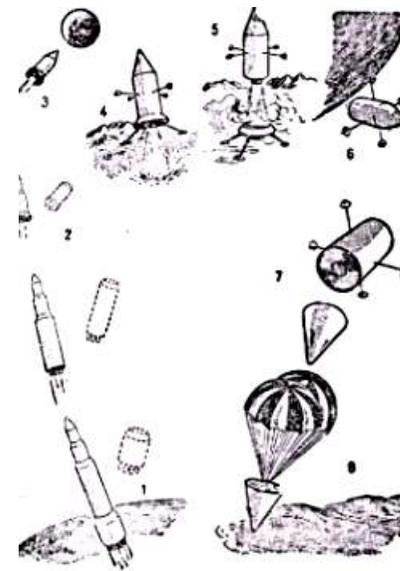
이 궤도에 오르면 승무원은 시스템의 체크를 시작하여 모든 기능의 정상적인 것이 확인되면 아폴로는 달에서 탈출궤도를 향해서 가속된다. 여기서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지구로 돌아오도록 되어있다. 파킹궤도에서의 우주선의 속도는 시속 약2,800km인데 탈출에는 약 4만km로 할 필요가 있다.

우주선 안에서 연기를 내는 것은 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던지 먹을 것을 찌던지 굽던지 할 수는 없다. 선내의 기압은 지상에서 1500m 높이 정도의 기압으로 유지되어 온도도 23도 정도의 알맞은 기온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탈출궤도에 진입하면 승무원들은 갑갑한 우주복을 벗고 편히 쉴 수가 있다.

달에 도달하기까지 약 60시간을 요하는데 그동안 항상 두 사람은 작업 위치에 있고 한 사람은 쉬도록 시간 배정을 할 수가 있다. 음식물은 통조림 또는 냉동건조식품으로서 조금만 데우면 먹을 수 있고 수분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제 튜브에 들어있어 튜브를 누르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아폴로의 초기의 것은 달의 지위를 돌 뿐인 소위 월위성으로서 달을 정찰만 하다가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데 상상할 수가 없다. 그만큼 달은 비교적 가까이 있으면서도 많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것은 헬리콥터와 같이 살짝 달 표면에 착륙한다. 달에 착륙한 최초의 인간들은 그곳에 6일간 체재하여 우주선 내외에서 탐사를 행한다. 3일간이라는 설도 있으나 6일이라는 설이 유력한 모양이다.



달을 조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과학적 의의가 있다. 그 첫째는 달이 우주의 기원 혹은 지구의 생성원인을 설명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일 것이다. 또한 달을 이용함으로써 지구의 관측이 항구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생활개선에 간과 할 수 없는 의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달에 내린 최초의 사람들이 6일만에 어떠한 것을 발견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현재로서는 지(紙)관계로 더 자세히 쓸 수는 없는데 수년 후에는 사람이 손수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달나라에 가는 것이니 인류 과학기술 발달의 하나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암의 정복도 인류에게 있어서 극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달의 수수께끼를 해명하는 것도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달에 간다는 목표를 향해서 연구 개발되는 많은 과학기술이 직접간접으로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영주)

<아폴로계획(計劃) 설명도(說明圖)>

- (1) 발사 -3인승 아폴로 우주선은 노바 5단 로켓에 의해서 케이프 케냐베탈에서 발사된다.
- (2) 노바는 아폴로를 시속 4만km의 탈출속도까지 가속
- (3) 순항 -아폴로는 달까지 60시간 여행을 출발.
- (4) 도착 - 파일럿은 아폴로의 공맹이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완충

- 각(緩衝脚)을 벌려서 조용히 달에 도착한다.
- (5) 출발 -6일간의 체재 후 빈 연료탱크를 출발대로 이용해서 아폴로를 지구로 향해서 출발. 달에서의 탈출 속도는 시속 8,000km이다.
- (6) 귀환 -귀환은 2일 반. 돌아올 때는 연료가 적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서 정확히 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7) 재돌입(再突入) -지구에 접근하면 승무원들은 전부(前部)의 조종실로 모여 후부(後部) 캐빈을 버린다.
- (8) 착륙 -지구상공 5,000m까지 강하하면 파라슈트를 열고 에드워드지기(地基) 근처에 착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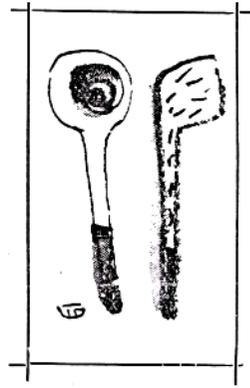
후르시초프의 위험(危險)한 곡예(曲藝)

백림위기(伯林危機) · 핵실험재개(核實驗再開)에 관련(關聯)된 일련(一聯)의 국제긴장(國際緊張)

백림위기, 핵실험재개 등을 생각해 볼 때 후르시초프의 저간(詰問)의 언동(言動)은 광신적(狂信的)인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를 얻을 수 없는 것들 뿐이다. 그것은 공산세계의 힘을 광적으로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곡예이다.

그는 세계의 여론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 중립계 제국의 포섭공작에는 평소부터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는 소련이 9월 1일 유고의 수도 벨그라드에서 중립국 수뇌회담이 개최되는 2일을 앞두고 3개년기간이나 끌어오던 미, 영, 소 3개국 핵실험금지회담을 사실상 그만 두자는 것을 의미하는 핵실험재개성명은 중립국가군의 여론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왜냐하면 후르시초프는 그와 같은 핵실험재개가 이들 중립국가군의 불평을 살 것만은 십분(十分)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련은 핵실험재개성명에서 ‘국제정세의 압력 때문에’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소위 미국을 비롯한 NATO군사블럭의 침략정책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판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의논이다. 현재 위기의 초점인 백림문제는 세계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이 작동하여 평지에 파란을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만들어낸 인공위기인 것이다. 소련이 이 인공위기로서 국제긴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서방측도 부득이 군비의 보강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후르시초프는 59년에 군비를 전폐할 용의가 있다고 공언하고 작년 1월에는 병원 3,623,000명을 일거(一擧)에 2,400,000명으로 감원한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던 그가 백림문제가 일어나자 지난 7월 15일 이것을 보기 좋게 취소하고 군비를 3분의 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도 군비의 보강을 단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후르시초프가 ‘국제정세의 압력 때문에……’ 전인류가 원치않는 핵실험을 재개한다는 것은 마치 불을 질러놓고 불종(鍾)을 치는 격을 면할 길 없는 노릇이다.

금반(今般)의 백림문제 뿐만 아니라 원래 소련은 자유진영을 위협하고 그 결과 자유제국(諸國)이 방위체제를 강화하면 그것을 구실삼아 소련은 강경한 대항수단을 취하여 왔다. 그들이 곧잘 구실로 삼는 NATO 동맹의 결성도 결과적으로는 소련이 만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자유제국의 군사동맹은 크레믈린이 그 산파역이었던 것이다. 후르시초프의 금반의 핵실험재개성명에는 소련의 전면군축제안(全面軍縮提案)을 서방측이 수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전면군축은 전인류가 원하여 마지않는 터이기는 하지만은 그와 같은 소련의 제안은 이상으로는 말자는 사람이 없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일문(一文)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같이 전면 실현성없는 제안은 제안을 위한 제안에 불과한 것이며 순전히 소련의 선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현재의 냉전적 세계정세에 비추어 볼 때 군비전폐(全廢)의 주창(主唱)이란 마치 유아에 태백산 등산을 권하는 격이니 필경은 경리지화(鏡裏之花)다. 이것을 모르는 소련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면서도 이 간판을 내리지 않는 것은 선전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인도(人道)라는 장삼을 입고 군비전폐를 주창하는 후르시초프가 전인류가 것처럼 싫어하는 핵실험을 재개하는가 하면 100메가톤짜리 핵폭탄(광도원폭(廣島原爆)의 5천 배의 파괴력이 있다는)을 제조한다고 호언(豪言)했으니 그가 높이 쳐든 평화공존의 간판이 무엇인가를 가히 알 수 있는 노릇이다.



3년간이란 긴 세월동안 339회를 거듭한 수부(壽府) 핵실험금지회담이 합의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련은 이 문제를 트로이카식으로 고집하는가 하면 완전군축문제와 결부시키곤 하였던 것이다. 원래 소련은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찰을 응락할리 없는 것이다. 주(駐)소 심수년의 경험을 가진 모국의 대사가 시종 수부 핵회담에 대하여 극히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던 것인데 그것은 옳은 전망이었다. 지난 9월 9일 이 회담은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사실 지난 2월에 재개된 수부회담에 있어서의 소련 대표의 진퇴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많았는데 이제와서 소련이 미·영을 아무리 비난해도 그것은 누워서 천정에 침 뱉는 격을 벗어날 길 없다.

핵실험재개에 대한 소련의 성명이 어떠한 판명을 놓(弄)한다 하더라도 세계의 양식에 대한 납득을 얻지 못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구(狗)를 양으로 부르는데 기인함이다. 더욱이 서방측의 위협을 제지하기 위한다는 소위 평화유지를 위하여 실험재개가 필요하다는 변명은 개가 들어도 소지(笑止)의 꺼리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의 양식은 크레믈린의 그와 같은 변명을 곧이듣기 전에 그들의 진의가 100메가톤급 핵폭탄의 위력을 배경으로 백림문제의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려는 공심임을 먼저 짐작하는 것이다.

후르시초프는 여러 가지 문구로서 백림이 동독 속에 있음은 부자연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부자연한 것은 백림에 한한 것이 아니다. 제2차대전은 이와 같은 부자연을 세계 도처에 만들어 내었다. 동독 속에 있는 백림(서(西))이 부자연하다면 독일의 양분은 더욱 부자연하다. 소련은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 인민을 막기 위하여 이른바 그 부자연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그는 어찌서 백림에서만 부자연성을 발견했던 말인가? 작년 1월 120만의 감군을 공표했을 때는 이 부자연을 몰랐단 말인가? 그의 자가당착(自家撞着)은 이뿐만이 아니다. 소련과 동독 정권은 언제나 공산체제의 우월함을 자신을 가지고 공언하였던 것인데 그렇다면 동독인의 탈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후르시초프는 과반(過般) 소련 경제력의 성장을 자랑하면서 1970년에는 소련의 생산력은 미국을 능가하며 한번 능가하면 미국은 두 번 다시 소련의 생산력을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즉시 부정하고 1990년 또는 21세기 이르기까지 소련은 미국의 생산력을 따르지 못한다는 점을 숫자로서 과학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만일 그의 공언이 확실성 있는 전망이라면 10년 못가서 공산권의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미국을 능가한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고 따라서 동독 인민들도 미국 국민 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후르시초프는 무엇이 답답해서 전인류로부터 불평을 사는 백림 인공위기를 만들어 평화의 적이라는 극히 명예스러운 이름을 덮어쓰려고 하는 것인가? 미국 능가의 확신을 양언(揚言)하면서 한편으로는 백림문제의 강행 해결을 서두르는 무모한 곡예를 하는가?

부자연한 것은 동독 내에 있는 자유백림이 아니라 후르시초프 자신이 아닌가?
후르시초프는 지난 7월 8일 모스크바 육군대학교 졸업식에서 감군중지와 국방비 3분의 1 증액을 발표하여 젊은 장교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는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가 작년 1월에 결정 발표한 감군병력은 120만이며 이 가운데에는 25만의 장교해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육군대학을 졸업하는 청년 장교들의 전도(前途)며 그들의 공사(公私) 양면에 있어서 지극히 중대한 문제가 들어있다. 이들 장교단의 정치적 세력은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소위 평화공존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 장교들은 공산당원 중의 동조자들과 결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이들은 평화공존주의를 신랄하게 비평하는 중공정권과도 결맥(結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반(反)공존세력이 금차(今次) 인공위기에 어느 정도 역할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후르시초프가 이 세력을 전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 후르시초프가 10월 17일에 있을 소련공산당대회를 고려하고 있음도 금차 인공위기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1958년 가을, 백림각서를 내밀고 이것이 백림문제의 최후통첩이라고 떠들썩하게 한 것이 바로 제2차 당대회 직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대회에 대한 준비의 하나로서 강경외교가 필요한 것이라면 저간의 후르시초프의 광적인 언동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다.

일부 소식통에서는 이와 같은 후르시초프의 강경외교는 중공정권 내의 주전파(主戰派)의 압력을 받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으로써 제2차 소공산당(蘇共產黨)대회에 작용할 중공의 압력을 완화할 공심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이같은 후르시초프의 강경정책은 은연중 중공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후르시초프가 가지고 있는 병은 그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공산진영의 군사력의 과신이다. 그가 이 과신에 스스로 굴러 들어가는 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여하튼 우리는 금반의 국제긴장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을 재확인하고 자유진영의 결속을 더한층 공고히 하는 결정을 굳게 하는 것이다. 저간의 후르시초프의 언동은 평화공존이라는 그의 범복 밑에서 핵폭탄으로 중무장한 갑옷을 백일하에 노출함으로써 자유진영의 자유민들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소련의 진의가 나변(奈邊)에 있는 간에 공산주의자들의 술책에는 충분히 경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만전의 대비와 각오를 새로이 함은 물론 보다 더 투철한 반공정신의 무장이 요청되는 바다. (Y)



평화(平和)를 위(爲)한 인류(人類)의 노력(努力)

—국제연합(國際聯合)과 그 유래(由來)

이원일(李元一)

1945년 9월 24일 샌프란시스코

우리 인류에게 역사가 거듭되는 동안 침략과 전쟁의 위협은 그칠 날이 없었다. 강자는 약자를 동정하기보 다 세력으로 짓밟기가 일수요 강국은 소국을 돕기보다는 침략하기가 더 바빴다.

때문에 전인류는 이 생존투쟁이 빚어내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몸서리치며 살아 왔던 것이다.

즉 1790년부터 1815년까지에 걸친 나폴레옹 전쟁으로부터 제1차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류는 유명한 국제전쟁 아홉 번을 치루었고 다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계속된 제1차세계대전에서 인명피해도만도 3천 5백 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에 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굉장한 전화(戰禍)에 눈이 뜬 인류는 1919년 윌슨 미대통령의 주창으로 칸트의 항구(恒久)평화론에 의한 세계평화기구로서의 국제연합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그의 경험에 의하여 세계에 다시는 전쟁이라는 참화(慘禍)가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위해서 강자가 약자를 돕고 세력 있는 사람이 세력 없는 사람을 동정하며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보조해 주는 것이 교만하고 서로 냉정하게 다루는 것보다 확실히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것으로 기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프랑스나 영국 등 나라의 지도자들은 싸움에 이겼다는 자부심과 악감정에 사로잡혀 1919년 파리에서 열린 소위 평화회의라하는 것이 평화회의가 아니라 패전국인 독일로 하여금 불행에 빠진 그들에게 너 무나 가혹한 조약을 강조함으로써 그 나라로 하여금 강력한 복수심을 품게 하였고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제2차대전이 일어나 사상자가 무려 6천3백만 명이라는 사상 놀라운 인류의 비극을 되풀이하였던 것은 아직 기억에 새로운 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2차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을 다시 빛어낼 때 지나간 국제연맹에서 체험한 부족점을 수정보강해서 제3차대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것이 바로 일본과 같은 패전국에 대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강화조약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2차대전에서 자유우방의 동맹국이었던 소련은 국제공산화를 위해 오늘의 국제연합을 자기의 횡포(橫暴)한 선전무대로 삼고 있는 이때 그의 몰지각한 행동은 만일 오늘의 국제연합이 없었던들 벌써 인류는 가공(可憐)할 핵전쟁에 휩쓸려 이만치의 평화라도 유지할 길이 막혀 버렸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인류평화에 공헌하는 국제연합은 어느 때 어떻게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사람은 사교적 동물이어서 사회를 떠나서는 그 생존을 유지할 수가 어렵듯이 오늘날 국가도 국제사회 없이는 존립하기 어려워졌다.

국내사회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경찰권이 있어 질서를 문란히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주권을 가지고 있고 초국가적 권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한 나라가 국제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 이것을 억제할 완전한 방법이라고는 없다.

그래서 각국의 자유의사에 의한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합에 속하는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분쟁을 국제연합에 내어놓아 거기서 타협의 방도를 찾아 내도록 하면 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 사이의 직접교섭이 되고 보면 강한 쪽이 약세게 고집을 부리게 되지만 국제연합에서는 제3국들까지 섞여 의논하게 되므로 자연 공평한 해결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노린 것이 세계평화기구의 사상인 것이다.

이 세계평화기구의 사상은 멀리 그리시아 시대에 이미 발생 되어 도시국가들이 일종의 평화기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뒤 중세의 암흑시대를 거쳐 민족국가가 탄생되는데 따라 이상주의자들과 학자들이 국제협조 및 세계평화 기구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연달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1310년 이탈리아의 시성(詩聖) 단테는 「제국론」을 쓰고 보헤미어의 마리니는 1461년에 유럽연맹을 제창하였으며 홀랜드의 엘라스모스는 1517년에 「평화의 호소」라는 책을 썼다.

또한 프랑스의 루소는 「영속적(永續的) 평화」를 1756년에 출판하고 독일의 칸트는 1795년에 항구평화론을 발표하였는데 이론적으로 완성된 세계평화기구의 구상이었다.

그리하여 칸트가 이론적으로 완성한 세계평화기구의 구상을 제1차세계대전 뒤에 윌슨 미대통령의 제안으로 구체화 시켜 가지고 국제연맹이 탄생된 것은 1920년이였다.

그런데 국제연맹에는 그것을 애써 제창한 윌슨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불인준(不認准)으로 미국의 가입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터키도 또한 참가하지 않았다. 소련은 1934년에 비로소 가맹하였다가 4년 후에 핀란드를 침공한 때문에 제명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탄생시초부터 고초를 겪기 시작한 국제연맹은 1933년부터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이 연달아서 탈퇴하기 때문에 차츰 유명무실한 존재로 남게 되었다. 더구나 1939년 나치스, 독일의 폴란드 침략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막이 열리자 국제연맹은 그 숨소리로 들을 수 없게 되고 다시 3년 뒤에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다음에는 그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고 마침내는 몰락되고 말았다. 그래서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강력한 국제평화기구를 창설하여야 되겠다는 논의가 재빠르게 연합국들 사이에 대두되어 특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인류에게 4대의 자유 - 즉 ①언론의 자유 ②신앙의 자유 ③경제적 독립국의 자유 ④공포에 서의 해방의 자유 등을 제시하여 국제연합의 목표하는 바의 기초를 부르짚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자 국무성에 평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에서도 케네기 평화기구연구위원회를 70명이나 넘는 학자 및 실무자들로 조직하여 1941년 4월에는 중간보고와 28명이나 되는 위원들에 의한 논문의 발표가 있었다.

이 무렵에 영국의 수도 런던은 20개월이나 두고 전쟁에 시달려 전쟁피해의 자취도 치참하고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쉴 새 없는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마음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군사적 승리를 초월해서 전쟁이 끝난 뒤의 세계를 넘어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낸 다음 또다시 새로운 전쟁의 공포 속에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한 군사적 승리보다는 더 창조적인 어떤 결의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모든 나라와 인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생활 조건을 만들어주고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뽑아 버린다는 것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해 6월 12일에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등의 대표들과 그리스아, 벨기에, 체코, 룩셈부르크, 홀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유고 및 프랑스의 드골 정권 등 당시 런던에 망명하여 와있던 9개국 대표들이 역사도 오랜 성(聖) 제임스 궁에 모여 선언서에 서명하였다.

이 선언서에는 “전쟁의 위협에서 멀리 벗어나서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사는 모든 자유인민들이 기쁘게 협조하는 것 만이 세계영구평화의 참된 토대다”라고 써 있고 또한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다같이 만 자유민들과 함께 노력하자는데 우리의 의도가 있다”는 세계평화를 바라다보는 구호가 있어서 20세기 인류사상 빛나는 금자탑인 국제연합은 실로 여기서 움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43년 연합국의 반격으로 전국의 장래가 더욱 분명해지고 연합국측의 최후승리가 확실해지자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처칠 영국수상·스탈린 소련수상의 삼거두(三巨頭)는 11월 2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회의를 하고 평화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4년 4월에 미국무성은 국제평화기구의 초안을 만들어서 6월 15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제평화기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하였다.

다시 미국무성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국제기구의 초안을 7월 18일 영국·소련·중국에 보내고 국제평화기구에 관한 예비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담바튼 오크스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담바튼 오크스 회의는 1944년 8월 21일—10월 7일까지 열리었는데 여기서는 미국에서 제출된 예비적 제안과 영·중·소련으로부터 제출한 대안을 기초로 하여 활발한 토의를 한 다음 일반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제안으로 채택하여서 10월 9일에는 이를 발표하였다.

이것을 담바튼 오크스 안이라 하는데 앞으로 탄생될 국제연합의 완전한 설계도였다.

이 담바튼 오크스 안을 정식으로 토의하기 위해 주권국인 미·영·소·중 4대국은 1945년 3월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회합하자는 초청장을 약 50개국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4월 12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급서거(急逝去)로 사실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여는데 상당히 주저했으나 후계자인 트루먼 미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모든 계획을 실천하기로 하고 회의는 예정대로 열게 되었다. 4월 25일 50개국의 대표단 8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는 트루먼 대통령의 방송연설로 시작되어 날마다 회의를 거듭하였다.

전(全)대표가 참석한 전체회의는 열번 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각 위원회는 무려 4백 회 가까이 열리어 헌장(憲章) 초안의 한 구절 한 구절 세밀히 검토되었다.

이처럼 4월 25일부터 2개월에 걸쳐 신중히 토의된 다음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지어 드디어 동년(同年) 6월 25일 최후의 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체대표가 모인 가운데 국제연합헌장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았고 이튿날인 6월 26일 국제연합헌장에 각국이 조인(調印)을 끝마쳤다.

그런데 국제연합은 그 헌장의 서명으로서 완전히 그 성립을 본 것이 아니고 헌장에 대한 비준(批准)이 필요한 것인데 그 헌장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5대국과 그 밖의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한 다음 그 비준서가 미국에 기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0월 24일에 그 필요한 수효의 비준서가 미국에 기탁되어 이날 국제연합헌장은 효력을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연합은 이날로 정식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인류의 희망으로 탄생된 국제연합은 그 속에 총회 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 등 이에 따른 보조기관과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어떻게 하면 전쟁없는 사회 굿주림 없는 사회 평등한 인권의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인류의 희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오늘과 같은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서도 꾸준히 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오늘의 인류 과제는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 평화의 산실인 국제연합을 길이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 × × ×

슬프지 않은 이유

고바우 중위

특정 외래품을 내어놓고 팔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C는 혹시나 오늘쯤이면 여러 가지 외래품들이 헐값이 되려니 생각하고 명동 쪽으로 가는 퇴근 버스를 탔다. 아직도 초저녁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정리 순경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장된 표정이었다. C는 우선 N과자점에 들어가 팔빙수를 시켜놓고 주머니 속을 계산하였다. 월급을 받은지도 불과 일주일일 못되는데도 겨우 합쳐서 오천구백 환! 그만해도 웬만한 남방셔츠와 면도날 한 갑쯤은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C는 빙수값을 치르고 맞은편 M백화점에 들어갔다. 백화점은 때를 만난듯한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아래층 화장품의 점포에는 쇼윈도마다 적어도 여남은 명의 여자들이 물건들을 풀어놓고 값을 흥정하느라 아우성판이었다. 부르는 게 값이고 싫으면 그만두라는 듯이 물건을 내려놓는 장사꾼들의 거만한 태도가 다시는 그 물건을 팔 수 없는 내일의 스므나른 시간을 앞두고도 득의양양한 기세였다. 그래도 여자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두툼한 백에서 천 환짜리를 한 줍씩 꺼내어 값을 치르고 말없이 물건을 사는 것이었다. 엇그제까지도 그렇게 인색하고 한 푼이라도 깎으려던 안달스런 사람들이 오늘은 이처럼 인심이 후해지고 손님 하나라도 놓칠세라 갖은 아양을 다 떨던 디파트 걸들이 이처럼 도도해지다니.

C는 속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구나’하고 중얼거렸다. 면도 한 갑을 사려고 화장품 가게로 가려던 C는 그 많은 여자들 등살에 흥정도 못 해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C는 통로가 막히도록 뻘뻘한 사람들을 비켜나가면서 공연히 군복을 입은 채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했다. 군복을 입고 이런 날 백화점에 들어온 게 왜인지 좀 창피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C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다.

양품 점포가 촘촘히 들어선 2층에도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아래층의 경기보다는 덜 흥청거리는 편이지만 장사치들의 얼굴은 그래도 활짝 피었다. C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남방셔츠가 걸린 점포로 가려다 문득 발을 멈추었다. 거기엔 친구 K가 겨울 속내의며 코트, 잠바 등을 펼쳐가며 물건을 고르고 그 옆엔 얼마 전 약혼했다던 J양이 스웨터와 하이힐 등을 움켜쥐고 흥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C는 약혼식에도 가보지 못한 죄스러움과 그들과 마주치면 창피할 것 같아서 뒤를 돌아 다른 점포를 찾았다. 그런데 C를 부르는 어떤 귀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C는 누군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오른쪽 모퉁이의 쇼윈도 안에서 손을 쳐들고 자기를 부르는 Y를 보고 그곳으로 걸어갔다.

Y는 대학 동창으로 C와는 학교를 나온 후 네 해 만에 처음 만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척 반가워하였다. Y는 학창시절에 별로 신통하게 공부는 안했지만 졸업을 하자마자 당시 정부의 모 고위직에 있는 아버지의 덕으로 관청에 취직이 되어 동창들은 모두 Y를 부러워했던 터이었으나 4·19 혁명으로 그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Y는 이번 5·16 군사 혁명정부에 의하여 병역기피자로 적발되어 직장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것처럼 대학 시절엔 외래품만 갖고 다니던 Y도 지금은 허름한 차림에 얼굴에 핏기마저 잃은 듯이 보였다.

“그래 C군 자넨 재미가 어떤가? 아주 군인 냄새가 푹푹 나는군”

“나, 난 뭐 재미야 그저 그렇지”

군복을 입은 C를 보고 부러운 듯 묻는 인사말이었지만 Y의 달라진 모습에 정신이 팔린 C는 그저 우물우물 대답해버렸다.

“그래 이렇게 군복차림을 하고 무얼 사러 나왔나? 살 게 있으면 여기서 골라보게 싸게 서비스할 테니”

이 말을 듣자 C는 정신이 쫄쩍 났다.

‘아, 내가 군인의 신분으로 외래품을 사러 오다니... 더구나 이 난장판에...’

면구스러운 감정이 전신을 흐르자 어떻게든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같은 놈이 있으니, Y 같은 사람도 있지. 내가 Y보다 나은 것이 무어란 말인가!’



Y는 어느새 장사꾼식 흥정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리고 자기 아주머니가 경영하는 점포인데 요즘 손이 모자라 노는 손에 도와주기 위하여 나왔다는 변명을 털어놓으면서 바빠서 긴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무거나 마음 내키는 물건을 고르라고 했다. C는 그냥 돌아가고 싶었으나 이제와서 이는 친구를 그냥 돌아서기도 멋쩍고 해서 아무거나 한 가지를 사가지고 가려고 팔다 남은 듯한 몇 가지 중에서 푸른 바둑판 무늬가 든 남방셔츠를 골라 값을 물었다. Y는 멋진 것을 골랐다고 수선을 떨더니 육천 환씩은 받아야 할 테지만 삼천오백 환에 서비스하라고 생인심을 썼다.

C는 속으로 보통 때 팔던 값과 다를 게 없다 생각되었지만 더 깎자고 하기도 싫어 건성으로 고맙다고 했다. 그때 C는 값을 치르려 주머니 속의 돈을 꺼내려 하였다.

아차 아차 N과자점에서 빙수값을 치르고 확인을 했던 왼쪽 바지 주머니의 오천칠백 환이 백 환짜리 동전 둘만 남고 온데간데가 없다. C는 놀라우면서도 혹시나 하고 다른 주머니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틀림없이 오백 환짜리 열 한 장을 소매치기 당하고 동전 두 푼만 남아 있었다. C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C는 겨우 Y에게 싸던 걸 도루 풀라 하곤 어리둥절 말 한마디 없이 사람들 속을 지나 층층대를 급히 뛰어 내려갔다. 물건 하나 못 사들고 나오는 초라한 꼴을 누구에게라도 들길까 봐 고개를 꼭 파묻고 Y백화점을 나와 한참을 바쁜 걸음을 내달아 소공동길을 빠져나온 후 C는 한숨을 푹 쉬고 터덜터덜 맥없이 집으로 향하였다.

저녁상을 물리고 소매치기를 당한 일을 곰곰이 생각하였지만 언제 주머니 돈을 빼어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C는

물끄러미 천정만 쳐다보며 담배만 빼끔거렸다. 거만스런 디파트 걸의 알미운 모습과 돈을 물 쓰듯 하던 인심 좋은 고객들의 수많은 얼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당황해하던 자기의 모습이 푸우하고 내어 뺏는 연기 속에 어른거렸다. C는 화가 치미는 감정을 겨우 가라앉히고 석간신문을 펼쳤다. 큼직한 사진과 장기알만큼이나 큰 활자와 백발 길을 엮어 쓴 톱기사가 언뜻 눈에 띄었다.

‘마지막 사치, 부르는 게 값. 백화점은 발각 뒤집혀, 화장품 7, 8할이 가짜인데’C는 가시의 제목을 보자 머리가 멍하게 울렸다. 백화점의 통로를 메우듯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 몇 해를 두고 쓸 화장품을 이십여만 환 어치나 사던 정신병자들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M백화점에선 가짜 화장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을 것을 생각하며 이 악몽같은 밤이 어서 지나기를 바랐다.

옆집에서는 육천 환짜리 코티분을 만이천 환씩이나 주고 사 온 아내를 꾸짖는 남편의 소리가 쟁하니 골목을 울렸다.

(필자(筆者)·공군대학군무(空軍大學勤務))



남(南)쪽으로 가는 길

이원복(李元馥)

해발 천이백 사십일 미터의 험준한 백암산 중봉.

밤이 열비쳐 회부연한 준령(峻嶺)에는 지루하도록 눈이 내리고 있다. 몇 날을 두고 삶과 죽음의 울부짖음이 침침한 하늘 끝에 사무쳐 있는 이 준령도 이 밤은 싸늘하다 싸늘한 정밀만이 간간 눈을 인 무거운 관목가지를 전율시킬 뿐. 그리고 함박눈은 물결처럼 이곳을 간만(干滿)한 수많은 전설을 고이 묻어두기 위해 쓰린 상처와 서러운 기억 위에 한 잎 한 잎 조화(吊花)같이 쌓이고 있다.

이 눈으로 이 준령의 노루와 멧돼지들까지도 길을 잃은 채 움짱을 못했다.

동굴 속에 앉아서 내려 쌓이고 있는 눈송이를 내다보고 있는 승(崇)은 이따금 북방쪽에서 들려오는 포성보다 그 포성에 놀란 맹수들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내리기 시작하면 애슬나무의 키가 잠길 듯 내려 쌓이는 눈을 오히려 더 불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음산한 언덕 위에 설정한 보초선으로 나가야 했다. 보초 임무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짐승처럼 사람의 눈을 피해 험한 준령에 숨어 있었던 기나긴 시간이 그의 턱과 뒷머리에 흐르고 있었다. 가마솔같이 거친 턱수염, 뒷덜미를 뒤덮은 머리카락. 그리고 영양실조로 그의 몸은 무섭도록 뼈만 남아 있었다.

그는 뼈만 남은 손에 소제(蘇製) 아식보총을 들고 영큼영큼 보초선으로 기어 나갔다.



백암산 아지트.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지트는 최후의 교두보였다.

연합군의 반격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패전을 당해 소속대까지 잃고 겨우 목숨만을 건져 더 가고 올데도 없이 이 백암산에 집결한 인민군 패장병인 그들은 이 지점을 죽음으로 지켜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유격대까지 편성을 했다.

그들은 이 패장병들의 집결체를 태백지구 제일 인민유격대라고 불렀다.

대 명칭은 어마어마했지만 그러나 총인원은 열두 명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 그들이 이곳에 집결했을 때의 병력 수는 육십을 넘었었다. 그 후 수회에 걸친 지방 방위대의 토벌작전으로 많은 대원들이 사살을 당했지만 그것보다 기아와 혹한에 이겨나지 못해 쓰러지는 자와 귀순자로 지금 그들의 수는 겨우 열두 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들의 패배는 무력에 의한 전투보다 귀순자들에 의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승은 귀순자들을 적 이상으로 미워하는 척하며 오늘날까지 자신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 왔었다.

그들이 한강 아지트에서 최후의 교두보인 백암산 아지트로 옮겨 온 지도 벌써 닷새가 지났다. 더구나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에겐 연락 루트가 두절 된 관계로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리도 없었고 더구나 원군 같은 것은 바랄 처지도 못 되었다.

이렇듯 열두 명의 인간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백암산 아지트에 목숨을 걸고 아사를 기다리는 자유,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최후였다. 이렇게 죽음일보 전에 직면하고 있는 그들은 차라리 영웅이라기 보다는 흡사 미물에 가까운 존재였다.

삼일 전.

그날이 바로 소유하고 있던 식량이 마지막 떨어지던 날이었다.

아사 직전에 직면한 열두 명의 인원이 토굴 속 어두컴컴한 등잔불 밑에 모여 앉아 비장한 결의 아래 구수 회의를 열었다.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회의였다. 그러나 회의는 두 시간이나 계속되었지만 유별난 전략이 서지 못했다.

아사를 기다릴 것인가?

국군에게 귀순할 것인가?

토벌대의 포위망을 뚫고 식량을 조달해 올 것인가?

이 세 가지 조항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이를 수 있는 것은 귀순한다는 것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좀처럼 흘러나올 리 만무였다.

귀순이라면 배반이고 반역 행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반자에 대한 처단을 글자 그대로 무자비하게 했다.

그렇다고 그런 처단이 두려워서 구부리고 앉아 할 말을 못하고 있는 승은 자신을 몹시 괴로워했다. 주의와 사상이 피보다 진할 수 없다는 것은 승 자신이 수 없는 전투에서 경험한 그대로였다.

그러나 승은 이날 열한 명의 눈과 귀가 있는 앞에서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다만 이날의 결론은 끝까지 앉아서 죽음만을 기다릴 순 없다는 것이었다. 토벌대의 포위망을 뚫고 식량을 조달해 오자는 것이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어젯밤 그들의 일부는 식량을 구할 목적으로 눈길을 더듬어 산을 내려갔다. 다만 백암산 아지트에 남은 것은 유격대장이며 인민군 대위인 선덕(善德)과 인민군 중위이며 유격대에서 문화책을 맡고 있는 영식(英植) 그리고 승 세 명 뿐이었다.

죽지 않으려고 대원들을 하산시킨 대장 선덕의 얼굴엔 진중일 우울과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었다. 그것은 산을 내려간 대원들 중에서 있을지 모를 배반자 때문에 앞서는 걱정이었다.

× × ×

낮엔 영식이 보초를 쳤다. 그러니 밤부터는 물론 승이가 보초를 서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극도에 달한 굶주림과 피곤은 모든 일체를 귀찮게 만들었다.

콧등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더욱 차기만 했다.

넓적하게 빠져나온 바위 밑으로 가서 앉은 승은 손에 들고 있던 장총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굳어버린 듯 움짱도 않고 그는 낭떠러지 언덕 밑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경계하는 긴장한 눈초리가 아니라 이미 얼어 붙은듯싶은 동공의 무의식적인 동작이었다.

얼마 후 옷소매로 스며드는 싸늘한 감촉으로 승은 무릎에 놓은 소총 뿔뿔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다. 딸깍하고 고리가 충신 목판을 치는 소리를 냈다. 건디기 어려운 죽음같은 고요가 그의 전신을 엄습했다.

그러자 연합군의 포성 소리가 험준한 준령의 빙판을 타고 들려왔다. 포성과 눈송이와 그리고 험한 산이 있다는 의식조차 승은 이따금 잊고 있었다. 다만 멈추지 못하고 지루하게 나리고 있는 눈이 비겁스럽다고만 할 수 없는 탈주병을 연상시켰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승은 탈주병보다 더 비겁스러운 자기 모습을 발견

하곤 했다.

공포와 불안과 긴장에 쌓여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때면, 똑 하고 바위 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돌덩어리 소리에 또다시 겁에 취한 자리를 발견하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되찾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등진 모든 자유. 견딜 수 없는 굶주림과의 공포. 그런 속에서 더욱 목마르게 바래지는 자유. 탈출이 무서우면서도 어째서 자유가 그리운가. 파상적으로 밀려 닥치는 자유에의 그리움. 그 그리움 속에서 더욱 생생히 피어오르는 하나의 결단심—

그 결단심은 바로 탈출이었다.

진정한 자유가 이 백암산 속에 있을 것만 같은 환상에서 오늘날까지 탈출을 망설여 왔던 승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무력했던 자신을 통감했다. 그리고 자기 운명의 현존을 깊게 느끼며 참다운 행동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조로움이 빚어내는 주위의 광량한 풍경과 등골까지 쿨쿨 울리는 굶주린 빈창자의 움직임에 승은 기력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맑아지는 달빛 모양 그의 의식은 또렷해 왔지만 녹슨 총대를 의지하고 있는 몸은 자꾸 옆으로 쓰러져 갔다.

‘이대로 앉아서 쓰러져 죽어야 할 것인가’

이런 강박의식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아직 보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얼어붙은 눈꺼풀 밑으로 흘러 내렸다.

녹슨 장총을 겨우 의지하고 일어난 승은 다시 낭떠러지를 굽어보았다. 다만 간헐적으로 준령을 타고 흐르는 메아리만 울릴 따름이다.

‘미친놈들…… 이 산중에 무슨 자유가 있다고 빙판 위에서 보초를 서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승은 녹슨 총을 손에 들었다. 딸각하고 고리가 총신 목판을 치는 소리를 또 냈다.

승은 손에 든 총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따위 총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는 들고 있던 총을 그대로 낭떠러지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도 싶었지만 행동상으론 언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눈에 무서운 절망의 그림자가 날개를 펴 왔다. 이 준령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

‘이런 생활을 하루라도 더 계속해야 한다면 차라리 자살을’

승은 방아쇠울에 손가락을 끼고 총구멍을 이마에 갖다 대었다.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오지 않았다. 얼었을 총구멍이었지만 차가움조차 느껴볼 수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허덕여온 것은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를 자신이 박탈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새로운 생각에 전율을 느꼈다.

그렇다고 한번 잡은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떼어버릴 수 없었다.

승은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며 뜻 모를 웃음을 썩긋 웃었다. 지금 그는 자신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뻐던 것이다.

승은 하늘을 향해 총구멍을 쳐들었다. 순간, 준령을 뒤흔드는 듯한 요란한 총성이 계곡을 흘러가다 어느새 뒤돌아 이쪽으로 다시 흘러왔다.

승은 별안간 통쾌스런 웃음을 터뜨렸다.

삼팔선에서 낙동강 오르내리는 전선에서 수천 수만 발의 총을 쏘아 본 승이었지만, 지금 같은 통쾌감을 느껴보진 못했던 것이다.

총탄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아껴야 하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 승에겐 그런 규율이 필요치 않았다. 그것을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었다. 이 험한 준령 속에서 자기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승이로선 지금 그런 것에 구애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갖지 않았다.

승은 또 방아쇠를 다렸다. 두 번째의 요란한 총성이 준령을 뒤흔들어 놓았다.

“야, 하늘도 나처럼 멧덩구리구나”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난 승은 또 썩긋 웃었다.

그 웃음은 조소가 아니었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억제치 못해 웃는 웃음이었다.

× × ×

때이던 두 발의 총성으로 자지러지게 놀란 것은 백암산 아지트 속에 남아 있던 선덕이와 영식이었다.

선덕은 영식보다 더 가슴이 활랑거렸다. 그러지 않아도 식량을 구하러 산을 내려간 대원들을 경계하고 있었던 때라 그의 놀람은 만 때에 비할 바 아니었다. 그 총성이 먼 곳에서도 아니고 바로 동국 밖에서 울리는 소리니 심장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영식 동무 이게 무슨 총소릴까?”

공포에 쌓여 있는 선덕은 안타깝게 영식의 대답을 기다렸다. 견디기 어려운 침묵의 순간. 대답이 없는 영식의 가슴도 심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듯했다.

선덕은 영식에게로 한걸음 다가앉았다.

“영식 동무!”

영식은 선덕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나도 영문을 모르겠는데요.”

“그럼 빨리 나가서 주위의 동정을 살펴보오.”

그런 선덕이 말에 영식은 등을 꺾는 불덩어리 같은 공포를 느꼈다.

단 들뿐이지만 어데까지나 선덕의 말은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지만, 그것보다 영식은 바깥일이 더 궁금해 왔다.

영식은 모든 공포와 불안을 짓누르고 등골 밖으로 나갔다. 그는 곧 눈 쌓인 나무 밑에 엎드려서 주위의 동정을 살폈다.

승

가까운 어느 바위 밑에서 자기 모양 엎드려서 주위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승의 존재가 궁금했다.

그때 앞쪽에서 소스라치게 웃는 승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영식은 멈칫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 웃음소리를 한참 듣고 있던 영식은 그 소리에 흘러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얼마 후, 방금 전의 그 총장난이 승의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영식은 적이 놀래기도 했고, 한편으론 안심도 했다.

그는 곧 보초선이 있는 바위 밑으로 내려갔다.

“승 동무! 그게 무슨 장난이요.”

날카로이 쏘아치는 영식을 힐끗 쳐다보는 기호 눈엔 살기가 흐르고 있었다.

“왜? 자네까지도 불만인가? 멧돼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총으로 하늘을 쏘았다고 무슨 잘못인가?”

흠어진 머리와 살기가 흐르는 승의 두 눈이 조심성 있게 영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쏘는 영식은 아무런 대꾸를 못 했다.

“영식 동무, 이제 나에게 이따위 총이 필요없어. 왜냐하면 총으로 자유를 구속한다는 그것부터가 큰 잘못이라는 것을 난 비로소 알았네. 그리고 보니 동무나 나나 다 바보들이었어. 그래서 이 총이 나에게 필요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 총을 동무에게 준다면 나를 구속하고 또한 동무 자신의 자유도 억압할걸세.”

그리고 승은 들고 있던 총을 으스스한 낭떠러지로 내동댕이쳤다. 바위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쇠소리가 요란했다.

순간 영식은 승의 어린애 같은 태도에서 별안간 치미는 격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들고 있던 장총을 승의 가슴을 향해 겨누었다.

“그럴 줄 알았다. 내 가슴에다 그 총을 겨누면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쏘겠단 말인가? 하하하!”

승은 영식의 행동을 몹시 조소하듯 웃었다.

대(隊)를 파괴하고 배반하는 자를 향해선 즉석에서 처결한다는 지금까지의 사고가 무의식 중에 선행하여 취한 영식의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조소하듯 크게 웃고 있는 승의 대담성 앞에 총을 겨누고 있는 영식은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총을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나서 흥분하고 있는 승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승 동무, 진정하오. 내가 잘못했소.”

영식의 말은 극히 부드러운데.

“진정을 하다니 어떻게 진정을 하란 말인가? 나는 이런 밤이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아 진정할 수가 없어. 그대 영식 동무는 절망뿐인 이 산속에서 자유를 그리워했는진 모르나, 그것을 발견해 본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 말해봐!”

얼마 멀지 않는 곳에서 굶주린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영식 동무, 이 무서운 억압에 따르는 굴복과, 발광할 듯한 기아 속에서 자유가 자라날 수 있다는 논리는 인간을 배신한 -더구나 그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지—. 자유란 어디까지나 따듯한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야. 나도 바보처럼 그것을 모르고 지내왔단 말이야. 나는 지금 그 자유가 그리워서 이곳에 더 있을 수가 없네 동무, 그리고 보니 내가 무서운 반역자이지? 내가 이런 말을 동무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품고 왔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벌써 동무들로부터 삶에 대한 자유를 박탈당해야 했을걸세. 살육으로만 혁명이 있고 자유가 있다니 이런 생지옥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또렷하게 말하고 난 승은 맑은 눈으로 다시 영식을 바라보았다. 영식은 말이 없었다.

“동무! 선덕이 같은 무지한 놈은 항상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었지! 사람은 자기 생명에 한 개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우리가 만일 이 산속에서 그 놈의 말대로 해방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 보세. 우선 사람이 살고서 해방도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죽은 뒤에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말이야. 그렇지”

영식은 지금까지 승이 해온 말을 하나하나 기억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이 살고 있는 따스한 마음이 점점 그리워 왔다.
그리고 승의 말대로 가난할망정 인정이 흐르는 속에 근심도 위협도 없이 살아가는 산 넘어 먼 마을들이 상상을 초월하여 눈앞에 어른거려 왔다.

‘나 역시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과 함께 모든 과거를 수포로 돌려야 할 자기가 괴로워 왔다.
“승 동무, 그럼 어떻게 할 예정이요?”
영식은 승의 손을 안타깝게 흔들면서 물었다.
쿵! 쿵~ 하고 멀리서 포소리가 들려왔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그리고 또다시 되돌아 오는 포소리.
“동무! 지금 저 포소리를 들었지! 아무리 우리가 이 산속에서 고생을 해도 필요없는 것이야. 난 가겠어. 자유에 굶주렸으니까 결사적으로 자유를 찾아가야지”
“우리가 이곳을 버리고 산을 내려간다면 능히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영식의 물음은 딱 절박했다.
“이 못난 사람 같으니.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오늘까지 이 산속에서 요 고생을 면치 못하고 있던 거지”

승의 그 말은 영식의 가슴속을 아프게 찔렀다.
“동무! 난 자유를 누리며 아늑하게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겠어”
“승동무!”
영식이 불들려고 하는 손을 뿌리친 승은 눈 쌓인 길없는 날카로운 바윗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 순간 그는 승 모양 눈 쌓이는 낭떠러지 밑으로 장충을 내동댕이쳐 버렸다. 그도 이제 그런 무기가 소용없다고 느꼈던 것이다.

승이 대를 배반하고 자유를 찾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었던 심정을, 총을 버리고 난 뒤에야 영식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역시 승이 산을 내려간 것은 배반이 아니었다. 다만 인간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 그것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동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괴로움을 이기려는 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 일순에 영식은 자기의 과거를 일별했다. 공산 치하에서의 갖은 시련, 온갖 전투에서 많은 고통과 굴욕을 참으며 생명을 잇기에 얼마나 애를 썼던가. 그런데 지금은 공포와 아사 직전에서 허덕이는 몸. 그리고 목숨을 걸어 논 백암산 아지트.

영식은 이제 아무도 겁나는 것이 없었다. 다만 과거가 후회스러울 뿐이었다.
함박송이 같은 눈은 그의 어깨 위에 한 잎, 한 잎 내려 쌓이고 있었다. 그는 또 한 번 동굴을 올려 보았다. 그 동굴 속에서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을 선덕의 모습이 번개불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갔다.

‘그놈을 죽이고 가야 한다’
그는 선덕을 죽이고 떠나겠다고 결심은 했으나 총이 없었다. 버린 총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비상 호신용으로 가슴 속에 숨겨 가지고 다니던 소제 때때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동굴을 향해 올라갔다. 가슴이 후들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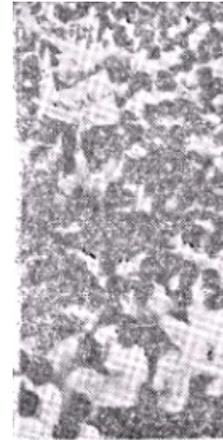
“선덕 동무, 째짜 말고”
동굴 밖에서 선덕의 가슴을 겨누고 날카로이 쏘아지는 영식의 목소리. 아무 영문도 모르는 선덕은 킁킁한 동굴 속에서 멍뚱 그 자리에 섰다.

“나도 자유가 그리워 배반을 하련다. 나도 이제 참된 인간이 되려고”
영식은 선덕을 뚫어질 듯이 쏘아 보았다. 그러나 말없이 영식을 맞 쏘아 보고 있는 선덕의 얼굴엔 한 올 공포의 빛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경화된 선덕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선덕 동무는 날 반역자라고 부를 테지?”
그리고도 영식은 방아쇠를 쉽게 다릴 수가 없었다. 총으로 선덕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그의 마음은 까닭 없이 설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더 이상 겨누고 있을 수만 없는 일이었다. 그는 두 눈을 스투스투 감으며 힘껏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탕!

세 발의 총성은 고요한 준령의 새벽 공기를 무섭게 뒤흔들어 놓았다.
세 발의 총탄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진 선덕은 가느다란 비명으로 그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었다.
영식은 비명마저 끊어진 시체 위에 권총을 내던지고 천천히 동굴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뺨에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이마에 땀이 배에 오른 것 같았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호젓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소매로 이마를 한번 쓱 닦고는 멀리 뒤편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는 한 번 빙그레 웃자 얼른 그곳에서 남쪽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끝—



부록(附錄)

<특별정훈교육자료(特別政訓教育資料)>

1.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의 성격
2. 군사원호관계(軍事援護關係) 법률제정(法律制定)의趣旨

1.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의 성격

1.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의 목적(目的)과 본질(本質)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전국민이 청신(淸新)한 기풍을 배양하고 신생활체제를 견지하며 반공이념을 확고히 하는 것’을 재건을 위한 국민운동의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곧 과거의 모든 부패와 부정, 그리고 고질화(痼疾化)된 제반 구악(舊惡)과 구습(舊習)을 일소(一掃)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진정한 민주주의를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운동의 목적임을 뜻한다.

해방 후 15년간에 걸쳐 걸여온 우리들 국민의 생활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며 불건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랜 시일에 걸쳐 하나의 습성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정상적인 생활 태도같이 느껴지고 있으며 도리어 건전한 국민 생활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은 비정상적인 생활 태도를 배제 지양하고 일견(一見) 비정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새로운 정상적 생활 태도로 돌아가는 데에 국민운동의 제1차적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국민 각자의 의(衣)·식(食)·주(住)·행(行)에 걸친 내적 외적인 생활 태도에 있어서 과거의 비정상적이며 불건전한 요소가 일소될 것이며 이에 따라 올바른 자유이념과 참된 민주주의식이 확고하게 그 뿌리를 박을 수 있게 될 것이니 그로서부터는 과거와 같은 부패와 부정의 짝은 움틀 수 없다.

요컨대 재건국민운동은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식을 국민 각자가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최종적 목적인 것이다.

전자에서 말한 생활의 정상화와 후자에서 말하는 참다운 자유와 민족이념의 확립은 표리관계에 있는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는 날에 있어서는 국민의 귀중한 한 표로써 그야말로 국민 혁명적 정신에 투철하고 군사혁명주체와 일심동체인 청신한 인사가 이 나라 정치계에 등장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피와 땀은 곧 경제적 자립의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들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은 사회면을 물 맑게 할 것이니 이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역량은 공산도배(共產徒輩)와 대결해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혁명공약 제1에 적시된 반공이념의 확립을 비롯하여 그 제6에 명시된 참신한 정치인의 등장을 가능케하는 첩경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민의 자발적인 운동 전개가 긴요한 것이다. 원래 국민운동의 본질은 거국적인 민의에 의하여 자발 자진하여 전개되고 동일목적은 동일한 이념으로써 쟁취하려는 전국민의 활동에 불외(不外)한 것이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운동을 직접 기획 지도하거나 정부기구화한다는 것은 확실히 국민의 자발적인 총력 발휘를 저해할 염려가 없지 않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5·16 군사혁명 이후의 국내정세에 비추어 그러한 운동을 자연발생적 추진에만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만약에 ‘아래로터의’ 자진운동에 방임한다면 자칫하면 분파적 작용으로 인하여 격심한 혼란이 야기 될 것은 8·15 직후의 전례에 비추어보아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며 이로써 도리어 혁명과업의 수행은 커다란 장애로 말미암아 그 성취가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혁명정부는 국민운동의 긴요성에 비추어 불가불(不可不) 이를 육성지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며 국가 예산을 책정 배당하여 이 운동의 실천적 활동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국민운동의 근본 취지가 구국애족(救國愛族)의 일념에 불타는 혁명정부의 순수한 의도의 발산에 틀림없을 진대 타율적 방식이 등장한다고 하여 이를 배격 비난할 근거는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은 기꺼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민운동이 혁명과업완수라는 대목적을 정확히 파악한 전국민의 끓어오르는 기백과 일어나는 박력의 커다란 울동(律動)이라고 볼 때 이는 국민 각자로서 필연화된 운동일 것이다. 이것 없이는 국가와 민족은 공산화되고 마는 것이다.

8·15 해방 이후 우리는 6·25의 참상과 4·19의 시련 그리고 5·16의 군혁명을 겪어 왔다. 금반의 군사혁명은 속담에 있는 ‘삼세 번’이란 말과 같이 우리의 국가와 민족사에 있어서 마지막 시련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번의 군사혁명과업은 기필 성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역사적 귀추로서 성취될 것이 명백하다. 만의 일이라도 군사혁명과업이 순조롭게 성취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뒤에 올 것은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생산의 위축과 국민 사기의 저하 등으로서 이는 공산적도(公産敵徒)의 노리는바 소지(素地)가 되어 중국에 가서는 공산혁명이 이 나라를 휩쓸고 말 것이다. 이점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일부층에서는 아직도 혁명정부나 국민운동에 대하여 백안시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자가 있지만은 그들이 과연 혁명과업의 실패를 원한다면 그 뒤에 올 공산혁명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이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용공분자(容共分子) 밖에 없을 것이다. 용공적 악질분자가 아니고서 국민운동에 자진 적극참획(積極參劃)하는 것을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그로서 얻어지는 소득이란 자기멸망 이외의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때는 우리들이 당연히 도달하는 국민적 자각은 5·16 군사혁명정부와 생사를 같이해야 한다는 확신일 것이고 이러한 국민적 자각이 곧 국민운동의 핵심적 이념이 된다.

2.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과 조직체제(組織體制)

재건국민운동은 이상에 약속한 바와 같은 목적과 본질에 입각하여 전국민의 자발적 협력과 자진 참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국민운동은 단순한 행사의 개최나 어떠한 특정의 활동만을 일삼는 운동이 아니라 국가재건의 실현화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민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운동은 전국민의 거주적(學族的) 조직을 기반으로 삼음과 동시에 행정부와의 긴밀한 연결 관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연결 관계는 양자의 단순한 연행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궁극에 있어서 혁명과업의 수행이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함에 필요한 일원적인 통합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하여 일원화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서 재건국민운동은 그 본부를 최고회의의 직속에 두게 되며 행정부는 이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 각 부 기타 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의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부의 협조는 단순한 협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운동을 종합적으로 추진 전개 하는데 있어서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일체의 국민운동이 통할(統轄)되도록 되어 있다.

전기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이 곧 그것이다. 즉 재건국민운동본부는 전조의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제반 정책의 지침과 방향을 정하고 그 사업의 통할 조정 지도 및 실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였는바 이것은 종래에 있어서 행정 각부가 단편적으로 그 시책면에 관계되는 계몽사업을 행하여 옴으로 인하여 국가전체로서의 체계있고 종합적인 계몽사업의 수행이 어려웠던 사실에 비추어 앞으로는 국민운동의 종합적, 계획적 그리고 조직적인 활동을 재건국민운동본부가 담당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민운동은 중앙본부의 지휘 감독하에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재건국민운동지부를 두며 그 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가 겸하기로 하였으니(법률 제7조) 이는 곧 정부행정기구와의 긴밀한 연결과 협조가 없이는

국민운동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행정에 있어서의 재건업무의 수행이 국민운동의 자율적인 토대 위에서 비로소 그 원활한 진전을 갖게 되며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기구단위와 국민운동체제의 병행조직은 ‘구 군(市) 읍 면 동(里) 등 그 말단에까지 지구(地區)재건운동추진회라는 명칭하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까지나 그 유기적인 유관성과 상호협조관계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민각자의 창의를 의하여 조직된 각종의 사회단체기구집단에 집단별 재건국민운동추진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이 역시 국민운동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전개와 그 조직의 거국적 유기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제8조는 재건국민운동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 중 지도층에 속하는 청신한 민간인사들로 하여금 본부 및 주체세력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건국민운동은 문학 그대로 국가재건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서의 성격과 조직을 갖추으로써 거국적인 체제를 완비할 수 있는 것이다.

3.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의 7개 실천요강(七個實踐要綱)

제2조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의 실천 요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즉

1. 용공(容共) 중립사상의 배격
2. 내핍생활의 여행(勵行)
3. 근면 정신의 고취
4. 생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
5. 국민도의(道義)의 앙양(昂揚)
6. 정서 관념의 순화
7. 국민 체위(體位)의 향상

물론 재건을 위한 국민운동은 반드시 상기 7개 사항에 국한되어 전개되는 것은 아니나 주로 상기 7개 사항을 실천 요강으로 하여 필요한 민(民)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1) 용공 및 중립사상의 배격

용공중립사상의 배격 운동은 혁명공약 제1을 국민 운동에 의하여 뒷받침하여 그것을 ‘아래로부터’ 달성하려는 것이다. 즉 혁명공약제1에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제정비 강화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5·16 군사혁명의 대의를 명백히 한 것으로 공산당의 간접침략을 분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로 하여금 철저한 반공사상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중립사상은 공산당이 현단계에 있어서 그 세계적화를 위한 은폐 전술의 하나로서 비공산주의 전역에 침투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중립사상도 한국의 현정세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곧 용공 사상과 직결되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2) 내핍생활의 여행

의식주 등 일체의 일상생활로부터 모든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수입 내 지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거에 있어서 다수의 국민들이 이 원칙을 벗어나서 하나의 허영에 불과한 수입 외 지출을 일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부정당한 수입을 마치 정당적 수입으로 오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가 조장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내핍생활의 여행운동은 일체의 부정불법을 미연(未然)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내 지출이라는 생활 원칙을 준수하는 습관을 기르며 나아가서는 생활면에서 안내하는 국민 기풍을 가짐으로써 앞날에 있어서의 국민경제의 신장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3) 근면정신의 고취

전항의 내핍생활의 여행운동이 하나의 지출억제의 절제생활 운동임에 대하여 이 근면정신의 고취 운동은 그와 대비되는 출입 증가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휴(遊休) 도식(徒食)하면서 의타적(依他的) 기생(寄生)생활을 하는 나태(懶惰)를 일소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심을 근절하고 국민개노(皆勞)의 건실한 생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확신하고 어떠한 노동이라도 종사할 수 있다는 근로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국민소득의 증가를 꾀해야 할 것이다.

(4) 생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

민족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자본의 형성 확보는 하나의 근본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제는 정부의 경제시책에 있어서 추진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나 국민들의 자각과 자발적인 생산 건설의식의 증진이 아울러 있어야 한다. 일체의 유휴자금을 생산화하는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니 국민들의 창작 발안력(發案力)의 증진과 저축 정신의 함양과 행실을 권려(勸勵)하는 운동과 아울러 혈벗은 산천을 보호 육성하고 부족한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국민 공동의 복지와 이익을 적극 증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 제2에서 본항 제4에 이르기까지의

실천 요강은 혁명공약 제4의 정부 시책과 포리를 이루는 만큼 곧 '절망과 아아선상(餓餓線上)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립경제제건에 총력을 경주(傾注)한다'한 공약에 대한 '아래로부터의'국민재건운동인 것이다.

(5) 국민도회의 양양

그릇된 민주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의 자각보다도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추구만을 일삼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공익성은 무시되고 망각되기 쉽다.

과거 우리 국민들은 이 점에 있어서 심한 혼란과 무질서 상태를 겪었으니 이제 공익 선행의 신조를 생활에 있어서 실천하고 일체의 부정불의의 원인이 되었던 이기사상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6) 정서 관념의 순화

저속(低俗) 외설(猥褻)한 풍조를 생활 주변에서 일소하고 건전하고 착실한 취미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마음의 후진성과 영퇴성(嬰退性)을 타파해야 한다. 퇴폐적이고 염세적인 감정을 버리고 명량하고 희망에 넘치는 생활감정을 기르도록 하는 국민운동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긴급하다. 전항의 국민도회의 양양운동과 함께 이 정서관념의 순화운동은 혁명공약 제3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국민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혁명공약 제3은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회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고 밝혔다.

(7) 국민체위의 향상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고 하는 말과 같이 국민운동에 있어서 국민정신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위의 향상운동이 아울러 전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건전한 국민체육운동으로써 국민체위의 향상을 기한다는 것은 국토제건의 국력배양에도 기여될 수 있는 것이다.

※ 이상의 7대 요강의 각 요강별 운동내용을 일별(一瞥)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 | | | |
|--|---------------------|------------------------|---------------|
| 1. 용공중립사상 배격 | (a) 교통도덕 양양 | (b) 시간 엄수 | (c) 기일(期日) 내 |
| (ㄱ)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비판하고 북한의 실정과 참상을 조사 분석 및 폭로한다.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ㄹ) 부정 부패 일소운동 | (ㄴ)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ㄴ) 민주사상에 대한 계몽운동 | (ㄹ) 봉사운동 | (ㅎ) 상도의 양양운동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ㄷ) 민족구지 양양 운동 | (ㄱ) 가족계획 운동 | (ㄴ) 파벌근절 운동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ㄹ) 국제협동정신 운동 | (ㄴ) 국민총단합 운동 | (ㄷ) 건설적인 국민가요개창 운동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2. 내핍생활의 여행 | (ㄱ) 건설적인 국민가요개창 운동 | (ㄴ) 건전한 예술적 취미의 권장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ㄱ) 내핍생활운동(수입내지출생활운동) | (ㄴ) 건전한 오락의 조장 | (ㄹ) 공공시설예호(愛護) 운동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ㄴ) 의복간소화 운동 | (ㄹ) 지역문화개발 운동 | (ㅎ) 농산물 민예품(民藝品) 장려 운동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ㄷ) 생활합리화 운동 의식주의 개선 | (ㄱ) 재건체조 보급운동 | (ㄴ) 민속 기경(技競) 장려 운동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ㄹ) 의식(儀式)·행사간소화 운동 | (ㄴ) 민속 기경(技競) 장려 운동 | (ㄷ) 건전한 운동정신의 확립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3. 근면정신의 고취 | (ㄷ) 건전한 운동정신의 확립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ㄱ) 재건근로정신 양양 |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ㄴ)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ㄷ) 도박 및 사행행위의 금지 |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4. 생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 |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ㄱ) 창의발안력(創意發案力) 양양운동 |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ㄴ) 생산기술 습득운동 |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ㄷ) 자원보호 운동 |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ㄹ) 협동적 생산활동 운동 |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5. 도의심 양양운동 |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ㄱ) 환경정화 운동 |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 (ㄴ) 공중도의 양양운동 | | | (ㄷ) 직장도덕 양양운동 |

4. 재국민운동(再國民運動)의 행동방침(行動方針)과 사업(事業)

재건을 위한 국민운동은 전장 7개 실천 요강에 의하여 과감한 실천 운동이 '아래로부터' 전개될 것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동방침에 의거해야 한다.

(1) 조직적인 국민운동

인간의 활동이 다른 동물에 비하여 월등하게 발전적인 것의 이유는 조직적인 활동을 인간만이 실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상호협력으로 유무상통(有無相通)하고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비로소 인간은 우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제아무리 훌륭한 애국애족의 사상을 제마다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조직적인 운동으로서 전개되지 못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운동은 국민조직을 그 하나의 기본사업으로서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이 국민조직은 어디까지나 '아래로부터의' 국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직체에 불과한 것이므로 전체주의적 국민조직과는 그 원리를 달리할 것은 물론이며 어떠한 정치적 단체나 이른바 압력단체가 아닌 순수한 국민운동조직체인 것이다.

(2) 인물양성의 국민운동

국민운동이 전국민의 율동적인만큼, 이는 사람에 의한 조직적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수의 소(小)영웅이 요구된다. 기성 정객(政客)의 몰락이 필연시되는 이 마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창조되어야 하고 국민의 새로운 소지도자가 다수 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운동에 있어서는 5·16 군사혁명을 적극 지지하고 혁명의 주체와 더불어 공생공사(共生共死)하는 재야의 청신한 인사를 등용하여 이 운동조직체의 핵심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재건국민운동은 새로이 그러한 인사를 양성하는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재건국민운동훈련소가 설치된 것은, 곧 이러한 국민운동의 근본방침에 의거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훈련을 통하여 배출되는 다수의 소지도자는 5·16 군사혁명의 주체적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식으로 널리 국민대중에 파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3) 계획적 연속적인 국민운동

무릇 어떠한 사업이든지 주도한 계획이 없이는 결코 그 성공을 볼 수 없다. 국민운동 역시 체계 있는 계획적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은 체언(贅言)할 나위도 없다. 일시적인 미봉책(彌縫策)으로서의 국민운동이란 있을 수도 없거나와 결코 성공을 거둘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속성을 가진 순차적 계획 아래 모든 목표는 수행되고 달성될 것이다.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가리고 제1차적인 것과 제2차적인 것을 나누어서 일체의 실천을 계획적이며 연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과의 구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4) 민주적인 국민운동

국민운동은 본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다. 따라서 그것은 국민 각자의 자발적이며 자진 참가하는 문자 그대로의 국민운동으로서 민주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재건국민운동 현실적인 제약(諸條件)으로 인하여 그것이 정부에 의하여 추진을 보게 되었으나 이러한 현실적 조건은 다만 하나의 점화적(點火的)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며 어느 시기에 가서는 반드시 국민적 민간운동으로서의 전환을 보게 될 것이다.

(5) 신축성 있는 국민운동

광범위한 국민전체의 운동으로서의 국민운동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알맞은 국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실효 없는 획일주의 내지는 고정식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운동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국민대중이며 따라서 이 국민대중의 이질적 다양성을 몰각(沒却)하는 국민운동은 그 존재의의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도시와 농어촌의 이질성 같은 도시에 있어서도 시민생활의 계층성 그리고 남녀 노유(老幼)의 구별 및 연대별의 특이성 청년 학생층에 있어서도 그 다중성(多種性)에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며 또한 각 직종별에 있어서도 그 여건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운동의 대상이나 주체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하여 국민운동도 적절하게 신축성을 가지고 전개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상위성(相違性)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도 계몽해야 할 것이다. 지도 요원을 통한 국민 계몽은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의 특이성과 국민 각 계층의 이질성을 충분히 감안(勘案)하고 이른바 대인접촉을 통한 침투식 지도계몽을 실천해야 한다. 일체의 권위주의를 배제하고 인간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권장공려(勸獎共勵)의 계몽방식에 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각종 출판물 방송 영화 등 현대 매스컴의 모든 방법이 총동원되어야 할 것이나 국민계몽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지도층의 솔선수범에 의한 대인접촉의 직접 지도와 계몽이 가장 의의 있고 효과 있는 방식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5.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의 앞으로의 전망(展望)

5·16 군사혁명이야말로 우리나라 후진적 봉건사회상의 개혁을 단행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호기회(好機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영원히 그러한 과업은 성취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의 이 사회적 개혁이야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의 주체적의식을 확립시키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자발적인 협심력을 촉발할 것이며 이로써 국가 민족에 대한 국민적인 자각이 강해짐으로써 우리는 북한공산괴뢰와의 대결에 있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국민운동은 결코 정당(政黨) 운동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일부층에서 조언유포(造言流布) 하듯이 여당화 운운 또는 정치활동 운하는 소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국민운동은 독선적 배타운동이 아니요

<정훈자료(政訓資料)>

어디까지나 거국적인 국민 활동이므로 널리 문호를 개방하여 청신하고 열의있고 국민 혁명적 정신을 간직한 유능한 일꾼을 포섭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장구한 시간에 걸쳐 굶을 대로 굶은 일부 기성정객들에 대해서는 결코 이 나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국민운동의 조직체제는 관제적(官制的) 성격에서 완전탈피하여 하나의 순수한 민간운동체로 발전 전환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는 그 어느 누구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국민 각자의 자각과 실생활 태도에 의해서만이 결정될 것이다.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재건태세가 자율적으로 완비되는 시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운동은 그만큼 빨리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국민 각자는 5·16 군사혁명의 주체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새로이 출현하는 국민혁명적 지도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기풍을 간직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주제건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

2, 군사원호관계(軍事援護關係) 법률제정(法律制定)의趣旨

1. 제정(制定)의 의의(意義)

금반 정부는 군사원호청설치법(軍事援護廳設置法)을 위시한 군사원호관계 4개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군사원호 업무를 전담할 군사원호청을 새로 설치함과 아울러 피(被)원호자에 대한 원호 방법, 원호 기준 등을 규정하여 현재까지 명목상에만 그치고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던 군사원호제도에서 탈피하여 계속적이고 실효성있는 군사원호를 기하고자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제대군인 중 특히 상이(傷痍)군인이나 역전용사의 유족에 대한 문제는 위정당국자(爲政當局者)가 심각히 다루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정권 하에 있어서는 이것을 명목상 일시적 미봉책으로서만 취급하여 실질적으로 효과 없는 원호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으로서 국토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간성(干城)으로서 병역에 복무하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의 하나이며 국민 누구나를 막론하고 당연히 맡아야 할 의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숭고한 의무수행에 대한 보수적 결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입은 개개인의 희생에 대하여 온 국민이나 그 수임자인 위정자로서 이를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그 유족이 의지할 곳 없이 가두(街頭)에 방황하게 되거나 또는 상이군인으로서 불구의 몸이 되어 일생을 불구자로서 생도(生途)가 막연한 것을 보고 어찌 이를 방치할 수 있을 것인가. 실로 그들에 대한 대책문제는 우리나라의 현 사회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38선을 지척에 두고 반공과 실지(失地) 회복(恢復)의 중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전시태도로써 공산군과 대치(對峙)하여야 할 현실에 있어서 군사원호의 의의는 비단 그들 피원호자의 생활난과 실직으로부터의 구호를 함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희망과 애국정신을 양양시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성을 다하여 군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백만 대군의 현역 장병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바 있는 것이다.

때마침 군사혁명에 의한 군정권하에서 군사원호에 대한 시책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얼핏 군인우선주의라는 오해와 천려(淺慮)를 초래할는지 모르지만 국민은 누구나 병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으며 또 군인은 국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군사원호에 대한 확호(確乎)하고도 실효성 있는 정부 시책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것은 범국민적이 될 것이므로 도리어 이러한 정부 시책이 군사정권에 의하여 실현되었다는 것은 국가만년대계를 위하여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제정(制定)의 필요성(必要性)

피원호 대상자인 제대군인, 상이군인 또는 그 유족 중에는 사회에서 격리된 군인생활과 군의 특수한 교육으로 인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생활경쟁에 이겨낼 수 없는 자가 많으며 혹은 군의 특수교육으로 인한 지식면으로 볼 때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는 국가에 헌신한 노력에 대하여 국가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군사원호란 첫째, 사회에서 격리된

군인생활로 인하여 개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 또는 사회인으로서의 지식의 후진, 자치능력의 감소를 국가가 인정하여 이를 국가에서 보전(補填)하며 둘째, 전쟁으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은 상이군인에게는 그들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의 활동의 부족한 분을 국가가 보조하며 셋째, 순국 용사의 유족에 대하여는 조국을 위하여 몸을 바친 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유족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원래 군사원호의 발전과정은 국가에 따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 정신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여하가 군사원호제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군사원호제도로서는 토지분배, 집단사업체, 특권의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원호방식과 다액(多額)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적 해결방식도 있으나 군사원호는 어디까지나 개인별로 연금, 직업보도(補導), 정착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개인원호방식으로 함이 실효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의 우리나라 군사원호제도에 있어서도 군사원호법을 위시하여 군경(軍警)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사망금급여규정, 군인전상(戰傷)급여금규정 등이 있어 군인, 제대군인, 상이군경과 유족에 대하여 구호를 실시한 것만은 사실이나 종래의 그것은 피원호자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원호로서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또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 보건사회부, 체신부 등이 있어 기관의 분산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강력한 원호를 기할 수 없었으며 또 일반원호와 같이 취급되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그 업무가 소홀히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각 기관의 유지상 막대한 행정비를 소모하였다. 또 상이군인회나 유족회는 본래가 친목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원호단체로서 취급되는 등 행정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폐단도 부수적으로 생겨 사회적 질서의 혼란을 일으키게까지 되었던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이상과 같은 종래의 폐단을 시정하고 군사원호의 만전을 기(期)하기 위하여 금반 정부는 군사원호청 설치법을 위시한 4개법률을 제정 공포케 된 것이다.

3. 제법률(諸法律)의 주요골자(主要骨子)

(1) 군사원호청 설치법

전술한 바와 같이 본법(本法)은 군사원호업무를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통일적으로 관장할 원호청을 설치하기 위한 조직법이며 이 법의 제정으로 종래 보건사회부, 국방부, 체신부, 기타 원호단체 등 여러 기관이 분담하고 있던 원호업무는 이 원호청에서 통일적이며 강력한 집행력으로써 실시되게 되었으며 더욱이 이 법으로써 군사원호를 명목으로 하던 일체의 원호단체는 해산하게 되어 원호활동을 금지하게 된 것이다.

(2)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본법의 목적은 제대군인으로서 공무원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군에서 습득한 교육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생활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마련하여 주어 일반 사회인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다.

(1) 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가) 제대군인 (나) 상이군인 또는 상이군인이 취업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 모, 처, 자녀 중의 1인 (다) 전몰장병의 유족에 대하여는 미망인 또는 부, 모 중의 1인 (라) 상이 군경 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 전직 경찰관과 그 유족 등이다.

(2) 본제도에 의거하여 피원호자가 취직할 수 있는 기관은

(가) 정부 각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직할 기업체 등이다.

(3) 특전(特典)

(가) 제대군인의 군복무 중의 직위와 복무경력을 일반사회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일반 사회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채용시험에 있어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시험 만점의 5%를, 상이군인 또는 전사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될 직위에 대하여는 본법에서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우선임용하도록 하였다. (라) 감원우선보유제 실시 (마) 복직제의 확립

(3)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

본법의 목적은 제대군인과 유족을 정부 각 기관 또는 기업체에 의무적으로 우선적 고용을 하여 피원호자의 생계보장을 도모함에 있다.

(1) 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가) 제대군인 (나) 상이군인 또는 상이군인이 취업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 모, 처, 자녀 중의 1인 (다)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 군경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 전직 경찰관과 그 유족

(2) 본제도에 의거하여 피원호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은

(가)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고보조를 받는 기관 (나) 인원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기타단체,

(4)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금법

본법의 목적은 제대군인 상이군인 군인유적을 정착시키고 대부(貸付)받는 재원으로써 정착케 하여 생활유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주는데 있다.

(1) 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가) 중사(일등병조(一等兵曹)) 이상의 군인으로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된 자 (나) 전상을 입고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연금혜당자로서 전역된 자 (다) 전사자 권직자(權職者)의 처 또는 부모(본인이 장자(長子)인 경우에 한)

(2) 본제도에 의거하여 실시할 대부의 종류는

(가) 농장구입대부. 이 대부는 평가된 농장 가격의 70% 이내로 하되 그 한도액은 5백만 원으로 한다.

(나) 농장확장대부. 이 대부는 3백만 원을 한도액으로 한다.

(다) 주택매입 또는 신축에 대한 대부. 이 대부는 평가된 건물 가격의 70% 이내로 하되 그 한도액은 3백만 원으로 한다.

(라) 사업체의 매입 또는 전세에 대한 대부. 이 대부는 평가된 사업체의 평가액의 70% 이내로 하되 그 한도액은 5백만 원으로 한다.

4. 결론

군사원호에 관한 이상과 같은 제법의 제정 공포으로써 제대군인, 군경유가족, 상이군인 등 피원호자들에 대한 국가의 권익보장은 충분히 마련되어졌으며 이것은 그 혜택을 앞으로 입을 당사자들에 대한 복음(福音)인 동시에 현역군인은 물론 앞으로 군에 입대하여 국토방위의 중임을 맡을 장정들의 사기를 크게 앙양시키게 될 것이다.

국가가 이와 같이 군사원호대상자들의 권익을 보장한 목적과 정신의 구현은 앞으로 위정(爲政) 당국의 성의와 노력여하에 달려 있겠다. 하겠지만 또한 피원호자들의 국가시책에 대한 자각과 협조가 있어야만 그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끝)

국가재건을 위해 귀관은 무엇을 실천하였나

재(再) | 표(標)
건(建) | 어(語)

후기

○... 천고마비(天高馬肥) —하늘 맑고 마음도 맑은 계절, 일초의 시각도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는 계절, 가을은 분명 계절의 스타— 혁명과업수행의 템포도 한층 더하여지는 계절이다.

○... 아침 라디오에서 문득 다음과 같은 구절이 귀에 들어왔다. ‘한 가지의 나쁜 버릇을 고치면 열 가지의 나쁜 버릇이 따라서 고쳐지고, 한 가지의 좋은 버릇을 기르면 열 가지의 좋은 버릇이 따라서 길러진다고. 5·16 혁명은 이미 국민으로 하여금 과감한 구악(舊惡) 일소(一掃)를 실천케하고 있는 터이지만은 이 라디오의 말이 다시 머리에 떠오른다. 우선 가까운 것부터 그리고 쉬운 것부터……’

○... 시골에 출장을 갔다가 온 어느 지인의 펍 감명 깊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여관에서 늦잠을 좀 자볼 생각이었는데 아침 여섯 시가 되니 여관 주인이 방방을 돌아다니며 잠을 깨우기에 왜 그러느냐고 하였더니 주인 왈 “방은 손님이 돈을 내고 사신 방이라 하루 종일이라도 주무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관집은 저의 집이오, 저의 집에서는 혁명 후 아침 6시엔 모두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고 있으니 손님께서도 저의 집 버릇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미안해하면서도 강권하더라는 얘기— 가까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실천하자!

○... 「미사일」 발간이 늘 늦은 것은 독자 장병에게 미안하기 그지없다. 아무튼 책자란 양적 가치가 아니라 질적 가치이기에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때문이라고 변명은 하지만은 그간 아직 정상적 궤도에 오르지 못한 편집시스템에도 구실이 없지 않다. 이제 다음 호부터는 간행 일자를 지켜 제구실을 다하도록 할 작정이다.

○... 겸해서 이 지면을 빌려 「코메트」와 「미사일」의 간행 취지 즉, 내용과 그 성격을 간단히 소개하면 전자는 반공과 민주이념교육을 후자는 생활실천교육을 뒷받침하는데 그 주안을 두고 있다.

○... 10월 1일은 제6회 국군의 날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국군이 자라온 길은 험난했다. 천신만고(千辛萬苦) 속에서 오늘의 강군(強軍)이 육성되기까지에는 많은 희생이 지불되었음을 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국군은 만방에 그 막강을 자랑하게 되었지만은 호시탐탐 침략의 독아(毒牙)를 벌리고 있는 공산군의 교마지세(驕馬之勢)를 생각할 때 반공의 보루으로써 더 한층의 굳건한 태세가 요구됨을 절감한다.

이 뜻깊은 국군의 날을 맞아 이 자그마한 책자 「미사일」이 우리 공군장병의 정신무장의 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또 될 것을 믿어 마지않는다. (Y)



전(全)공군의 전술부대를 통합지휘하게 될 공군작전사령부의 창설식.

지난 9월 15일 K-55기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중(中) = 박 국방부장관이 초대 사령관 김성룡(金成龍) 준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원내(圓內) = 김 참모총장이 항공□□홍장(胸章)을 김 사령관에게 달아주고 있는 광경





<전진하는 전력>

보무(步武)도 당당히 기운차게 전진하
 족의 진군이 있다.
 나 같은 보사(步詞)………
 나 같은 마음………
 의 배가(倍加)도 국가재건도 여기서 성
 다.

발행처(發行處) ·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겸편집인(發行兼編輯人) · 공군대령(空軍大領) 주정호(朱貞鎬)
 인쇄처(印刷處) · 공군교재창(空軍教材廠)
 인쇄인(印刷人) · 공군대령(空軍大領) 김석환(金石桓)
 월간(月刊) 미사일 5호
 공군본부 정훈감실

미사일

